자기를 바로 봅시다

금주의 법구
지금 여기에 살라!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의 현실에 살라!
-법구경-

현대불교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pia.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4년(서기 2000년) 5월 10일 수요일(주간) 제270호

佛事 전념 30年
불교미술전시관
석탑불사의 모든 것
책임 상담해 드립니다.
02)733-4800 http://www.Buddha.co.kr 신흥사 청동대불

"겨레는 하나…통일 큰걸음"

남북 불교대표 봉축 인사말 교환…정부 "불교계 남북교류 지원"

"부처님 법이 하나이듯 우리 겨레도 둘일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조국통일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딛어 봅시다."

남북불교를 대표하는 종단협의회 회장 정대스님과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 박태화 위원장이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각각 남·북 불자들에게 보내는 인사말을 교환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그동안 남북불교도 공동발원문을 봉축법요식에서 봉독했지만, 남북의 불교지도자가 인사말을 서로 교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동발원문과 별도로 남북의 불교대표가 인사말을 교환한 것은 이전까지의 남북불교교류보다 폭넓은 교류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불교교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문화관광부가 남북종교교류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인사말을 교환함으로써 이후 교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인사말 교환과 관련, 조계종총무원 사회부는 "북측에서 먼저 인사말을 보내왔으며, 이에 대해 우리측이 답하는 형식을 띠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대스님은 '북녘동포들에게 보내는 봉축인사말'을 통해 "1600년 민족의 역사와 함께 했던 불교도들이 단합한다면 반세기의 반목과 대결은 봄볕에 녹아나는 눈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라며 "부처님의 한량없는 법을 따라 상생의 길을 개척해 나가자"고 말했다. 정대스님은 또 "불자들이 민족의 화합과 공생을 위한 서원을 모으면 민족의 미래는 더없이 낙관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불련 박태화 위원장은 "부처님 탄생일에 북과 남의 불자들이 조국통일의 서원을 안고 통일기원 동시법회를 가지게 되니 참으로 감개무량하다"며 "종단과 단체, 지역과 연령, 성별의 울타리를 풀어내고 앞선 자는 자만하지 말고 뒤진 자는 부지런히 뛰어 모두 함께 통일의 대광장에 들어설 때 불교는 겨레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불교로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대스님의 인사말은 1일, 박태화 위원장의 인사말은 4월 28일 팩스를 통해 전달됐다.

문화관광부는 1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2000년도 중점개혁과제를 보고하면서 남북종교교류와 관련 △종교계의 남북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종교축일 행사(부처님 오신날, 부활절) 남북한 공동개최 등의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은 4월 10일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발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직까지 문화재에 관한 남북교류가 없었던 데다 북한 문화유적의 보존상태가 매우 부실한 만큼 이 분야에 협력의 무게를 실었다"고 말해 이후 남북문화교류에 불교계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이달 중 가칭 민족화합공동체추진본부를 발족하고, 북한문화재 남북공동조사, 북한 불교문화재 서울 전시 등의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만물에 불성 있다는 부처님 가르침 소중"

김대통령 봉축메시지



김대중 대통령은 4일 불기 2544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축하메시지를 발표했다. 김 대통령은 "부처님은 생로병사의 고해 속에서 신음하는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 오셨다"며 "지구환경의 파괴로 모든 존재가 공멸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때 만물에 불성이 깃들어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소중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불자들이 앞장서서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이루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냉전을 종식시키는데 크게 공헌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봉축등을 전국 60여 사찰에 현등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온 누리 밝히는 연등행렬

서울 동대문운동장에서 조계사에 이르는 3㎞구간에서 7일 펼쳐진 제등행렬에 참가한 5만여명의 불자들이 아기부처님 장엄물과 각종 등에 불을 밝혀 행진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부처님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

7일 연등축제 5만여 불자 동참

60여 도시서 제등행진

불기 2544년 부처님 오신날 연등축제가 7일 조계사 앞 우정국로와 동대문운동장, 종로거리에서 펼쳐졌다.

이날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동대문운동장에서 봉행된 연등법회에는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25개 종단 총무원장과 100여개 사찰의 스님과 신도 등 5만여명이 동참해 부처님 오신 뜻을 기렸다.

이날 법회에서는 남북불교도 공동발원문이 봉독됐다.

법회 이후 참석자들은 취타대와 전통의장대를 선두로 아기부처님 코끼리 용 등 대형장엄물과 오색깃발을 앞세우고 조계사까지 제등행진을 벌였다. 특히 올해는 사찰별로 연꽃등을 비롯 창작등에 불을 밝혀 거리에 나온 시민들의 박수를 받았다.

제등행진을 마친 불자들은 우정국로에서 회향한마당에 참여, 줄타기 등 전통민속놀이를 즐기며 '부처님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 하는 삶을 서원했다.

이날 낮 12시부터 우정국로에서는 불교단체들이 연등만들기, 전통문양 탁본 체험마당, 우리농산물 장터 등을 마련해 축제분위기를 북돋우며 외국인과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부산 대구 광주에서도 6일과 7일, 10일 부산역광장 등에서 연등축제를 봉행했으며, 전국 60여개 도시에서도 지역봉축위원회 주최로 4일부터 봉축행사를 거행했다. 〈연등축제 화보 18, 19면〉 정성운 기자

부처님 오신날 특집 32면 발행

봉축대담-禪과 21세기 3면
큰스님과의 대화-조계종 전계대화상 법룡스님 16·17면
봉축 동화 '부처님이 눈을 떴어요' 27면
사진으로 보는 연등축제 18·19면
좌담-새 시대 새 불자상 정립 4면
오늘의 10대 제자가 되자 5면
교계 정보화 과제와 전망 10면
사이버 불자 유인영씨의 하루 11면



buddhanews.com
붓다뉴스 닷컴
교계 첫 日刊 사이버불교신문
6월1일 오픈합니다

불교계 정보화를 선도해온 현대불교신문은 6월1일부터 연중무휴 실시간으로 가동되는 불교뉴스 전문사이트 붓다뉴스 닷 컴(www.buddhanews.com)을 선보입니다.

인터넷 현대불교 '붓다뉴스'는 그동안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가 서비스해온 인터넷신문을 불교뉴스 전문사이트로 확대 개편하면서 대대적인 혁신을 단행한 교계 최초의 일간 사이버신문입니다. 인터넷 현대불교 '붓다뉴스'는 교계의 뉴스를 매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교계 최대규모로 구축된 불교DB '부다피아'와의 연계 검색기능도 갖추고 있으며 인터넷의 강점인 정보이용자와 제공자간의 쌍방향 교신도 가능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불교 DB검색 가능
쌍방향 정보교류

매일매일 서비스되는 '붓다뉴스'는 기존의 종이매체 현대불교신문에서 제공하는 그날의 종합뉴스와 불교강좌·학술문화·교육·신행·생활정보등 전영역에 걸쳐 기자들이 수집해온 정보를 다루게 됩니다. 따라서 독자들은 기존신문이 지면 제약으로 싣지 못했던 기사를 모두 볼 수 있고 각종 부가정보와 심층분석기사 등 다양하고 품격높은 정보와 만나게 됩니다.

특히 기획특집기사, 해외불교, 최신불교정보, 사이트 여행에서는 산사 큰스님들의 사자후인 감로수 같은 법문과 1600년 전통의 한국불교문화, 21세기 새로명으로 떠오르고 있는 선 관련자료와 국내외 불교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밖에 상담실, 생명나눔캠페인, 부다카페, 컬럼, 돌부처찾기는 특화된 서비스로, 클릭 사이버뉴스부장·나도한마디·퐁퐁앗이등 10여개의 대화창은 쌍방향 정보교류의 장으로 독자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신문제작에 적극 반영하게 됩니다.

교계 최초로 선보이는 '붓다뉴스'에 불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

불기 2544년 부처님 오신날을 축하합니다.

프리즘정보통신(주)

주요기능 및 서비스
휴대전화 기능
무선 인터넷 검색
E-mail송수신
주소록 기능
스케줄관리 기능
MP3플레이어 기능
실시간 불교뉴스
공연 /전시회소식
오늘의 법문
찬불가 듣고 배우기
전통사찰 소개
오늘의 생활지혜
쇼핑/경매기능



• 휴대 무선단말기 SPEC
화면 회상도 640×480
windows CE 탑재
핸드폰 기능(CDMA) 통신기능
무선데이타 전송속도 50K이상
65530 VGA 칼라

• 무선불교정보서비스
불교실시간 뉴스, 공연/전시회 오늘의 법문,찬불가 듣고 배우기,전통사찰소개, 오늘의 생활지혜등이 7월중 무선불교정보로 서비스 됩니다.
무선 인터넷 검색과 E-mail 송수신,PDA기능등과 함께 제공될 무선불교정보서비스 단말기는 현대불교신문사 인터넷불교백화점 마하몰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MP3,휴대전화,무선인터넷 검색등 다양한 서비스를 전국 어디에서나 단말기만 있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 인터넷불교백화점 www.mahamall.co.kr TEL:737-8881(代)/732-1522

참여업체 SK Telecom SYBASE 한국대상 CyberBank

무선 불교정보 서비스는 프리즘정보통신과 공동으로 현대불교신문에서 제공하며 회원가입 및 무선 불교정보 단말기구입은 현대불교신문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봉축사설

나의 삶 속에 모시는 부처님

부처님이 오심으로써 새로운 세계가 열리었다. 모든 중생들이 자신의 참다운 생명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통스런 윤회의 쳇바퀴를 끝없이 돌 수밖에 없었던 암흑의 세계에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부처로 태어나는 광명의 세계를 활짝 열어 보이셨으니, 하늘과 땅이 열려 꽃비를 내리고 산천초목이 함께 기뻐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 새로운 시간 새로운 세계가 시작한지 어언 2544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또 다시 그날의 환희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마음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맞는다. 부처님이 열어주신 그 복된 세계에 몸담고 있는 우리의 행복을 한껏 느끼며, 그러한 세계를 열어주신 부처님께 온 몸으로 감사를 드리는 이 날은 바로 2544년 전의 그 날에 다름 아니다. 이 법으로 말하자면 부처님은 오심도 가심도 없으시니, 우리들이 온 마음을 열고 그 분을 우리 속에 모시는 이 날이야말로 바로 부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오시는 그 날인 것이다. 그러하기에 '부처님 오신 날'은 우리 불자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세계의 열림을 봉축하는 날임과 동시에, 진정으로 나와 우리들의 진실한 믿음과 실천 속에 부처님을 모시고자 하는 큰 서원의 날인 것이다.

계절도 좋은 화사한 이 봄날에 한껏 부처님 앞에 우리 행복과 감사의 몸짓을 드리자. 사부대중 함께 어우러져, 밤을 수놓는 아름다운 연등 불빛에 자비와 지혜의 광명을 담아 온 누리로 전하는 화려한 축제를 벌이자. 우리 불자들의 부처님에 대한 사랑과 공경을 가장 아름답게 담아내는 봉축 행사야말로 바로 부처님 자비와 지혜 광명을 온 세상에 전하는 첫 걸음이다. 이 복된 날의 기쁨과 서원의 축제를 통해 우리 불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그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 불교계를 덮고 있는 어둠과 갈등을 몰아내고 적극적으로 중생구제에 나서는 불교로 거듭나자.

부처님은 이미 오셨고 또 나날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 부처님의 바다에 온 몸을 던지자. 늘 '부처님 됩시다' 하고 인사하면서도 너무나 먼 님으로 모셔왔던 부처님을 이 날을 계기로 가까이 모시자. 나의 현재의 삶, 나의 중생상 속에 바로 부처님을 모시는 구체적인 신행을 일으키자. 장사하는 부처님, 회사원 부처님, 청소하는 부처님, 학생 부처님들이 손에 손을 잡고 나를 바꿔가고 세상을 바꿔 가는 움직임을 일으키자. 불국 정토가 어디 따로 있겠는가? 이렇게 진실한 서원을 지닌 불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불세계가 아니겠는가? 부처님 오심의 큰 의미, 부처님의 큰 부촉은 바로 이러한 공동체를 끝없이 넓혀 나가 온 중생이 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그러한 세상일 것이다.

이렇게 바로 오늘의 여기에 부처님을 내 안에, 또 우리들의 손잡음 속에 모시기를 서원해야만 한다. 오늘 여기에서 부처님을 모시는 것을 미룬다면 그 미룸이 업이 되어 내일도 또 내일도 미룸이 이어지고, 부처님은 내일 또 내일 오실 것이다. 오늘의 세계가 어제의 세계와 다르고 내일의 세계는 또 오늘의 세계와 다르기에, 바로 여기에 부처님을 모시는 우리의 신행도 나날이 새로울 수밖에 없다. 부처님의 지혜 눈으로 오늘의 달라진 현실을 바로 보고, 부처님의 자비행으로 오늘의 문제를 풀어가, 내가 있음으로 우리가 있음으로 좀 더 환하게 밝은 세계를 이루어 나가는, 참다운 생명으로 참다운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부처님을 여기에 상주하게 하는 우리의 신행이다.

이렇게 큰 서원으로 불교 문제를 보고 사회 문제를 보자. 부처님이 열어 보이신 광명의 세계, 그 밝은 빛 앞에 무엇이 문제이겠는가? 그 참 뜻을 바로 보고 그 빛에 온 몸을 던질 때 우리들의 참된 원력과 신행에 의해 올바른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큰 서원에 바탕한 신행운동이 일어나면 작은 갈등과 어둠은 저절로 사라진다. 그러하기에 불교가 제대로 서고, 세상이 불세계로 바뀌어 나가려면 부처님 오심의 참 뜻을 깨우쳐 그것을 나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서원으로 삼아야 한다. 온 인류가 설레임과 불안으로 2000년이라는 새로운 세기를 맞는 올해의 '부처님 오신 날', 세상의 변화가 빠른 만큼 우리들의 부처님을 모시는 삶도 더더욱 치열해져야 하기에, 우리 불자들은 더더욱 새로운 각오로 이러한 서원에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나날이 나와 우리의 삶 속에 부처님을 모시는 삶이 이어지기를 힘차게 발원하며 올해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자. "하늘 위 하늘 아래 나 홀로 높다"는 선언을 "오호라 나 날 때 한 소리로 세"라고 외치면서 우리 모두 힘찬 부처의 몸짓을 시작해 보자. 아직은 어설픈 몸짓이지만 우리 모두 함께하는 그 몸짓으로부터 불교계와 사회의 어두운 그늘을 걷어내는 힘찬 신행을 일으켜 온 세상이 부처님 오신 은혜를 함께 노래하는 나날들이 이어지게 하자.

"달라이라마 9월초 방한"

범불교대책위, 티베트 망명정부에 공식 요청키로

정부 입국허용 시사

오는 9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방한가능성이 높아졌다.

'달라이라마 방한 범불교대책위원회'(범대위)는 정부가 최근들어 달라이라마 방한문제에 대해 신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 달라이라마를 9월 4~9일 한국에 초청하기로 결정했다.

범대위는 4월29일 공동대표단 회의를 열고 조만간 달라이라마의 방한을 공식 초청하는 편지를 인도의 다람살라에 있는 티베트 망명정부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또 부처님 오신날 행사가 끝나는 대로 범대위 대표단이 김수환 추기경, 강원룡 목사, 조정근 원불교 교정원장 등 타종교 지도자들을 방문, 달라이라마 방한 협조요청을 하기로 했다

범대위의 이런 결정은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이 4월28일 달라이라마의 한국 입국을 거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데 따른 것. 이 장관은 4월27일 탕자쉬안(唐家璇) 중국 외교부장이 마련한 만찬석상에서 "불교계에 자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인구의 3분의 1을 신도로 가진 불교계의 달라이라마 입국 거부조치에 대한 항의가 계속될 경우 한국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중국측에 사전 양해를 구한 바 있다.

범대위 정웅기 사무국장은 "범대위의 공동대표단회의는 법장스님(수덕사 주지)을 상임대표로 선출하고, 범대위 대표단을 티베트 망명정부에 파견, 6월14일 달라이라마를 친견, 방한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 '티베트를 생각하는 사람들' 회원 50명은 4월 29일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달라이라마 방한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자비와 평화의 정신 전파하자"

교황청 초파일 축하메시지

로마 교황청의 종교간대화평의회 의장 프란시스 아린제 추기경이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전세계 불교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발표했다. '기독교인과 불교인-새 천년을 향한 대화의 순례자들'이란 제목의 이 메시지는 6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에게 우편으로 전달됐다.

아린제 추기경은 축하 메시지에서 "모든 불교인들이 행복한 석가탄신일을 맞이하기 바란다"며 "불교인과 기독교인은 다른 종교인을 포함한 모든 선의의 인류와 함께 연민과 용서, 자비와 우애, 정의와 평화의 정신이 전파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부처님 은덕 이땅 충만"

정진석 서울대교구장 축전

정진석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은 2일 불기 2544년 부처님 오신날(11일)을 앞두고 불교계에 축전을 보내 "이 땅의 불자와 모든 사람들에게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은덕이 충만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정 대주교는 "우리 사회에는 물질만능주의 사상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하고 "불교와 천주교를 비롯한 우리나라 종교계는 함께 힘을 모아 진·선·미의 조화 속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운 기자

"불교의 부정적 인식 사회참여 무관심에서"

윤원철 교수, 중앙신도회 세미나서 주장

불교가 민족의식에 바탕하여 환경 인권 복지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한국사회에서 주도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이 나왔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4일 '한국사회의 현실과 바른신행의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봉축 신행혁신 세미나에서 윤원철교수(서울대 철학과)는 '한국사회 현실과 불교의 가능성'이라는 주제발제를 통해 "청빈과 금욕의 생활태도, 타문화에 대한 포용적 사상과 전통민족문화 대변자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불교가 한국사회의 주류로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 윤교수는 "불교에 대한 부정적 인상은 사회참여에 대한 무관심에서 지적된다"며 "한국사회에서 불교가 힘있게 부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교교리 및 전통을 일반인들도 손쉽게 차용할 수 있도록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한 대화 과학화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른신행의 방향'을 주제로 제한 이종철교수(한국정신문화원는 불법의 진리를 확대 재생산하위해 재가공동체 형성이 필요하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인도문권에서 불교가 사라지게 된 것재가세력이 독자적인 공동체를 성하지 못한 것이 큰 요인이었며 재가교공동체는 외적으로 국적 불교공동체연대를 모색하고 적으로는 통일에 대비하는 정신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노부호교수(서대 경영학과)는 "승가위주의 한불교는 시대흐름을 역행하는 결를 낳고 있다"며 "재가불자들을 심으로 현실참여등 실천의 가치을 뚜렷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현 대 만 평 박구원



민족대화합을 기대하며…

대만의 초파일 '첫 공휴일로'

지난해 공휴일 제정 이후 처음으로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는 대만은 11~14일 전국에서 봉축행사를 봉행한다.

서울장충동 불광산사 주지 의은스님에 따르면, 대만불교계는 부처님 오신날 경축위원회를 구성하고 꽃차행진, 삼호(三好)운동, 국가공휴일 제정 기념 관욕법회 등을 거행한다.

꽃차행진은 우리나라의 제등행렬과 비슷한 것으로, 12일 부처님 일대기를 형상화한 차량을 앞세우고 타이페이 시내를 행진한다. 삼호운동은 '좋은 일을 하자(作好事)' '좋은 말을 하자(說好話)' '좋은 마음을 지니자(存好心)'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벌이는 달리기 대회다. 관욕법회는 타이페이 중정기념관 등 3곳의 도시에서 14일 동시에 봉행한다. 대만 입법원은 지난 해 6월 부처님 오신날을 국가공휴일로 제정했다. 정성운 기자

美, 초파일 공휴일 제정 움직임

미국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뉴욕불교협의회(Buddhist Council of New York)는 3월 9일 클린턴 대통령에게 봉축일을 미연방 공휴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1985년 스리랑카의 피야티사(P.K.Piyatissa) 스님에 의해 설립된 뉴욕불교협의회는 그 동안 미국 전역에서 '공휴일 제정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 캠페인은 스리랑카, 태국 일본, 미얀마, 중국, 한국, 푸에리토리코, 티베트 등 22개국의 79개 단체의 후원을 받았다.

한편 지난해 12월 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일로 지정한 국제연합은 15일 오전 10시 소강당에서 뉴욕불교협의회와 스리랑카 대사관이 주최로 봉축법요식을 봉행한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논 설 고 문 : 고 은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현대불교 www.buddhapia.com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2544 Buddha's Birthday
부처님오신날



부처님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

대한불교조계종은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가르침에
따른 대자비행을 실천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대비원력으로 정진 하겠습니다.

종 정 혜 암
원로회의의장 탄 성
총 무 원 장 정 대
중앙종회의장 법 등
호 계 원 장 월 서
교 육 원 장 일 면
포 교 원 장 정 련

불기 2544년 5월1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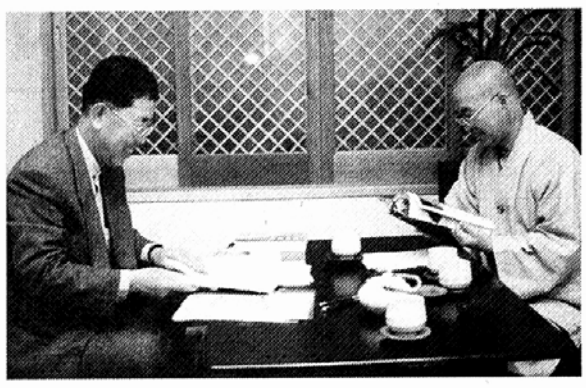
대 한 불 교 조 계 종

특별대담 '禪과 21세기'

법륜 스님(정토회 지도법사) : 심재룡 교수(서울대 · 철학)

20세기말과 21세기를 시작하며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드는 IMF, 정보통신의 발달, 문명의 전환, 이런 것들이다. 그 속에는 빠름과 경쟁이 도사리고 있다. 빠름과 경쟁에 지친 사람들은 묻는다.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질문에는 다분히 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 15세기의 한때를 살았던 괴테는 "우리의 모든 이론화 작업은 결국 실재의 접근에 실패할 것"이라며 서양문명의 한계를 지적했다. 정신심리학자 융은 "동양의 정신 가운데서도 선은 불교의 방대한 사상세계를 받아들여 더욱 풍부하게 한 중국정신의 놀랄만한 꽃"이라며 선에서 빛을 보았다.

그런데 한국불교의 현실을 보며, '선은 21세기의 사상적 대안'이라는 명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점검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한국불교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실천의 모델을 모색하고 있는 법륜스님과 심재룡 교수의 대담을 통해 선이 사상적 대안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 한국불교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들었다.



◇법륜스님과 심재룡교수는 선이 21세기 삶의 지표가 되기 위해서는 붓다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담은 4월29일 서울서초동 정토법당에서 진행됐다.

"깨달음과 대비심 조화이룰때 실천불교"

■ 선, 21세기 사상적 대안인가

법륜=선을 불교와 떼어내 선이 21세기 대안이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은 그냥 불교다. 대승불교가 관념화 당주의화한 것을 비판하고 붓다의 근본정으로 돌아가자는 게 선불교다. 그렇기 문에 선불교가 21세기의 대안이냐고 묻보다는 21세기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 국의 '선이 무엇을 할 것이냐는 질문이 적절하다.

심재룡=중국, 일본의 선과 달리 한국의 은 혹독한 수행과 엄격한 계율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선이 이미 형해된 불교에 대한 반발로 본래의 불교로 아가고자 한 순수한 종교적 열정의 발였다면, 한국선은 그 열정이 아직도 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 이 모습이 곧 대안이 되는 것은 아니 가능성일 뿐이다.

법륜=시대의 대안이란 과제를 푸는 사적 · 이론적 · 실천적인 해답이 될 수 있냐는 것인데, 21세기 인류사에서 가장 과제는 환경문제이다. 서양의 환경문제 응책은 대증요법인데 비해 불교의 연기 세계관은 사상적 대안이 될 수 있다. 하나의 문제는 교통통신의 발달과 세화에 따른 자기정체성의 혼란이다. 화엄 인드라망의 세계는 자기매몰도 아니고 에 대한 배타도 아닌 공존의 길을 제하고 있다.



심재룡 교수

■ 대안이 되기위한 조건

심재룡=근본불교의 가르침에는 오늘의 제를 풀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있는데, 00년의 역사를 거쳐오며 몇 단계에서 붓의 가르침이 왜곡되고 형해화됐다. 한국은 깨달음을 기다리는 병을 앓고 있다. 닫고 나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깨음과 실천은 항상 같이 있는 것이다.

통불교라고 하면서 종파주의에 빠져 있 종파의 전통은 스승과 제자 사이에 형되는 법맥인데, 특정한 스님에게서 인가 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 속세의 족보의와 같은 것으로 훌렸다. 사람을 보지 고 진리를 보라고 했지 않은가.

수행의 부재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계종 스님만 1만5천여명인데, 안거에 방에 없고, 세속주의가 유일사상이고 세개의 종교는 세속주의라는 종교의 한 계파일 뿐이다.

현재의 한국불교가 서 있는 토대로는 결코 세계화도 할 수 없고, 21세기의 대안이 될 수도 없다. 붓다의 가르침으로 진지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심재룡=선불교는 대승불교의 관념화를 부순 것으로 붓다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불교라는 큰 틀을 무시하고 선만을 따로 강조해선 안된다. 선불교는 단적으로 붓다의 가르침인 것이다.

앞에서 수행법의 미확립을 지적했는데, 돈오돈수(頓悟頓修)만이 정로(正路)라며 다양한 근기를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양한 근기를 무시하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수행체계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여러 수행법을 주류와 비주류, 수승과 열등한 것으로 놓지 말고 개개인의 근기와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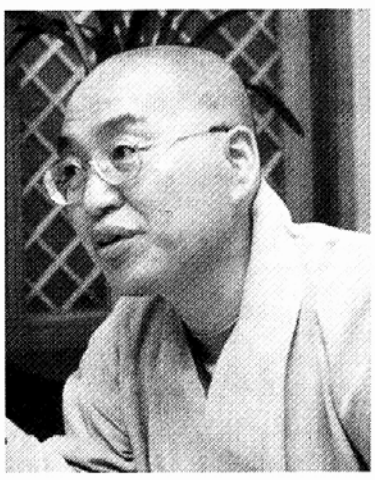
아울러 종파성의 극복, 선수행을 위한 교학의 확립도 필요하다. 수행의 원리와 방법, 다양한 행법들의 장단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이론체계를 교학의 범주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법륜=일체중생에 불성이 있다니까 그냥 따르면 법집(法執), 또다른 도그마가 될 수 있다. 달마가 마음이 괴롭다는 혜가에게 '불안을 마음을 가져오라'고 한 것이나, 몽둥이를 휘두르거나, 소리를 지른 것은 남의 가르침을 뒤쫓는 관념의 노예화, 비주체화에 대한 경계였다. 현실의 문제에 부딪치면서 여래의 가르침에 계합해 가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선은 파격이었으며, 단도직입이었다. 그런데 1700 공안 이후의 선은 복잡해졌다. 팔만대장경을 복잡하게 읽을 것 없이 단도직입으로 네 인생을 봐라 그랬는데, 지금은 선수행을 하려면 팔만대장경보다 더 많은 선문집을 봐야 한다. 마치 근본불교를 소승불교인들이 잘못 이해해서 대승의 비판을 받았고, 대승불교가 선의 비판을 받은 것과 같이 선은 또 새로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심재룡=법의 세계에서는 하등 이상할 게 없지만, 이제 외국스님들에게 수행의 가르침을 듣는 시대가 되었다. '나는 누구인가' 의문을 가졌는데 숭산스님이 해답을 줘서 출가했다고 하는 폴란드 출신의 오진스님을 만났다. 물질문명에 물들어 있는 서구에서 오히려 적게 먹고, 적게 쓰고, 적게 자고 하는 일종의 소비문화에 대한 반소비문화운동이 활발하며 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스님 설법할 때 한국사람들이 많이 온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소에 스님들에게 듣지 못한 얘기를 들으니 불교란 게 이렇게 쉬울 수도 있다. 참선도 어려운 게 아니며, 부드리는 스님은 천명 안팎이다. 최소한 10년 이상 꾸준히 참선수행하는 수좌들이 소수에 머물고 있다. 선불교 수행법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인데, 수행 부재의 결과가 조계종사태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법륜=더 근원적인 문제는 세속주의다. 현재 한국불교는 세속주의에 철저히 물들어 있다. 많이 생산해서 많이 쓰는 게 잘 사는 것이 세속주의인데, 여기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부처님께 빌면 물질의 부를 얻을 수 있다고 부추기고 있다. 브라만이 되어버렸다.

정당하게 경쟁해서 많이 가지려는 것이 세속적인 정의라면, 지금의 불교는 세속적인 불의에 서 있다. 불교만이 아니다. 세속주의를 부추기는 역할을 불교와 개신교와 천주교가 하고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의 종교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종교는 세속주의종교 하나밖에 없다. 세속주의가 유일사상이고 세속주의를 부추기는 역할을 불교와 개신교와 천주교가 하고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의 종교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종교는 세속주의종교 하나밖에 없다.



법륜 스님

禪, 자기반성 넘어 생활운동으로
붓다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자

화엄의 인드라망 '공존의 길' 제시
한국불교 세속주의 반성 필요

자기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화두를 받아들인다.

스님만이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생활선이 되어야 한다. 또 자기반성을 통해서 인류의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인식의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실천운동 사회운동으로 직결되어야 한다.

■ 불교공동체의 회복

법륜-앞에서 환경문제의 해결이 인류의 가장 큰 과제라고 했는데, 환경문제는 많이 생산해서 많이 소비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생각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같은 경향의 철학적 바탕은 사회를 개별적 존재의 집합이라는 시각이며, 대립이 뒤따른다. 대립은 둘 중 하나가 이겨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붓다의 가르침에 따라 살펴보면, 이 세상의 존재는 연관된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의 궁극적 목표는 조화와 균형이다.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것이다. 공동체의 대표적 모델이 승가집단인데, 승가는 특별한 집단이 아니고 하나의 공동체다. 의사진행의 민주적 절차, 경제적인 평등, 이것을 위한 육화합의 원칙이 갖춰져 있다. 승가공동체를 당시 사회의 하나의 모델로 본다면, 오늘날 우리도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한다.

심재룡=개인은 소유하는 개인이고, 경쟁하는 개인이다. 개체가 모여서 경쟁하고 소유하려고 한다. 여기에 자본주의까지 합쳐져 20세기는 욕망의 확대재생산을 되풀이하고 있다. 승가공동체는 무소유 · 무아집 그러니까, 경쟁이 없다. 소유도 공유다. 무소유라는 말은 서로 나눈다는 것이다. 요즘 말로 하면 분배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요즘은 상대적 빈곤이 심각하다. 나는 못 먹는데 너는 먹으니까 문제가 된다.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불교에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법륜=승가의 민주주의란 무소유적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무아집, 자기 것을 고집하지 않는 의미의 공동체 즉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일반적인 민주주의와는 개념이 다르다.

세속적 자유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자유라고 한다. 수행에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하고 싶은 것을 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하기 싫은 것을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는,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와지는 것이다. 중도라고도 말하는데, 이것이 진정한 자유 즉 해탈이라고 말한다. 그런 것을 체현시켜 나가야 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

정토회도 공동체 실험의 하나다. 우리의 공동체가 해야 할 것은 내부의 이익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고 공동체 밖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심재룡=불교공동체의 근본 취지는 불교의 본뜻을 살려 실천적인 사회구제에 참여하자는 것이다. 국제적인 연대활동도 필요하다. 선이 21세기의 인류에게 사상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대답은 유보해야 한다. 붓다의 정신으로 돌아갈 때에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공동체의 회복은 부처님이 가르친 근본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운동이라는 점에서 불교도의 과제이기도 하다.

법륜=대승보살도를 우리는 일과 수행의 통일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자기 변화와 사회의 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자기 변화라는 것이 수행을 말한다면, 사회의 변화는 사회를 정의롭게 하기 위한 실천이다. 아침에 일어나 참선하고 낮에 일하고, 다시 사시예불 올리는 의미의 수행과 일이 아니다. 일과 수행을 분리해선 안된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일하다보면 갈등이 생기는데, 이럴 때 자기를 돌이켜보는 것이 수행이다.

깨달음이란 나와 타자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행위로써 받아들이는 것이다. 따라서 깨달음이 따로 있고 대비심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이 곧 비심(悲心)을 가져오고, 우리가 아픈 마음으로 상대를 살펴보고 상대와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깨달은 것이다.

정리=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佛紀 2544年 (庚辰年) 부처님 오신날

發願已歸命禮三寶 새 천년 불국토

佛紀 2544年 (庚辰年) 부처님 오신날

대한불교조계종 호국참회기도도량 삼각산 도선사

회 주 혜 성
주 지 광 복

대중일동

■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264번지
TEL : 종무소 02)993-3161~3 / FAX : 02)993-3164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정 일
상무이사 성 문

"선사스님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한국불교발전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 재단법인 선학원 임원 일동 ·

▶ 재단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안국동 40번지 (우 110-240)
TEL : 02)734-9654~6 / FAX 02)734-3410

좌담 : 새 시대 새 불자상 정립

믿음 실천하는 보살로 거듭나자

출가자든 재가자든, 부처님 말씀대로 살고 본분사에 충실하면 그가 곧 참다운 불자다. 이러한 불자의 길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 특히 현대 사회는 보다 다양한 방식의 보리 추구와 회향을 요구하고 있다. 불교가 달라져야 한다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이에 〈현대불교〉는 불기 2544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새로운 시대의 불자상 정립'을 모색하기 위한 좌담을 마련했다.
〈편집자〉

참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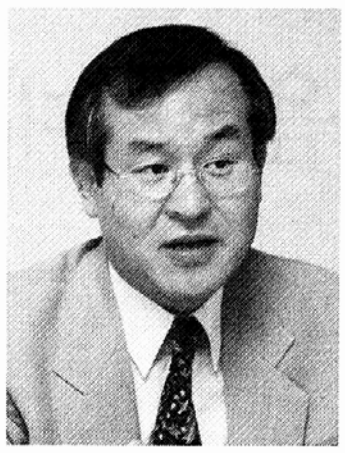
퇴휴 스님
법장사 주지

박광서 교수
서강대 물리학과
불교바로세우기 재가연대 상임대표

이문희 씨
서울 정토사 신도

사회:윤제학 취재2부장
일시: 2000년 5월 2일
장소: 본사 불교사랑방


퇴휴스님


박광서 교수


이문희 씨

절의 주인은 모든 불자 은둔-기복 이미지 벗자

승·재가 역할분담 절실 재가 교육프로 체계화

불사 치중 포교 등한시 승려 노후대책 세워야

사회: 새 시대는 우리에게 과거와는 전혀 다른 불자상을 요구하고 있다. 대사회 참여나 봉사와 같은, 불법의 사회적 실천이 바로 그러한 요구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면 사회와 동떨어진 종교가 될 것은 자명하다. 이런 전제하에 자유토론 형식으로 새시대 불자상을 찾아 보도록 하겠다. 먼저 출가자는 재가자에게, 재가자는 출가자에게 '이런 모습은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평소의 생각을 털어놓았으면 좋겠다.

퇴휴: 출가자는 오욕락으로 표현되는 모든 세속적 가치 추구를 포기하고 더 큰 가치를 찾아나선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런 출가자들에 대한 재가 불자들은 요구는 아주 세속적이다. 심지어는 보시금 등을 통해 스님을 소유물화하려 든다. 이런 행위는 수행자에게 서비스 맨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 보시금을 많이 냈을 때 응분의 대우를 바라는 것도 한 예다. 이점이 매우 안타깝다.

박광서: 그러나 사회인들의 눈에 비친 스님들의 모습은 오히려 오욕락을 추구하는 듯하다.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스님들은 수행과 교화에 전념하고, 재가불자는 그러한 여건과 풍토를 만들어 가는 역할 분담이 필요할 것 같다.

이문희: 스님들이 외형적 불사에만 치중하는 것 같다. 재가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실천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뒷전이다. 사회를 제도하는 데도 힘을 써 주셨으면 한다. 무의탁 노인이나 교도소와 같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곳에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퇴휴: 일부 스님들이 오욕락에 빠져버린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인데, 그것이 전체의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것은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실적으로 사찰에서도 물질적 토대가 필요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도 이상의 물질 추구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회: 사실 승가의 물질 추구는 대부분 불자들의 기복에 빠진 신행 패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쉽게 말해서 '내 복만 빌어 달라'고 요구하는 불자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다. 이 점에 대해서도 반성적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퇴휴: 기복 그 자체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실의 삶에서 행복 추구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기복은, 부처님을 맹목적으로 믿고 '돈 많이 벌게 해 달라,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 달라'는 등 불보살의 가피력을 도깨비 방망이 식으로 이해하는 것인데,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한 실천의 결과로서의 복이어야 한다. 이제는 불자 스스로가 달라져야 한다. 헌신, 희생, 봉사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보살로 거듭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교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종교가 되고 만다. 이제는 은둔과 기복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한다.

박광서: 전적으로 동감이다. 타인과 사회를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복이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교육이 절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복이라는 것은, 남을 위해 자신의 공덕을 회향할 때 나도 같이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만인이 행복하지 안으면 나도 행복할 수 없다'는 유마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는 불자가 되어야 한다.

사회: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사회적 회향으로 넘어갔다. 어떻게 해야 할 것으로 보는가.

이문희: 나는 봉사를 기도로 삼는다. 그래서 나는, 나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어디든 간다. 또 이러한 실천[行]은 기도와 똑같다고 생각한다.

퇴휴: 봉사 활동도 매우 중요한 보살행이다. 그러나 대개의 불자들이 실천할 수 있는 보살행은 생활 속에 있다. 환경 보호를 예로 들어 보자. 헌 옷을 재활용하는 것도 보살행이고, 물을 아껴 쓰는 것도 보살행이다. 이제는 불자들도 내 한몸 또는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시민사회운동과 같은 공등체의 관심사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문희: 그런데 봉사 활동의 현장에서 보면, 사찰에 가서 불자들에게 노력 봉사를 권하면 주지스님들은 마치 신도를 빼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스님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사회: 승가의 의식 전환과 함께 신도들의 각성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새삼스럽긴 하지만 교육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겠다.

박광서: 재가 교육이 있어 왔는지 궁금하다. 승가 교육 또한 최근 반세기 동안 상당히 부실했다. 승가 교육이 이러한데, 재가자 교육은 말할 것도 없겠다. 천주교의 경우, 일정 수준의 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세례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 불교는 이런 게 없다. 스님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철저한 신도 교육이어야 한다. 훈련되지 않은 재가로는 새로운 불자상을 기대하기 힘들다.

퇴휴: 승가교육이 체계화된 것은 10여 년 안팎이다. 승가 교육에서 강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인데, 현대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은 부족하다. 스님은 자기수행뿐 아니라 교화자의 역할도 해야 하는데, 이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스님의 자질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신도 교육은 뒤처질 수 밖에 없다. 신도 교육은 불교가 바로 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사회: 이와 함께 사찰 운영의 재가 참여와 재정 공개도 중요하다고 본다. 이것 없이 불법의 사회적 회향을 거론한다는 것은 공허한 얘기가 될 것 같다.

박광서: 스님들에게 너무 많은 일들이 집중돼 있다. 큰 사찰에서도 사찰, 신도, 재산 관리, 재정 운용 등은 스님들의 몫이다. 그래서 살림은 재가와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 어느 스님은 "재정만큼은 절대로 줄 수 없어" 하고 말하는데, 이것은 '주고 받을'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결코 기득권의 포기나 축소로 접근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면 시대를 이끌 종교로서의 역할은 기대하기 힘들다.

퇴휴: 문제의 핵심은 사찰이 사유화되는 것이다. 주지가 되면 경제권, 인사권을 장악하는 것으로 여긴다. 주지를 맡으면 모든 권리를 갖고, 주지를 놓으면 모든 권리를 잃는 식의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재정 투명화라는 것도 그렇다. 실제로 조계종 교구 본사의 경우도 신도회가 유명 무실하다. 관광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찰은 '운영위원회' 구성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 일 년에 한두 번 절에 오는 신도가 태반인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 이를 간과하고 재가의 참여를 말하는 것도 설득력이 약하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것이다.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자각된 신도, 자각된 스님이 돼야 합리적인 운영과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박광서: 모든 사찰들이 사찰 재정 공개를 시행하기는 힘들 것이다. 먼저 관람 징수 사찰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단에서도 이를 점차적으로 유도해야 것으로 본다. 이 문제는 개별 사찰의 제가 아니라 종단의 정책 문제이다. 그 고 재가 또한 주인 정신을 갖고 불교라 큰 그림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자각해 한다.

이문희: 신도들이 모이면 삼보정재를 함부로 쓰는 스님들을 흉본다. 한편으로 종단 차원에서 스님들의 노후 대책을 마련해 줘야 재정 공개 문제도 해결 될 것이다.

퇴휴: 스님들의 노후 문제가 해결되면 삼보정재 유실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비난 받는 부분이 없어질 것이다. 재정 공개에 자신감이 없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다 보면 종단도 건실해지고 불교도 발전해 나갈 것이다.

사회: 정리를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오늘 우리의 논의는 정답과 같은 '새로운 불자상'을 도출해 내는 자리는 아니다. 하지만 현재의 우리 모습을 솔직하게 토로해 낸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불자상이 어떠해야 할지를 어렴풋이나마 그려본 것 같다.

정리=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佛紀 2544年 (庚辰年) 부처님 오신날
發願已歸命禮三寶 새 천년 불국토
佛紀 2544年 (庚辰年) 부처님 오신날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종

종정 영산 일공

원로원장 황법운
승정원장 송보인
고시위원장 최법신

종의회 의장 조성관
종의회부의장 김인관
포교원장 조성견
문화원장 김선진
중앙비구니회회장 박대월
종정사서실장 임체관

총무원장 최법륜
총무부장 장체승
사회부장 임보광
재무부장 박대월
교육부장 이체원
총무국장 이체인
규정국장 박체성
사업국장 강체도

인천종무원장 장체승
충청남북종무원장 김체의
강원종무원장 류무송
경북종무원장 손지관
경남종무원장 최천호
전라남북종무원장 이정광

▶ 서울시 구로구 구로2동 704-39호 전화 : 02)857-5094 / FAX : 02)859-1042

부처님 10대제자와 '오늘의 불자상'

부처님의 출가 제자 가운데 수행과 지혜가 특출한 제자 10인을 십대제자(十大第子), 또는 석가십성(釋迦十聖)이라 부른다. 이들 10대 제자는 모든 불제자의 본보기로서, 불교 신행 분야마다의 바람직한 태도가 어떠해야 할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오늘의 불자들도 이들 10대 제자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나날의 생활 속에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지혜롭고 청빈하며 하심할 줄 아는 삶

■지혜제일-사리불

사리불(舍利弗, Sariputta)은 회의론자였던 산자야를 따르던 외도(外道)였으나 불법에 귀의한 뒤 빼어난 지혜로 도반들에게 능히 모든 의심을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지혜제일(智慧第一)이라 칭송받았다.

흔히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불리울 정도로 '지혜'를 강조한다. '사물의 실상을 꿰뚫어 보고 미혹을 밝혀 깨달음을 완성하는 작용'인 지혜는, 인간과 우주에 대한 '근원적인 앎'이기에 사물에 대한 단순한 앎인 지식과는 다르다.

따라서 이러한 지혜의 증장을 위해서는 경전 공부를 통해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고, 수행을 통해 내면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지식은 배울수록 쌓이지만, 지혜는 닦을수록 마음을 비우게 한다.

지혜가 높아질수록 삶에 대한 통찰력은 깊어지고, 삶을 관조하는 여유가 생길 때 깨달음은 저절로 다가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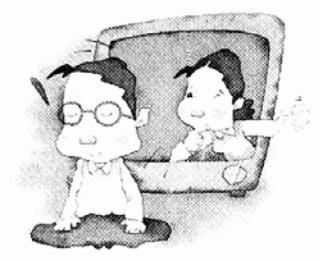


그림:이준석

■신통제일-목건련

목건련(目犍連, Moggallana)은 사리불의 권유로 불법에 귀의한 뒤 신통(神通)을 익혀 능히 시방(十方)을 날아다녔으므로 신통제일(神通第一)이라 불렸다. 불·보살이 갖는 초자연적인 능력인 신통력은, 천안통(天眼通)·천이통(天耳通)·타심통(他心通)·숙명통(宿命通)·누진통(漏盡通)·신경통(神境通) 등 6신통으로 나뉜다.

천안통은 오늘날 카메라와 인공위성 등이 천리 밖의 일을 TV 화면으로 보여주는 것과 같으며, 천이통은 전화기나 무선통신기기 등의 역할과 같다. 타심통은 최면술과 유사하며, 하늘을 날고 몸을 숨기는 능력인 신경통은 비행기와 로켓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과학문명이 신통력을 대신하므로 불자들은 오로지 깨달음을 추구할 뿐 신통력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된다. 최고의 신통은 '생명' 그 자체다.



■두타제일-마하가섭

마하가섭(摩訶迦葉, Mahakassapa)은 의·식·주에 대한 집착을 없애는 십이두타(十二頭陀)를 실천, 능히 고행을 견디어 두타제일(頭陀第一, 修行第一)이라 칭송받았다. 불멸 후 제1결집을 주도했으며, 선종에서 서천 28조 중 제1조사로 추앙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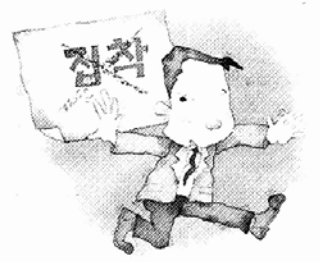
12가지 두타행이 상징하는 것은, 육체적인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마음으로부터 집착을 버리지 않는 한, 인위적인 단식과 고행은 자신의 몸을 망칠 뿐이기에, 부처님은 '고통도 쾌락도 아닌'(非苦非樂)의 중도적 수행을 강조하셨다. 몸과 마음의 안정과 건강을 유지할 정도의 청빈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오늘의 불자들에게도 꼭 필요하다. '등 따뜻하고 배 부르면 수행하기 어렵다'는 큰스님들의 말씀처럼 적당한 긴장과 절제가 필요하다.



■해공제일-수보리

수보리(須菩提, Subhut)는 기원정사를 기증했던 수달(須達,Sudatta) 장자의 조카로, 불법에 귀의한 뒤 능히 공(空)의 도리를 체득했으므로 해공제일(解空第一)이라 칭송받았다. 그러나 공사상은 후대 대승에 와서야 성립되었으므로 본래는 은둔제일(隱遁第一)이라고 불리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는 인공(人空), '존재하는 것은 모두 인연에 의해 생기기 때문에 실체라 할 것이 없다'는 법공(法空)의 두 입장은, 고정적인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받아들인 연기(緣起)와 같다. 그러나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무주의식 공병(空病)은 경계해야 한다. 공허한 인생과 우주만물의 본질을 규명하고 있는 '공'사상은 현대물리학의 이론과도 일치한다. '공'을 아는 불자라면 마땅히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중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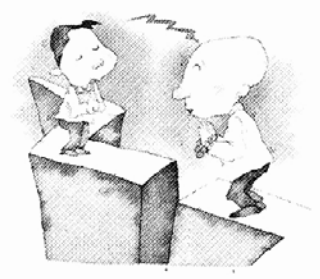


■설법제일-부루나

부루나(富樓那, Purana)는 수달장자의 소개로 불법에 귀의한 뒤 의리(義理)를 분별하여 설법하였으므로 설법제일(說法第一)이라 칭송받았고, 후에 고향인 수나아파란타국에 가서 포교했다.

탁월한 지식과 언변으로 무려 9만9천명의 사람을 교화한 부루나는 상대를 굴복시켜 자기 주장을 주입하는 방법보다는 상대의 입장을 일단 인정한 다음, 참다운 불심을 싹트게 하는 포교법을 구사했다. 그는 대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안일한 삶을 버리고 목숨을 버릴 각오로 변경 포교에 임해 수나파란타에서 1년 동안 5백명의 사람들을 불교에 귀의시킨 후 입적했다.

남을 감화시키는 포교는 진실한 말과 함께 행동으로 보여주는 무설설법(無說說法)이어야만 가능하다. 스님과 불자들이 사회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을 때 포교는 저절로 이루어진다.



■논의제일-마하가전연

마하가전연(摩訶迦旃延, Mahakatyayana)은 능히 교법의 깊은 뜻을 탁월한 논리로 분명히 하였으므로 논의제일(論議第一)이라 칭송받았다.

부처님 당시에도 외도들과의 논쟁은 필수적이었다. 불자들은 바르게 알고 실천해야 하며, 정연한 논리로 남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무명은 가장 큰 죄악'이라 했듯이 올바른 신행은 바른 사고와 언행에서 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될 때 8정도(正道)가 현실의 삶 속에서 구현된다. 기복과 미신에서 벗어나 바른 신행을 펼치는 것은 미혹을 깨치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다.

조금 불교공부를 했다고 해서 어설픈 '알음알이'를 내서는 안된다. 교만은 수행의 최대 장애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로를 인정하는 열린 토론은 불교사회운동과 불교학 발전의 원동력이다.



■천안제일-아나율

아나율(阿那律, Aniruddha)은 부처님 설법 자리에서 졸다가 꾸지람을 들은 후, 잠을 자지 않고 수행하여 천안(天眼, 心眼)을 얻어 능히 시방세계를 보았으므로 천안제일 (天眼第一)이라 칭송받았다. 지나친 고행으로 육체의 시력은 잃었으나 정신은 맑고 밝아 지혜의 큰 눈을 얻은 것이다.

TV, 인터넷, 천체망원경, 레이더 등 오늘날 '천안'으로 비유될 문명의 이기는 많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것을 보면서 오히려 마음의 눈을 잃고 있다. 온갖 정보와 눈요깃거리가 탐욕을 부채질하고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다. 지혜의 눈을 떠 자신의 마음과 세상을 꿰뚫어보는 혜안을 갖추어야 한다. 심안으로 세상을 볼 때 미혹되지 않고 청정한 삶을 살 수 있다. 눈 밝은 불자들이 명안종사(明眼宗師)의 역할을 할 때 세상은 바른 길로 굴러갈 것이다.



■지계제일-우바리

우바리(優婆離, Upali)는 노예 신분인 수드라 계급의 이발사 출신으로 불법에 귀의한 후 계율을 능히 잘 지켰으므로 지계제일(持戒第一)이라 불렸고, 제1결집 때 율을 송출(誦出)해 내는 역할을 맡았다.

우바리는 계율이 생사윤회를 벗어나 해탈을 성취하는 지름길이자 그 터전이 되며, 성불의 계단을 오르는 사다리와 같음을 일깨웠다. 계율이 없이는 선정과 지혜도 없다. 불자들은 온갖 유혹이 많은 이 시대에 스스로 자신을 지키며 가르치는 5계를 굳건한 생활신조이자 행동강령으로 삼아야 한다. △산 목숨을 해치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은 훔치지 않으며 △사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며 △술 먹고 취하여 정신을 잃지 않는 것들은 평화, 평등, 청정, 신뢰, 지혜의 바탕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밀행제일-라후라

라후라(羅睺羅, Rahula)는 부처님의 아들로 15세에 출가(최초의 사미)한 뒤 금계(禁戒)를 범하지 않고 남이 보지 않아도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므로 밀행제일(密行第一)이라 칭송받았다.

라후라는 수행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을 위한 것이며, 닦을수록 겸손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는 '막행 막식'에 관대한 선종의 잘못된 관행에도 경종이 되고 있다. 은처·파계승 논란이 끊이지 않는 오늘의 한국불교가 되새겨야 할 일이다.

부처님은 라후라에게 "한 번 더럽혀진 물은 사람이 먹을 수 없다. 사람도 올바른 지혜와 자신을 닦지 않으면 이(밥 씻은) 물처럼 버릴 수밖에 없다"고 계율의 중요성을 설했다. 불자들은 개인적인 수행에 앞서 사회적 윤리에도 투철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깨달음의 빛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다문제일-아난다

아난다(阿難陀, Ananda)는 부처님 사촌동생으로 부처님 설법을 많이 듣고 기억하여 능히 잊지 않았으므로 다문제일(多聞第一)이라 칭송받았다. 제1결집 때 경(經)을 송출해 내었으며, 부처님의 이모인 마하파자파티의 출가를 도왔다. 대부분의 경전이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로 시작되는데, 이 '나'가 바로 아난다를 지칭한다.

아난다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기억한 것은 그의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부처님을 진정으로 믿고 편견없는 마음으로 모든 가르침을 받아들인 까닭이다. 많이 배웠다는 '알음알이'를 내지 않고 진정한 하심(下心)으로 스님의 말씀과 경전을 받아들여야 한다. 참된 불자라면 마땅히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스님들의 설법을 텅빈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만 '깨침'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김재경 기자



佛紀 2544年 (庚辰年)
부처님 오신날

發願已歸命禮三寶 새 천년 불국토

佛紀 2544年 (庚辰年)
부처님 오신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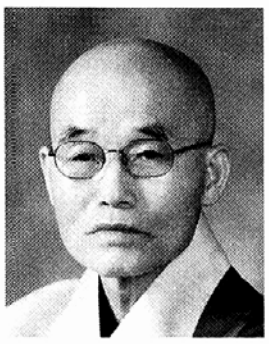
대한불교 종단진흥회

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장	전운덕
대한불교일승종	총무원장	김혜정
한국불교미륵종	총무원장	윤송정
대한불교용화종	총무원장	이법덕
한국대승불교여래종	총무원장	신명안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총무원장	유청송
삼화불교대학	학장	손혜인
대한불교임제종	총무원장	박혜공
한국불교법륜종	총무원장	법선
대한불교대각종	총무원장	석만청
대한불교원융종	총무원장	최법륜
대한불교법사종	총무원장	성원덕
대한불교해동종	총무원장	송산
한국불교정토종	총무원장	김지산
대한불교미타종	총무원장	이월정
대한불교법상종	총무원장	정법륜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석봉
대한불교삼보종	총무원장	송법찰
대한불교용애회	회주	김무찰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151-1 파고다빌딩 301호 대표전화 : (02)766-4848 / FAX : 766-5007

각 종단 봉축법어 지역감정 해소·남북화해 통일 지름길

"육체의 나 아닌 일심동체 큰 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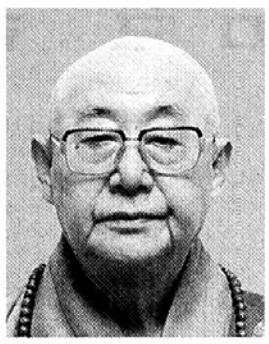
혜암 조계종 종정

이 우주의 주인이요 인천의 스승이시며 사생육도 중생의 어버이시고 만고광명의 등불이 신 부처님께서 애민중생 제도하고자 이 사바세계에 오셨습니다. 이 좋은 계기를 맞이하여 국가로 더불어 온 누리에 거룩하신 지혜광명이 가득하여 모든 중생들에게 축복과 영광 소원성취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국민들은 화합이란 말만 하지 말고 육체의 나를 버리고 일심동체의 큰 나로 돌아가 국가재앙의 근본인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북녘과 화해 교류 협력하는 것만이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바른 길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백년도 허환한 꿈속의 몸이니 즉기로 결심하여 하루 빨리 도를 자각하는 일 이것이 바로 부처님 오신 날의 진정한 축하 의미입니다.

뿌리 없는 채소를 밭에 가득히 심어
밑바닥 없는 바구니에 모두 캐어다가
입 없는 스님들이 한껏 대중 공양하니
부처님께서도 경축일에 환희심으로 동참하시고
멋진 차나 한잔 드십시오.

"모두가 평화·안락속에 사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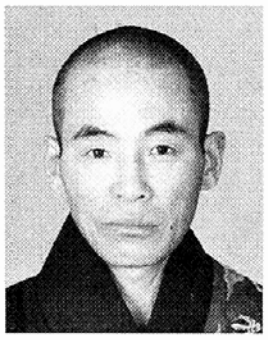
덕암 태고종 종정

부처님께서는 오늘 지혜와 자비의 광명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지혜광명으로써 이 세상의 어둠을 걷어주시고 자비광명으로써 고통받는 인간을 제도해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인간보다 더 존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다같이 평등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성이 손상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새천년 새로운 시대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발휘하여 인간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밝은 사회 안락한 세상을 건설해야 하고 인륜과 도덕성을 회복하여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지혜를 모아 우리 민족의 숙원인 조국의 통일을 하루속히 이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갈등과 증오를 풀고 누구라도 내몸같이 여기는 동체대비심을 발휘하여 내 동포 내 형제를 고통에서 건져내어 우리 모두가 평화와 안락속에 함께 즐기며 살 수 있는 조국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비·인과법칙은 우주 근본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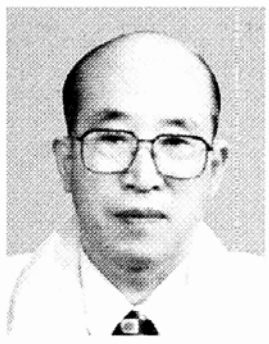


도용 천태종 종정

부처님은 진리의 태양이십니다. 저 허공의 태양이 밝은 광명으로 온 누리를 비추고 따뜻한 온도로 모든 생명을 길러주듯이 부처님이 이세상에 출현하시어 밝고 밝은 지혜의 광명으로 무명의 중생계를 환하게 비추어 주시고 따뜻한 자비의 은총으로 모든 생명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우주, 인생과 생명의 실상을 열어보이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마다 본래 불성을 지니고 있다 하시어 인간존엄성을 선언했습니다. 그리하여 지극히 고귀한 불성을 계발하여 스스로 밝은 사람이 되고 밝은 생활을 창조하며, 나아가서는 모든 고통과 모순과 죄악의 어두운 먹구름이 제거된 광명사회와 정복(淨福)으로 충만한 이상사회를 구현하는 길을 가르쳐보인 것입니다. 또 부처님은 우주의 근본원리인 인과법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의 중생들은 부처님의 이 고귀한 가르침을 잊고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여 스스로 악업을 지으며 비인간의 어두운 길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도 부처님의 가르침이신 자비 지혜와 인간존엄, 인과의 원리 그리고 화합사상이 요망됩니다. 우리 불자들은 솔선하여 물질문명의 그늘에서 시들고 있는 인간정신의 위기와 비인간으로 전락된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모든 생명의 존엄을 자각케하여 인간회복과 삶의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리이타 실천 정토세상 만들자"



각해 진각종 총인

부처님오신날의 참된 의미는 우리들 자신이 가진 최고 가치의 발현을 통하여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인격을 이루고자 하는 각오와 정진을 새롭게 하는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중생들은 누구나 다 부처님과 같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구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노력없이는 결국 이룰 수 없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나무가 불에 탈 성품을 지니고 있지만 부지런히 불을 일으키는 노력없이는 불이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날 인류는 물질적인 면에서는 큰 발전을 이루었지만 이에 따른 심성의 발전은 그에 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지구촌 곳곳에서는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발전의 대가로 생겨난 각종의 환경오염은 모든 중생들의 삶의 기반을 위협할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타자리의 보살행을 실천하는 우리들 불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바로 보고 스스로 자신이 행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여 밀엄정토의 세상을 만드는데 적극 참여하여야 하겠습니다.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신을 성찰하는 참회와 실천행으로 이땅에 부처님 오신 그 의미를 마음깊이 새겨갑시다.

생명있는 모든 존재들이 더불어 안락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만다라 세계를 구현하는데 모든 이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정진, 서원합시다.

백발이 되어도 마음은 늙지 않네



혜웅 관음종 종정

멀리멀리 물은 남쪽으로 가고 길고 긴 강은 북쪽에서 오네
옛과 옛이 또한 지금과 지금인데 버드나무가지 위에 꾀꼬리 소리가 매끄럽다.
슬프고 슬프고 또 기쁘고 기쁘니 인간사 흥망성쇠 잠깐이네
옛 사람이 일찍이 말했거늘 백발이 되어도 마음은 늙지 않는다고.
왼손은 나는 번갯불 잡고 오른손은 바늘에 실을 꿰네
그림자 없는 나무 잘라다가 저 바다의 거품을 다 태우리라.

금파 대한법화종 종정

지혜가 없는 자 미래가 다하도록 자기를 모르고
아집과 편견으로 세상을 어둡게 하고
자기만 제일이니 어리석은 마음, 병든 마음을
하루속히 버리고 차별없는 대자비로 사회에 공헌하며
부처님께 귀의하여 평등사회 이룩하세

혜안 보문종 종정

석가모니부처님께서 탄생에서 열반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바로 일체중생을 해탈에 들게 하기 위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어두운 주위를 밝히는 자비의 등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빈자의 일등처럼 정성으로 또한 스스로의 수행으로 무명을 밝힐 수 있는, 금생과 내생에도 꺼지지 않는 마음의 등을 밝히십시오.

일공 원융종 종정

나 하나만 있어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세계의 모든 것들과 융화하는 속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인데 자연은 점점 삭막해지고 인간 마음도 자꾸만 이기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이런 시기에 우리 스스로는 나하나만의 복락을 취하기전에 둥글게 융화하는 원융의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일깨워주신 자비의 마음을 본받아 베풀어야 할 때입니다.

록정 총지종 종령

언제나 나의 마음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잘 관찰하여 탐진치 마군을 조복받고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동체대비, 무연대자의 정신을 살려나갈 때에 진정한 불국정토가 실현될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잘 들여다 보고, 소외되고 억압받는 많은 이웃을 돌아봅시다. 불자들이 황폐하고 삭막해져가는 이 사회를 구하고 불국정토를 일구어 나갑시다.

정각 법륜종 종정

부처님같이 사바의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대원력을 세워서 이 사바세계를 불국의 정토로 장엄해야만 하겠습니다. 사상적인 갈등, 빈부의 격차, 소외와 멸시, 대자연의 오염 등이 지구를 온통 파멸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청정승풍을 진작하여 시대에 부응하는 불교를 이끌어가는 진리의 역군이 되어야 합니다.

혜흡 법화본종 법주

부처님께서는 일대사 인연으로 사바세계의 일체 중생들이 부처님의 지혜를 스스로가 열어서 청정한 마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출현하셨습니다. 이 뜻깊은 날에 한번 더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그 해답을 얻은 다음 이제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육자 진언종 종정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함이 공존되고 서로의 존재성이 인정되며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구현되도록 원력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서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본연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것이 즉신성불의 길입니다. 밀엄국토의 세상이 자기 한 생각에 달려있으니 더욱 정진하여 동체의 삼밀수행 즉신성불을 이루어야 겠습니다.

태허 본원종 종정

암흑한 천지에 광명이 솟아나니 삼계도사 사생자부 부처님 나심이다.

생사에 얽매여 앞길 잃은 중생의 길잡이였고 사고팔고(四苦八苦) 무량고통 생사 바다 동서미(東西迷)한 고해에 등불이로다. 일등능제천년암(一燈能除千年暗) 일지능멸만년우(一智能滅萬年愚)

지명 조동종 종정

부처님탄생게에서 진리를 깨친 자 대법왕이니 / 고해화택 중생 마땅히 제도해야 하느니라 하신바 / 묵조의 중도비법으로 정각을 이루시고 / 모든 중생 적자로 여기시는 대비로써 중생 건지셨으니 / 양단되고 혼탁한 삼천리 방방곡곡 산하대지를 / 깨끗이 세척하여 정화하는 선도자가 될 것을 / 삼보앞에 엄숙 서원하오리.

인왕 여래종 종정

법계의 대법왕의 사자후가 우리들 가슴에 메아리쳐 울리나니 불자들의 마음마다에 성태자가 탄생하시도다. 불자들이여, 조고각하(照顧脚下)하여 성성착(醒醒着)하라. 지혜와 자비 평등과 화합을 지니신 부처님의 본분과 서원에 의한 원력을 저버리고 도심 난맥상을 보이는 이 나라 불교는 오늘 탄강하신 불조의 사자좌 앞에 부복대참회 있으라.

대산 삼론종 종정

우리들은 찬란한 태양처럼 맑고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몸 이 마음 우리의 국토를 진리의 빛으로 밝힐 것을 다짐합니다. 어둡고 대립하고 혈뜯고 괴로워하던 악몽같은 밤을 영원한 과거로 흘려보냅시다. 불자들에 의하여 자비와 희망과 뜨거운 우정의 물결을 온사회 온구석 구석에 넘치게 하는 날이 되게 합시다.

해곡 열반종 종정

부처님께서는 수행정진을 통하여 열반에 이르도록 중생들에 가르침을 주셨으며 누구나 성불하여 부처님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빈자의 등' 정신을 통하여 인류를 위하여 자신을 불태워 어둠을 밝힐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탐진치 삼독을 버리고 자비를 실천하여 남을 존중하고 청정한 수행과 이웃과 사회, 국가를 위하여 자비정신으로 봉사하는 불자가 됩시다.

부처님 오신날, 봉은사로 오세요

불기 2544년 부처님 오신 날,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봉은사로 오십시오. 세상의 주인이 되십시오
당신을 초대합니다.

▶ 봉은사 연등 대축제 일정

행 사 명	날 짜	행 사 내 용	장 소
교통 안전 호신염주 달아주기	5월 8일~9일	운전자 호신 염주 달아주기	봉은사 앞 도로
제1회 봉은 불교 캐릭터 축제	5월 4일~11일	봉은 캐릭터 전시 및 상품 판매	진여문 앞
연등 대축제 및 제등행렬	5월 7일	연등 축제 및 제등행렬	동대문운동장
봉축 법요식	5월 11일(음 4.8)	법요식 및 관불식	대웅전 앞
마음의 등 나누기	5월 4일~11일	직접 등 만들어 선물하기	법왕루
서원 사탕 나누기	5월 11일	일년 서원 뽑기 및 사탕 나누기	대웅전 앞
봉축 등 점등식	5월 11일 저녁	사월초파일 밤 점등의식	봉은사 경내
거리 축제	5월 11일 저녁	부처님 강림 행사, 거리 공연	봉은사 앞 도로

대 한 불 교 조 계 종 봉 은 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 02) 511-6070/4

작은 빗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룹니다!

우리나라는 겨레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구국의 대작불사를 전개해 왔습니다. 신라시대에는 황룡사와 불국사를 건립했고, 고려시대에는 팔만대장경을 만들었습니다.
선각자들의 가르침으로 민족의 어둠을 밝히고 나라를 일으켜온 동국의 찬란한 100년!

지금 우리는 수도권 불교종합병원 건립의 대원력을 세워 이땅에 불국정토를 구현하려 합니다.
작은 빗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이 인연있는 한사람, 한사람이 마음을 모으면 그 공덕은 수미산과 같습니다.

오늘도 동국은 10년 후, 100년 후를 생각하며
우리시대에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장 吳綠園
동 국 대 학 교 총 장 宋錫球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SINCE 1906



서옹스님 봉축휘호



서옹스님(고불총림 백양사 방장)이 봉축 휘호로 쓴 '隨處作主'. 어느 곳에서나 근본자리의 주인공이 된다면 선곳이 다 참되게 된다는 선가의 가르침이다.

꽃꽂이로 전통·현대 접목

'산사의 꽃향기' 낸 지연스님



불교꽃꽂이연합회 창립 초.대회장을 지냈던 지연 스님(보림꽃예술중앙회장)이 불교꽃꽂이 개인 작품집 I〈산사의 꽃향기〉를 펴냈다.

스님은 서울 옥수동 미타사에서 출가한 이후 30여년간 21차례의 국내전시와 4차례에 걸친 국제전시를 열며, 불교꽃꽂이의 보급과 발전에 정진해 왔다. 그 동안 〈불교의 꽃 이야기〉〈보림회의 길잡이〉 등 불교꽃 관련서를 선보이기도 했다.

"30년 전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는 신심하나로 꽃꽂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스님은 "앞으로도 전통과 현대를 동시에 표현해 낼 수 있는 창조적인 불교꽃꽂이 작업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작품집에는 부처님 출가절 꽃 장식을 비롯 의식 및 재래명절, 화혼의식, 사십구재 등 불교의식에 사용되는 꽃꽂이장식을 화보로 소개한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불교 입장서 현대사회 연구"

동국대 불교문화론 강의 日 이시가미 교수



"교리 연구는 불교학의 토대지만, '불교 문화론'은 불교학의 미래입니다."

지난 4월26일부터 8일까지 동국대에서 '불교문화론' 특별 강좌를 연 이시가미 젠노(71) 교수는 '불교문화론'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다.

국내 불교학계에 다소 생소한 '불교문화론'을 대정대학에서 18년 동안 연구해 온 이시가미 교수의 이번 강좌는 3월2일 동국대 석좌교수로 임명된 이후 첫 강좌로, 문화인류학적 관점을 토대로 불교를 이해하는 연구 방법론과 성과를 소개하는 자리다.

불교문화론은 불교와 인문·자연과학과의 접점을 찾는 학문으로, 동국대에서 2년 전부터 석·박사 과정에 개설해 온 '응용불교학'과 유사하다. 그러나 국내 응용불교학이 불교의 수성(守成)에 치중한다면, 이시가미 교수의 불교문화론은 '사회의 이해'라는 측면이 강하다.

일본에서 '옴진리교' 파문이 확산될 때, 가장 빠르게 대처한 사람들이 바로 불교학자들이었데, 이들은 교리를 연구하는 학자보다는 불교문화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소개한 이 시가미 교수는 "이는 현대 사회에 대해 불교문화론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성향을 잘 보여주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시가미 교수는 "한국불교는 이미 형식화 된 일본불교와는 달리 '살아있는' 불교 그 자체"라며 "한국불교를 주제로 불교학계에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한다면 혁신적인 성과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시가미 교수는 동국대에서의 첫 강의를 기념해 40여 년간 불교학을 연구하며 수집한 산스크리어본, 티베트어본 장경을 비롯 5천 여권의 불서를 동국대 도서관에 기증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고통끝에 환희심 느꼈어요"

미얀마서 승려체험 탤런트 이원용씨



"욕심을 버리고 분수에 맞게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KBS-2TV가 봉축특집으로 7일 1시간30분 동안 방영한 '도전지구탐험대-미얀마 승려 체험기'에 출연한 탤런트 이원용 씨(43). 이 프로를 위해 4월 한 달 동안 미얀마에서 승려 체험을 했다.

다큐 기행 형식으로 구성되던 '도전지구탐험대'가 드라마를 가미한 형식으로 바뀌면서 제작진은 연기 경험이 있는 출연자를 물색하던 중에 탤런트인 이씨를 섭외하게 됐다.

미얀마 사원에서 1주일간 탁발 등 수도원일을 열심히 하며 '신뷰식'의 식을 거쳐 '신띠로가'란 법명을 받은 이씨는 그 와중에 수도원 생활을 견뎌내지 못해 '징벌위원회'에 회부돼, 4대 성지를 순례하고 돌아오라는 명도 받았다.

"삭발하고 걸어서 다닌 수백㎞의 미얀마 성지 순례는 체중이 5㎏이상 빠지는 고행이지만 환희심을 느낄 정도로 보람있는 체험이었습니다."

탁발한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가장 힘들었다고 토로하는 이씨는 미얀마에서의 스님생활이 앞만 보고 바쁘게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밝힌다. 이원용 씨는 현재 KBS-2TV '만남'에 출연중이다.

김주일 기자

일주문

길상사 관음상 봉안법회



법정 길상사 회주는 4월28일 가톨릭 조각가 최종태 씨가 조성해 화제를 모았던 관음상을 대웅전 앞뜰에 봉안하는 점안법회를 가졌다.

하와이 무량사서 봉축법문



혜성 도선사 회주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하와이 무량사에서 봉행되는 봉축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5일 출국했다.

불교방송 개국 10돌 기념식



도후 불교방송 사장직무대행은 4월28일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불교방송 개국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대중 대통령 내외가 참석해 축사했다.

남북정상회담 성공기원



법장 강원불교연합회장(신흥사 주지)은 2일 춘천 베어스타운호텔에서 남북정상회담 및 강원불교 발전을 위한 대법회를 개최했다.

성당서 '열린마음' 강연



성운 삼천사 주지는 4월30일 서울 방학동 성당에서 부활절과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열린 마음과 닫힌 마음'을 주제로 강연했다.

부처님 오신날 기념 관불 기도



자우 경찰청 경승실장(금강사 주지)은 경찰청 법당에서 4일~11일 부처님 오신날 관불 정근기도를 봉행한다.

린포체 초청 마정수기

실상 대구 법왕사 주지는 2일 '티벳의 링마 린포체 초청 마정수기 및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대법회'를 봉행했다. 또 '부처님과 함께 하는 법왕사 2000 청소년 놀이 한마당'도 결했다.

갑사서 어린이날 행사



장곡 계룡산 갑사 주지는 5일 어린이날 봉축행사로 사물놀이, 불교무술 시범, 전통차 시음회, 그림자 놀이 연극, 아생화 전시회, 108연꽃 전시회, 서화 전시회 등을 실시했다.

남대문경찰서 봉축법회



혜안 남대문경찰서 경승실장스님(무량종 칠보정사 주지)은 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강영규서장 등 직원 1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불기2544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양동수 법사 초청 강연회



성학 팔공산 용주암 주지는 10일 밤 11시 양동수 법사를 초청해 부처님 가피력의 영험담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KBS '여행을 떠나자' 출연



일여 팔공산 약사암 주지는 14일 오전 6시10분 방영되는 KBS1-TV 프로그램 '언제나 청춘'의 인기코너인 '여행을 떠나자'에 출연한다. 이 코너에서 일여 스님은 약사암에 대해 소개한다.(053)852-9453

불교언론인회 정기총회

신광식 한국불교언론인회장은 17일 12시30분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2000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회칙 개정 및 임원 선출의 건을 논의한다.

금철회 함허사리탑 참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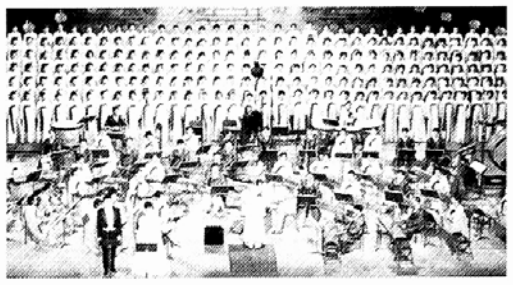
성철선사상연구원 금요일 공부하는 모임인 금철회(회장 최우진)는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4월 28일 망우리 만해선사 묘소와 경기도 포천 현등사, 보조국사와 함허당 득통선사 사리탐(사진)을 잇달아 참배했다. 이날 금철회는 선사들의 유지를 받들어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최혜명 명예기자



한암스님 탄신제·추모비 제막

한암문도회는 1일 월정사 적광전과 상원사 사리탑에서 한암 스님 125주기 탄신재 및 한암 스님과 탄허 스님 추모비 제막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도회장 인허, 운영위원장 현해스님을 비롯한 문도와 종회의원 현응, 마근, 월우 스님등 3백여 명이 참석했다. 두 스님의 추모비는 새로 제작한 것으로 한암스님 추모비문은 98년 일타 스님이 쓴 것이다.



천태종-KBS 공동 봉축음악제 성료

천태종은 3일 KBS홀에서 KBS와 공동으로 봉축음악제를 개최했다. 교육부(부장 도원) 주관으로 열린 이번 음악제는 천태종전통범패보존회의 사물연주, 갈릉·석용스님의 화청, 인간문화재 이애주씨의 승무, 명창 안숙선씨의 관소리, 천태종연합합창단과 KBS국악관현악단의 '법화경찬가' 등의 순으로 진행돼 2천여 청중의 '갈채'를 받았다



연등회·청와대 불자회 봉축법회

새천년민주당연등회와 청와대 불자회는 1일 조계사에서 국민화합과 남북정상회담 성공기원 합동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을 비롯 각 종단 총무원장과 연등회 박상규 회장, 청불회 회장 박준영 공보수석 및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16대 국회의원 당선자, 청와대 직원 등이 참석했다.



부산 불교회관 개관식

부산불교회관은 2일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성오 스님, 안상영 부산시장, 강선태 부산불교신도회장을 비롯한 3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가졌다. 범어사 부산포교원을 겸하게 된 부산불교회관에는 여여선원, 강당, 부산불교대학, 부산불교신도회를 비롯한 신행단체 사무실등이 들어있다.

제29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

꿈과 희망이 샘솟는 어린이불교

모시는 글

반갑습니다.

미래 불교를 위해 정진하고 계시는 지도자 여러분!

제 29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한 김천 직지사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여름불교학교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며 어린이들이 직접 보고, 느끼는 부처님 사상 교육의 바탕 위에 **놀이를 통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준비됩니다.

또한 여름불교학교에 이은 어린이법회 운영과 활용 방안에 대한 제시 및 체험활동을 구성하여 창의적인 어린이법회 교육에 관련된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제 2회 우수 어린이법회 프로그램 공모 및 시상식을 '놀이를 통한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는 어린이법회'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또한 직접 시연을 통하여 지도자들이 함께 배우고, 느끼며 다채로운 어린이법회, 발전적인 법회 형식을 느낄 수 있는 연수회를 준비하오니 미래 불교의 희망인 어린이들을 지도하는 지도자 여러분 많은 동참 바랍니다.

불기 2544년 4월 좋은 날

총재/**천관** 부총재/**혜총, 철오** 회장/**덕진** 상임부회장/**정여**
부회장/**운성, 원혜, 영조, 해관, 심산, 성형, 인성** 감사/**지광, 박창식**

연수회 안내

- **언 제** : 불기 2544년(2000년) **6**월 **3**일(**토**) 오후 5시~**4**일(**일**) 오후 1시
- **어 디 서** : 김천 직지사 **만덕전**
- **참가대상** : 어린이지도자 및 교사, 어린이포교에 관심이 있으신 모든 분
- **동 참 금** : 3만 8천원 (1박 3식, 기념품, 연수회 자료집, 여름불교학교교재, 포스터 등 /미리 **접수시** : 3만 5천원/ 군종병, 도서벽지지도자 2만원)
- **신청방법** : 실명인 관계로 송금 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접수도 가능
- **보내실 곳** : **우체국 601310-0037877** / 예금주 : 대불어
- **신청기간** : 5월 1일(월)~5월 31일(수)
- **준 비 물** : 세면도구, 필기구
- **접수·문의** : 본회 사무국 ☎ (051)**808-4569,4570** (FAX : 808-4571)
  PC천리안 : GO BOSAL(운영자 수신 편지 이용)
  E-Mail : Youngoc@thrunet.com/ZSBOSAL1@chollian.net

- 주최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 주관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강의일정

강 의		주요 연수내용	강 사	비 고
강의 1		노래로 어는 여름불교학교	정유탁	풍경소리
강의 2		여름불교학교의 계획과 운영 - 놀이를 통한 여름불교학교 프로그램 소개 및 계획·운영의 실제	김미옥	옥련유치원 원감
강의 3		명상과 선 수련 - 어린이참선 지도법	정여스님	본회 상임부회장
강의 4		부처님 말씀을 통한 어린이불심 키우기	청안스님	직지사 부주지
부처님 놀이로 세상 여는	5	도구를 이용한 야외놀이세상	박철수	도레미이벤트 대표
	6	전래놀이의 운영과 실제	이상호	전래놀이 연구회
	7	놀이감을 이용한 놀이세상 - 매직풍선	박창주	발룬아티스쿨림 대표·기안원진 출연
	8	어린이법회의 의식과 실제	덕진스님	본회 회장
강의 9		여름불교학교에 임하는 지도자들의 자세	본각스님	불교방송 - 재미의 전화 진행

제2회 우수 어린이법회 프로그램 경진대회 공모안내

우수 어린이법회 프로그램 발굴과 보급·프로그램 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나아가서는 21세기 어린이법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여 어린이법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주 최** : 사단법인 불국토
- **주 관** :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 **참가대상** : 전국 어린이회, 어린이지도자 및 단체
- **응모기한** : 2000년 5월 15일까지 접수
- **응모내용** : '놀이'를 이용한 어린이법회 프로그램- 현 어린이법회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또는 창작프로그램, 미래지향적이면서 앞으로 시행을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 **경진대회 시연 및 시상식** : 연수회 당일 (상장 및 상금 3백만원 수여)
- **기타 참가 안내** : 본회 사무국 동련 5월호/각 사찰 어린이법회 공문

지역문의처 ▪서울·경기 : 02-433-1506 유지선 사무국장 ▪부산 : 051-853-5486 이선경 총무부장 ▪대구·경북 : 016-505-3143 김형중 사무국장 ▪광주 : 011-719-5550 정수보 사무국장 ▪대전 : 016-446-5955 김선형 사무국장 ▪경남 : 0551-242-0108 천명숙 사무국장 ▪제주 : 016-691-4728 김봉현 사무국장

부처님 오신날에 읽는 '인간 석가모니'

'부처님 생애' 알면 불교 보인다

기원전 6세기, 북인도의 왕자 싯다르타는 가족과 부귀영화를 버리고 우주만물의 근원에 대한 의문을 품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고행에 나섰다. 길고 고통스러운 구도행 끝에 증득한 깨달음은 무엇이며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불교를 안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은 바를 안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따라서 불교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석가모니 부처님이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신 뜻과 수행 그리고 깨달음의 내용이 곧 불교의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부처님 일대기를 다룬 책들은 아주 다양하다. 어린이 불자들을 위한 만화에서부터 전생담, 팔상록, 그리고 불소행찬과 같은 불전문학에 이르기까지 폭넓다.

우선 동양은 물론 서양인들의 영혼에까지 '인간 석가'를 각인시킨 책들을 살펴보자. 현암사 〈석가의 생애와 사상〉, 불교시대사 〈부처님 생애〉, 동국대학교 역경원 〈부처님 생애 (상·하)〉, 범우사 〈싯다르타〉, 불광 〈부처님 생애〉, 샨장원 〈석가여래 일대기〉 등이 바로 그런 책이다. 이 책들은 대부분 탄생에서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와 교법을 연대기적으로 그리고 있다.

전생에 선혜 보살이었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열반에 들기까지의 과정을 여덟 가지로 정리한 팔상록(八相錄)을 중심으로 부처님의 생애를 살펴본 책도 적지 않다. 우리출판사 〈붓다〉, 홍법원 〈성중성부처님·팔상록〉 등이 있다.



탄생서 열반까지 팔상록 중심으로 서술방식 다양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았던 당시의 사회상, 여러 종교와 사상계의 움직임,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생활규범까지 언급한 책들도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법정 스님이 번역한 〈불타 석가모니〉, 시공사 〈붓다〉, 한국불교연구원 〈석가〉 등이다.

또 불교시대사와 문학수첩이 내놓은 〈부처님의 전생이야기〉처럼 전생이야기를 수록한 책과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만화 등도 빼놓을 수 없다.

이밖에도 동국대학교에서 펴낸 〈불교학 개론〉 등 불교입문서와 학술서에서도 부처님 일대기를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다만 이들 책들은 대부분 부처님의 전기를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이 책들의 미덕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의미를 불교사상과 교리 등으로 풀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향해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달리고 있는 오늘의 우리에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삶과 사상이 주는 메시지는 무궁무진하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읽는 것은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열쇠며, 부처님을 어떻게 보느냐는 불교를 어떻게 보느냐와 같은 말이다.

따라서 부처님의 생애를 바르게 아는 것은 불자로서의 삶을 공고히 하는 일이자 불교의 정수로 들어가는 첫걸음이다. 김종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이세상은 나의 사랑이며 또한 나다'

참여불교 10주년 기념문집 번역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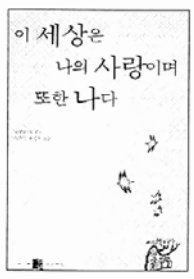
참여불교, 베트남 틱낱한 스님이 주창한 것으로 생활에서 깨달음을 실천함으로써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 주자는 데 목적을 둔 불교 신행의 한 형태다.

참여불교 10주년 기념문집으로 출판된 〈이 세상은 나의 사랑이며 또한 나다 : 원제 'Engaged Buddist Reader'〉(양문)는 60여 권의 참여불교에 관한 책 가운데 정수만을 골라 엮은 것이다. 불교가 선방이나 명상센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자신의 삶 속에서 불교적 관점과 지혜를 펼칠 수 있음을 전하고 있다.

티베트의 영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 미국의 잭 컨 필드(심리치료사), 일본의 가주카이 다나카시(환경운동가) 씨를 비롯 불교계의 스승들과 학자, 저술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이 책의 필자들은 하나같이 일터와 인간관계, 일상생활 속에서 불교가 올바로 실천될 때 진정한 깨달음이 완성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은 참여불교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보편적이고 실용적인 사상과 지혜를 광범위하게 설파하고 있어, 새로운 관점에서 불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동양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어느 때보다 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게 일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이 책은, 자신의 참모습과 행복을 찾는 현대인의 삶에 하나의 이정표다. 값 9천2백원.
김종근 기자



정인스님 '알기쉬운 불교교리'

누구나 불교의 문 노크하세요



기초교리 공부는 불교의 교학적 접근에 있어 선결과제다. 전국적으로 불교교양대학 커리큘럼에서 기초교리강좌를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 이유다. 정인 스님(중앙승가대학 총장권한대행)이 펴낸 〈현대인을 위한 알기 쉬운 불교교리〉(불교시대사)는 입문서로 불교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다.

부처님의 생애, 경전과 선(禪)의 세계, 불상에 대한 이해 등으로 크게 나눈 뒤 독자들의 수준에 맞춰 공부할 수 있도록 한 맞춤형 입문서라는 점이 가장 큰 매력. 불상의 재질과 만드는 법, 그리고 불상 구분법은 자칫 지루하기 쉬운 불교공부를 위한 쉼터 역할을 한다. 불교전문용어와 어구를 해설한 '불교에서 나온 말'과 '알아두면 유익한 불교용어'를 따로 실어 일반인들도 불교공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정인 스님은 "불교를 배우는 사람들이 재미있고 쉽게 이해하면서 튼실한 신앙심을 갖게 하는 것이 출가자로서 또 다른 화두였다"며 "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입문서가 되길 바란다"고 출간 배경을 밝혔다. 값 7천원.
김종근 기자

태국 고승 아짠 문 "타인의 콧구멍으로 숨쉬지 말라"

김열권씨 '위빠싸나 성자…'



"자기 도취에 빠진 수행자는 그냥 비어 있을 뿐인 '공(空)'의 상태를 '열반'으로 오판한다. 이처럼 마음을 단순히 사마티(禪定)인 정신통일에만 집중하는 한 현상의 본질을 깨달을 수 없다."

태국의 고승 프라 아짠 문(1870~1950)은, 삶에서 기쁨을 취하는 이는 결코 깨달을 수 없다고 못박는다. 이어서 그는 다르마(法)에 의지하는 이는 모든 것이 충족되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으므로 결코 타인의 콧구멍으로 숨쉬지 말 것을 강조한다.

아짠 문의 수행과 가르침을 담은 〈위빠싸나 성자 아짠 문〉이 불광에서 나왔다.

아짠 문은 일생을 숲 속에서 1일 1식하며 고행으로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평가되고 있는 위빠사나 성자. 그의 수행은 몸과 현재 의식, 무의식의 정신통일 차원에서 더 나아가 그 실체를 간파하여 욕망과 어리석음을 제거하고 생사까지 해탈하는 것이다.

아짠 문은 이 책에서 소승과 대승을 수행 체험으로 회통하여 지옥과 천국, 그리고 윤회의 세계를 밝힌다. 또한 숲 속에서 하루 한끼 공양을 하면서 잠도 자지 않고, 동물들과 대화를 하는 그의 독특한 수행법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 준다. 그의 목숨을 건 치열한 구도행과 독특한 가르침, 그리고 헌신적인 베풂의 삶은 현대인들에게 수행의 사표가 된다. 값 8천5백원.
김종근 기자

'작은 경전 시리즈'

민족사, 15권중 4권 펴내

민족사(대표 윤재승)가 창사 20주년을 맞아 '작은경전시리즈'를 내놓았다.

이 시리즈는 '불교경전총서'를 1/4로 축소한 것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경전을 읽을 수 있도록 포켓용으로 제작했다. 내용도 기존 '불교경전총서' 그대로다. 이번에 출간된 것은 〈법구경〉, 〈아함경〉, 〈화엄경〉, 〈유마경〉 4권이며, 이 달 중순쯤 〈화엄경〉도 출간된다. 민족사는 계속해 '불교경전총서' 15권을 모두 소책자로 펴낼 계획이다.

윤재승 민족사 대표는 "불교경전을 대중들이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펴냈다"며 "휴대하면서 불법의 진리를 가슴에 담아보는 것도 불심을 다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고 출간의 의의를 설명했다. 각권 값 3천8백원.
김종근 기자

새로나온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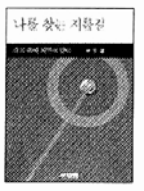
▲반야심경(권영한 지음, 전원문화사)= 가장 짧지만 가장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는 〈반야심경〉은 말 그대로 대승불교의 정화이다. 출간돼 있는 여러 〈반야심경〉 해설서들을 저본으로 하였으며 경의 내용과 관련된 사진을 곁들여 이해를 돕고 있다. 〈목련경〉과 〈부모은중경〉에 대한 해설도 수록했다. 값 1만원.



▲종교가 중얼중얼(애니타 개너리 지음, 윤길순 옮김, 김영사)= 종교의 사전적 의미에서부터 종교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우리는 왜 종교를 가지고 있을까 등 누구나 한번쯤 의문을 가졌을 만한 종교의 일반적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담은 책이다. 세계 주요종교의 연표와 용어해설, 그리고 종교의 미래까지 수록해 종교에 대한 시각도 넓게 해 준다. 값 3천9백원.



▲별난 종교 이야기(UFO를 믿는 사람들 지음, 미래문화사)= 지구촌 곳곳에는 상상도 못한 신들이 존재하는가 하면 그 신을 믿고 따르는 교인들도 부지기수다. 이 가운데 바위의 정령을 믿는 사람도 있고 혐오감의 대명사인 쥐나 뱀을 섬기는 민족도 있다. 심지어는 페스트(흑사병)를 신으로 모시기까지 한다. 이밖에도 섹스교, 자살교, 악마교 등 기상천외한 신앙들도 있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상식과 규범, 그리고 상상을 초월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이다. 값 8천원.



▲나를 찾는 지름길(서주섭 지음, 효림)= 과학의 여러 이론과 옛 성현의 가르침을 접목시켜 '참된 나'를 찾는 길을 정립하고 있는 서주섭 씨가 과학과 종교의 접목을 시도한 책. '과학 속에 피안이 있다'란 부제로 출간된 이 책은, '자연과 창조주' '삶의 실체'를 큰 주제를 정한 뒤 과학과 종교, 인간, 생명, 행복 등으로 나눠 참된 나를 찾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글쓴이는 모든 이의 평화와 행복에 일조를 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값 8천5백원.



▲꽃술은 황금빛 노랑(서원자 지음, 삶과 꿈)= 차(茶)문화의 본고장인 중국 상해, 항주, 의흥, 계림 등을 두 차례 순례하고 쓴 답사기. '중국 차문화를 찾아서'를 부제로 출간된 이 책은, 중국의 차문화와 역사, 그리고 각 지역의 전통차와 행다법 등을 사진과 곁들여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값 8천원.

▲짧은 만남 긴 이별(김한경 지음, 좋은시)= '살아가는 이야기'의 저자 김한경 시인의 세 번째 시집. 부처, 아름다운 것, 덧없음 등 80편의 서정시가 실려 있다. 이창년 시인은 발문에서 "생명의 존귀함이 아침 이슬처럼 영롱하게 빛남을 보는 듯하다"고 평했다. 값 5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선방일기	지 허	여시아문
2	오두막 편지	법 정	이 레
3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일 타	효 림
4	지장신앙 지장기도법	김 현 준	효 림
5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전 재 성	선 재
6	적멸의 즐거움	정 휴	우 리
7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현 각	열 림 원
8	위빠사나 성자 아짠 문	김 열 권	불 광
9	거지성자	전 재 성	선 재
10	김용옥 선생, 그건 아니올시다	변 상 섭	시 공 사

도서 안내:(02)737-0695

신간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김현준 편역
신국판
값 5,000원

기도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취가 달라집니다. 이 책은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예참과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이 책을 펼쳐들고, 각 장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지장보살의 가피 속에서 틀림없이 업장을 소멸하고 영가천도·소원성취·향상된 삶을 이룩할 수 있게 됩니다.
감히 권하옵니다. 이책에 의지하여 기도를 해보시기를!

지장신앙 * 지장기도법

Ⅰ. 지장보살, 어떠한 분인가?
· 대원의 본존
· 무한자비와 파지옥의 지장보살
· 현세의 행복과 지장보살
Ⅱ. 지장기도법
· 생활속의 지장기도
· 영가천도기도법
· 종합적인 지장기도



김현준 지음 / 4×6 판 / 값 3,500원

흔히들지장보살은영가천도의 보살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장신앙 속에는 영가천도뿐만이 아니라 행복과 깨달음, 성불의 비결까지 간직되어 있습니다.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함께 영가천도기도를 비롯하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알기 쉬운 불교서적

관음신앙 · 관음기도법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필독서
4×6 판 / 값 3,500원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쉽고 재미있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자들 대부분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관음의 가피와 기도성취를 원한다면 꼭 이 책을 펼쳐 드십시오.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육바라밀 수행법
보시 · 지계 · 인욕 · 정진 · 선정 · 반야바라밀!
4×6 판 / 값 3,500원
육바라밀 수행법은 고해의 중생을 피안의 세계로 인도하는 큰 배입니다. 이 여섯 가지 바라밀의 정신을 깨달아 실천하면 누구나 행복과 성불을 보장받게 됩니다.
《육바라밀 수행법》 이 한권의 책으로 행복하고 청정한 삶을 이루는 지름길을 만나십시오.

예불을 통한 불보살의 가피!!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신국판 / 값 5,000원
많은 불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예불문을 외우며 절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예불문 속에 담긴 의미를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약 예불문 속에 깃들어 있는 의미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 예불을 올린다면, 참된 예불은 물론 삼보의 가피를 쉽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불을 올리는 불자들이 궁금해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것들, 이 책에 모두 담았습니다.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신국판 / 값 7,000원
절에 오래 다닌 불자들조차도 무심히 흘려보냈던 사찰 곳곳에 간직되어 있는 숨겨진 의미들 …….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찰 초입(初入)의 일주문에서부터 사물(四物), 석등, 탑, 그리고 여러 법당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룬 이 책은 독자들에게 불교예술과 사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입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효림 · 전화 : (02)587-6612 · 팩스 : 02)586-9078

서옹 서암스님 선필전…覺·氣·空 3인전…새천년 전통불화전…

부처님 오신뜻 기리는 문화행사 '야단법석'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시와 공연 등 각종 문화행사들이 불자들을 기다린다. 가족과 함께 가까운 전시장을 찾아 불교문화의 향취를 느껴보자.

전 조계종 종정인 '서옹 서암스님 선필전'이 9일~6월 8일까지 서울 사간동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열린다. 한국불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선객으로 불자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서옹스님(백양사 방장)과 서암스님(전 조계종 종정)이 직접 그린 선서화 40여점이 최초로 일반에 공개된다.(02-733-5322)

불자화가 이창규 이강원 김부견씨는 10일~16일까지 전주 서산갤러리에서 '覺·氣·空 3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이창규 화백은 각(覺)이라는 주제를 하늘과 땅이 나와 더불어 한 뿌리이고, 온 누리는 나와 더불어 한 몸임을 표현해 내고 있다. 이강원 화백은 기(氣)를 작품의 테마로 구도인의 모습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본성을 찾아, 그에 따른 기의 세계를 이미지화하여 작품속에 담아 냈다. 공(空)을 그림의 주제로 삼은 김부견 화백은 봄날 곳곳에 활짝 핀 꽃들에서 부처의 모습을 읽어내고, 부처가 부처 아님을 그림으로 보여준다.(0652-255-1653)

한국불교연구원은 11일까지 롯데백화점 본점 롯데화랑에서 전법수행도량 유마정사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불교미술전시회'를 연다. 한국불교미술인회와 함께 준비한 이번 전시에는 '석가삼존 16나한도' '지장보살도' '만다라' 등과 '동심' '길없는 길' 등 조각작품 등 60여점이 선보인다.(02-3411-6167)

만하불화박물관 건립기금 모금을 위한 '새천년 전통불화전'은 11일까지 대전 갤러리아 타임월드 10층에서 열린다. 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후보 박정자씨의 작품이 전시된다. (0613-333-44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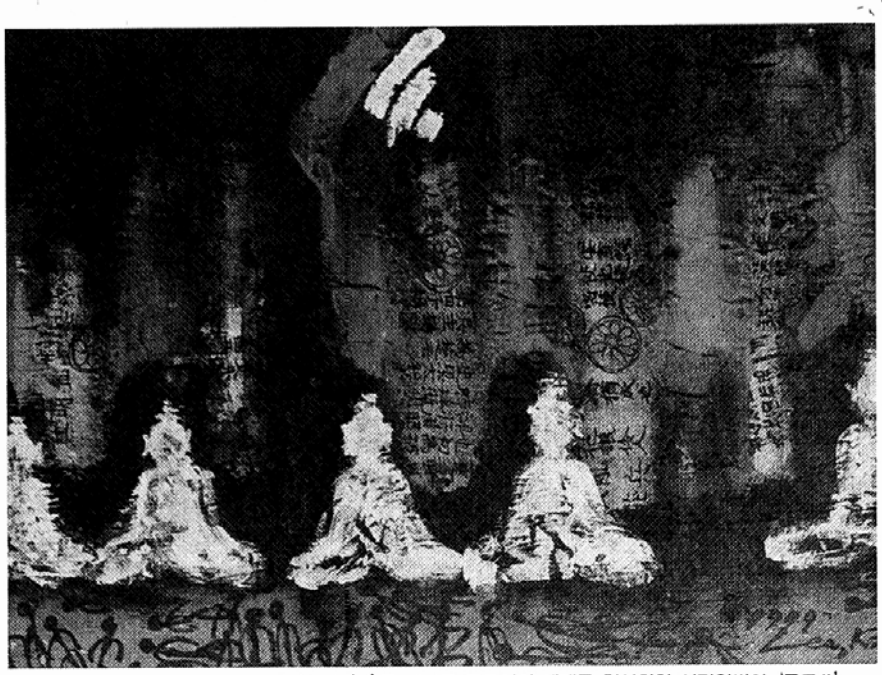
시인이자 서예가인 '외길 김경호 사경전'은 14일까지 동국대학교 문화관 갤러리 동국에서 열린다. 〈화엄경 약찬게〉 〈반야심경〉 등 사경작품 30여점이 전시된다.(02-2260-8752)

조계종 봉축위원회는 11일까지 서울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전통등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회에는 용등, 봉황등, 호랑이등, 수박등, 거북등, 잉어등, 북등, 누각등, 항아리등 등이 선보인다.(02-725-6641)

제18회 한국의 명무명인전이 16일~17일 오후 7시30분 호암아트홀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에는 인간문화재 김천흥씨의 춘앵전, 하와이 불은사 주지 자은스님의 번뇌, 서울예술대학 오은희 교수의 승무를 비롯 살풀이춤, 춘앵전, 도살풀이춤, 진도걸북춤, 태평무 등을 선보인다.(02-585-7318)

이밖에 10일 저녁 8시에는 조계사 경내에서 티벳불교영화 '컵(CUP)' 시사회를(02-720-2725). 11일 오후 7시에는 서울 성북동 길상사에서 길상음악회를 연다.(02-3672-5945)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각(覺)·기(氣)·공(空) 3인전에서 '기'를 테마로 구도인의 세계를 형상화한 이강원씨의 '구도 II'.

'사불회탱' 국내 첫선

국립박물관, 소더비경매 유물 전시

97년 미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71만7500만달러(당시 6억3천만원)에 낙찰된 '사불회탱'. 구매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게 이 경매의 관행이어서, 국내 미술사학자들을 애태우게 한 이 유물이 국내에서 첫선을 보였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일부터 6월 4일까지 지난 12년간 소더비·크리스티 경매 등 국내외로부터 구입해 온 국보·보물급 유물 2천892점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회는, 지금까지 실물로는 공개되지 않았던 신찬일체경원품차록(국보 제245호), 관세음보살 대다라니경(보물 제691호), 예념미타도량참법(보물 제949호) 등이 선보인다. 이외에도 석조지장보살좌상(16세기), 석조보살입상(1~2세기), 소상팔경서첩(15세기) 등이 눈에 띈다.



오종욱 기자

리홍재씨 봉정사서 불교휘호 퍼포먼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산사에서 이색적인 서예 퍼포먼스가 마련된다. 서예가 율산(栗山) 리홍재씨(44 李洪宰, 법명 如然)씨가 11일 오후1시 안동 봉정사 만세루에서 길이1~20m의 한지에 부처 불(佛)자와 파사현정(破邪顯正)등을 써 내려가는 불교 휘호 퍼포먼스를 펼친다.

리씨는 이날 먹을 잔뜩 머금은 1m 크기의 큰붓을 양손으로 잡은 채 봉축 휘호를 써 내려갈 예정인데, 휘호 퍼포먼스는 기력(氣力)과 필력(筆力)이 어떤 경지에 도달하지 않고는 글씨의 중심조차 잡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작업이다.

대구=이윤호 기자

봉은사 불교캐릭터 개발



◇아기부처



◇동자승



◇달마



◇십이지신中 용

봉은사가 새 천년 불교포교의 일환으로 새로운 불교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불교캐릭터를 개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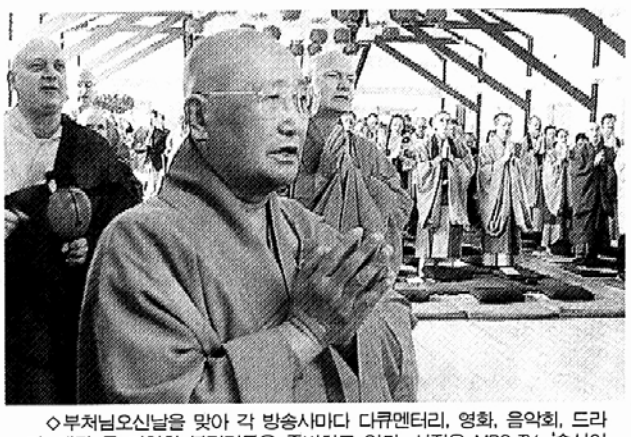
봉은사가 지난해 12월부터 전문 캐릭터 개발업체 (주)EICH와 공동으로 개발한 이번 캐릭터는 모두 4종. 동자승의 순수한 이미지를 입체적으로 표현한 동자승, 부처님의 엄숙한 이미지를 어린 부처의 모습을 통해 친숙한 이미지로 형상화한 아기부처, 달마스님의 모습을 스케치한 달마, 십이지신을 현대적이고 귀여운 느낌으로 표현한 십이지신 등이다.

현재 이들 캐릭터를 응용한 머그컵, 티셔츠, 엽서, 인형, 스티커 등 10종의 캐릭터 상품도 제작해 판매할 예정이다.

봉은사 박금직 기획과장은 "현재 금강역사, 사천왕상 등의 캐릭터를 개발 중이며, 실생활용품을 위주로한 다양한 캐릭터 상품 개발로 일반에게도 다가갈 것"이라면서 "불교포교를 극대화하고, 상품으로서의 가치도 살려내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봉은사는 이번 봉은 캐릭터를 부처님 오신날 행사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특히 4일~11일까지 경내에서 제1회 봉은 불교 캐릭터 축제를 연다. 이 축제에는 20여 불교용품 관련업체도 참가해 각종 캐릭터불교상품을 선보이며, 어린이 불자를 위한 퀴즈대회, 중국 용 퍼포먼스 등의 이벤트도 펼쳐진다.(02-517-0149)

이은자 기자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각 방송사마다 다큐멘터리, 영화, 음악회, 드라마, 대담 등 다양한 볼거리들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MBC-TV '숭산이 동쪽으로 간 까닭은'.

방송 채널마다 봉축프로그램 다채

이번 봉축 특집에는 불교 관련 다큐멘터리가 풍성하다. 하지만 작년에 방송됐던 프로그램들이 재편성되는 등 각 방송국들의 봉축 분위기가 예년만 못하다는 게 방송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런 아쉬움 가운데서도 눈길을 끄는 것은 MBC-TV의 '숭산이 동쪽으로 간까닭은(가제)', EBS-TV의 '인도로 간 한국불교', KBS-1TV의 '다섯모녀의 출가' 등이다.

11일 MBC-TV에서 방송되는 '숭산이 동쪽으로…'(오전9시~10시)는 숭산스님(화계사 조실)의 가르침에 감화돼 출가한 외국인 수행자들의 모습을 통해 한국 선불교가 서구에 미친 영향을 되새겨 보는 프로다. 지난해 7월부터 기획된 이 프로에서는 밀레니엄 축제의 들뜬 분위기속에서도 수행 정진에 여념이 없는 미국 보스톤의 '국제 선센터'와 모하비 사막에 불사중인 '태고사'의 모습 등이 생생히 소개된다. 같은날 EBS-TV에서 방영되는 '인도로…'(밤10시~10시40분)는 인도 수자타 지역에서 천민들을 위해 문을 연 '수자타 아카데미'의 학교 생활을 보여준다.

KBS-1TV도 '다섯모녀의 출가'(밤12시~12시50분)를 특집 편성했다. 이 프로는 울산 청소사로 출가한 어머니 연담스님을 비롯해, 전남 담양사에서 수행 생활을 하며 다섯 모녀의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는 법정스님 등 다섯모녀의 출가 사연을 조명했다.

김주일 기자

부처님 오신날(11일) 볼만한 방송프로

방송사	시간	프로그램	내 용
불교방송	1410	'정정-퀴즈열전'	외국의 부처님오신날 풍습을 소개하고 퀴즈문제를 출제해 풀어본다
	1505	창작음악극 '잔감'	진감선사의 일대기를 읜판 소리굿화한 불교대장극
	1710	라디오공청회	불교인권 운동의 현주소를 점검해 보는 시간
	1815	특집집담 '생태적 삶, 새로운 인간'	법륜스님이 출연해 불교계에서 제시하는 생태적 기지관들을 이야기 한다
	1925	생방송 '봉축 연등으로 밝히고'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도시의 시절을 연결해 생방송으로 현장의 모습을 전달해 준다
KBS-1TV	1250	연등즉석 특회방송	7일 실시된 연등즉석 특화 방송
	1500	부처님오신날특별연주회	불교합창단과 안숙선 명창 등이 KBS국악관현악단과 연주한다
	2300	특집다큐 '달마의 짐께하는 태기정'	한국 선불교의 역사를 조명했다
	2330	특집 르포 '현장르포 제3지대-사절음식'	사절음식이 전대인들에게 왜 인기를 얻고 있는지를 르포 형식으로 보여준다
	2400	특집다큐 '다섯모녀의 출가'	다섯모녀의 출가사연을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했다
KBS-2TV	1500	특집인화 '원효대사'	원효대사의 일대기를 애니메이션으로 그렸다
	1530	양코르다큐 '다림살라를 기다'	달라이라마가 있는 티벳의 다림 살라를 찾아간다
MBC-TV	0900	'숭산이 동쪽으로 간 까닭은'	외국에 선불교를 전파한 숭산스님 조명
대구MBC	1930	특집다큐 '행동의 나무, 의상대사'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을 찾아 그의 업적과 발자취 소개
부산MBC	1100	특집대담 '범어사 승가대학 학인스님'	범어사승가대학 강주 덕민 스님이 부처님오신날의 의미와 오늘을 사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 한다
SBS-TV	0900	특집다큐 '혜조와 달라이라마'	실크로드의 길을 따라가며 '황오천축국전을 찾아서' 혜조스님의 발자취를 소개 한다
EBS-TV	2200	'인도로 간 한국불교'	인도 '수자타 아카데미'의 생활모습 소개
Q채널	1500	특집다큐 '역사속에 피어나는 연꽃'	한국에서 건너가 300년동안 역사로에서 포교하고 있는 심우스님의 활동을 조명
	1700	특집다큐 '만파대장정'	실크로드를 따라가며 구법의 '황오천축국전을 찾아서' 길을 걸었던 혜조스님의 발 자취를 조명
이리랑TV	1220	'부디의 땅'	부처님의 8대성지를 소개한 기행다큐

단 한 번 듣는 것만으로도 해탈에 이르는 가르침 !!!

티벳 '사자(死者)의 서(書)' 오디오 북 특별 할인 판매

행사 기간 : 2000년 5월 31일까지 (주문 판매에 한합니다)

이 오디오 북은, 티벳 '사자의 서'를 쉽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배경 음악과 함께, 이해하기 쉬운 현대적인 언어로 녹음되어 있다.

단순히 듣는, 이 명상법은 죽음의 과정과 죽음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갖가지 현상들을 미리 들려 줌으로써, 죽음의 상태에서 깨달음에 이르도록 도와 주며, 올바른 자궁을 선택하여 환생하는 방법까지 알려 주고 있다.

'오쇼 삶과 죽음의 과정을 위한 학교'의 비트만(Veetman)에 의해 만들어졌고, 전 세계 6개 국어로 번역 출간되어 있다.

배경 음악 : 친마야(Chinmaya) / 번역 : 최항식 / 목소리 : 장두석



바르도

▶ CD(3장) : 정가 50,000원 → 30,000원

▶ TAPE(1시간 30분 테잎 2개) : 정가 28,000원 → 18,000원

'바르도에 대한 오쇼의 강의' 테잎과 함께 들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 테잎에서 오쇼는 바르도의 중요성, 바르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죽음의 순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바르도 상태에서 깨어 있을 수 있다면 죽음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죽음은 꿈의 끝이다." -오쇼 -

90분, 5,000원



도서출판 황금꽃 : 전화 02)711-4227,8 / 팩스 02)711-4229

"불교 허브 사이트가 성공 열쇠"

'사이버 포교'를 내세우며 97년부터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운영하고 있는 종단과 사찰 그리고 주요 단체들이 예산 부족으로, '포교'를 위한 새로운 콘텐츠(가공된 정보) 개발은 고사하고 현 상태를 유지하기에도 힘들어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계 인터넷 전문가들이 "예산 대부분을 장비 구입에 사용하는 것은, 수익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정보화의 고질적인 문제"라며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종단·사찰·단체를 뛰어넘는 범 불교적 '독립법인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교계 정보화 과제와 전망

예산·인력 부족 정보화 '소걸음'

전략적 제휴·e-비즈니스 돌파구

조계종의 경우 올해 정보화 관련 예산으로 5억원 가량을 책정했지만, 정작 콘텐츠 개발보다는 컴퓨터 등 전산 장비 교체에 우선 사용할 방침이다. 오래된 컴퓨터나 주변 기기로는 현재 수준의 종무 행정과 정보 서비스를 계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제안하고 있는 독립법인체는, 현재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종단·사찰·단체·불자들이 전략적 제휴로 설립하는 인터넷 벤처로, 이 곳에서 '불교계 야후(yahoo)'를 표방하는 거대 사이트(이하 허브 사이트)를 만들어 e-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사이버 시장을 형성한다면, 불교 정보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따라서 불교정보화 대계(大計)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e-비즈니스는 인터넷 쇼핑몰과 같이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를 말하는데, 사이트 방문자 수가 많을수록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적잖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전략적 제휴'와 '허브 사이트'는 현 정보통신업계에서 e-비즈니스의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인데, '달마넷' '부다피아' '붓다랜드' '불교방송' 등 교계 주요 사이트의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하면 정보의 집중력뿐만 아니라 교계 안팎에서의 공신력까지도 얻을 수 있어, 이 곳을 방문하는 네티즌의 수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달마넷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이찬영(이현시스템 사장) 씨는 "불교정보 자체로는 수익 창출이 어렵지만, 이 정보를 찾는 네티즌을 대상으로 e-비즈니스를 한다면 그것을 기대해 봄직하다"며 "이를 위해 대형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정보통신업계와 같이 교계도 허브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는 독립법인체 설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설립한 인터넷 벤처 '솔로몬 아이티'의 경우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함께 기독교계 첫 허브 사이트 '미션랜드'를 개설할 예정이다. 6월 초 오픈하는 이 사이트는 기존의 기독교 사이트를 한 곳에 모으는 것은 물론 기독교 특성에 맞는 정보 분류 체계와 검색 엔진을 제공해 사용자의 편의를 돕겠다는 전략을 세워 놓고 있다.

솔로몬 아이티 도흥국 기획실장은 "정보의 집중화와 사이트의 대형화를 실현한 미션랜드는 1백만명 가량의 네티즌들이 방문할 것으로 추정돼, 기독교 포교의 교두보, 정보화의 노다지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94년부터 조계종이 종무 전산화 및 불교 정보화에 투자한 금액은 대략 15억원. 지난해 종회에서 한 스님이 "지금까지 적잖은 돈을 투자해 왔는데, 이제 환원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말해야 하는 교계 정보화 현실에서, 기독교계 벤처 '솔로몬 아이티'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불교와 복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개설·운영해 온 자승 스님(과천 연주암 주지)이 지난 4월 '인투사이버닷컴(intocyber.com)'이라는 인터넷 벤처를 창업한 것도 정보화에 따르는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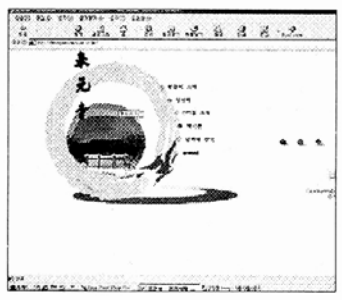
따라서 교계에서는 부족한 예산으로 현상 유지에 급급한 정보화의 일보전진을 위해, 인터넷 전문가들이 제안한 '독립법인체' 설립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하나의 사이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개발·데이터 관리·사이트 운영 등을 맡은 최소 3명의 전문 인력이 필요한 데, 여기에는 개발비를 제외한 순수 경상비만 1억 5천만원에서 2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교계 정서로는 지속적인 투자가 어렵다는 말이다. 그러나 독립법인체를 설립하는 여정 역시 그리 순탄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주요 종단이나 단체들이 권위를 내세우고 또 정보 공개를 꺼리는 교계 특유의 정서를 먼저 극복해야 하다는 게 인터넷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위로부터 부다피아, 고려대장경 연구소, 불교정보센터, 불교학당, 몽원사의 홈페이지 초기화면.

불교사이트

야후 191·네이버 213개 등록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 속에 불교사이트는 몇 개나 될까? 검색엔진에 등록되어 있는 사이트 수를 통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수를 짐작할 수 있다.

현재 인터넷 검색사이트인 야후코리아에 주제별 검색을 해 보면 불교 191개, 통일교를 포함한 개신교 1926개, 천주교 165개의 웹사이트가 등록되어 있다. 검색엔진 네이버는 불교 213개, 개신교 2323개, 천주교 154개가 등록되어 있고 검색엔진 심마니도 불교 261개, 개신교 2892개, 천주교 338개가 등록되어 있다. 따라서 불교는 평균 한 검색엔진에 230개 정도로 개신교가 평균 2380여개 등록되어 있는 것에 비해 10분의 1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개인 홈페이지의 경우 종교관련 홈페이지로 등록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차이는 엄청나다.

분야별로 세분화 해보면, 야후코리아의 경우 교리 13개, 각 불교 종파 51개, 사찰 13개, 기관·단체 50개, 불교예술 15개, 뉴스·미디어 6개 등으로 기독교의 성경 50개, 종파 1251개, 기관·단체 414개, 뉴스·미디어 51개, 교회 78개, 사람들 46개 등에 비해 종파, 기관·단체, 사찰 수는 매우 적다. 이중 문화 관련 홈페이지는 타종교에 비해 불화, 문화재, 관광안내 등으로 불교사이트가 다양하다. 게다가 불교사이트는 아니지만 개인이나 단체에서 불교문화를 소개하고 있어 인터넷이 불교를 알리는 포교매체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도메인 등록도 타종교에 비해 열세다.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에 의하면, 불교종단 25개 가운데 도메인이 등록되어 있는 종단은 3개에 불과하고 6곳은 다른 단체나 개인이 이미 등록했다. 또 교구본사 25곳 역시 자체 도메인을 소유하고 있는 곳은 5군데로 그외 단체가 5군데를 등록했다. 연구소는 미등록된 36개의 도메인을 등록할 예정이다.

방문자수가 가장 많은 사이트는 부다피아(buddhapia.co.kr)로 이미 17만명이 넘었고, 5만5천명 가량의 불교정보센터(budinfo.or.kr), 불교 포탈을 지향하는 달마넷(dharmanet.net) 등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포탈사이트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쉽다.

불교정보화 어디까지 왔나

▨사이트 및 홈페이지 미비

△사이트의 수적 열세

유명 검색엔진에 등록된 전세계의 종교관련 사이트 수는 3만여개. 이중 불교관련 사이트는 700여개에 불과하지만 기독교 사이트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유명 검색엔진에 등록된 불교 사이트는 230여개. 가톨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개신교에 비해서는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조계종의 경우 데이콤과 협력해 달마넷을 98년 출범시켰지만, 후발주자인 가톨릭이 교단차원에서 정보화에 나서고 있어 조만간 숫적인 면에서도 추월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잇따른 종단사태와 이로 인한 불자·시민들의 외면, 종단 지원금의 축소 등으로 정보화에 대한 열기와 관심을 농친 결과이다.

△빈약한 콘텐츠

불교 홈페이지의 콘텐츠도 네티즌들을 붙잡아 두기에는 미약하다. 기초교리 안내, 사찰 및 성보 소개 등 내용도 천편일률적이다. 불교 문화재, 미술, 음악, 불서, 선무도, 불교학술, 복지 등 전문성을 살릴 무궁무진한 소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사이트 수 개신교의 13%
콘텐츠 낡고 내용 빈약
스님 정보마인드 필요

불교문화의 장점을 활용, 전통과 현대를 잇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

기초적인 자료만 올려놓고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아 방문자들이 다시 찾지 않는 홈페이지도 상당수다. 현대불교신문을 비롯한 교계신문들이 제공하는 일·주간 불교뉴스와 불교인터넷TV 등이 제공하는 동영상 자료 등이 그나마 체면치레를 하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들은 지루하거나 내용물의 변화가 없을 경우 두 번 다시 방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서 그들의 신뢰감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메인확보·해킹방지 비상

불교 관련 도메인을 확보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종단이나 교계단체가 도메인 확보작업을 소홀히 한 틈을 타 개인이나 일반단체들이 불교적인 내용을 갖는 도메인을 선점해 도메인을 되찾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다. 특히 타종교 단체 및 개인들이 '원효' '보문' '조동' '마곡' '지장사' 등 불교 고유명사를 도메인으로 소유하고 있어 불교비방 등 악의적인 사용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날로 늘어가는 타종교인에 의한 해킹도 사이버 훼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정보화 마인드의 제고

△정보 제공자 보다 사용자 중심

한 개인과 단체, 사찰, 종단에 머물지 않고 불교 전체의 정보 공유를 위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각 사이트마다 불교포럼을 구성해 분야별로 주제를 정해 국경과 언어에 구애됨이 없이 불교 현안과 불교학 연구, 불교사회운동에 대한 토론을 나눌 수 있도록 인터넷 인드 망의 특성을 활용해야 한다. 사이트간 교류 및 공동작업을 활성화하는 분위 도 제고돼야 한다.

특히 이제까지의 정보제공자 중심의 사고에서 사용자 즉, 불자 또는 일반인을 위한 쌍방향의 정보교환 서비스를 지향해야 한다.

△스님들의 인식 전환

전산화교육에 스님들의 참여가 저조해 취소되는 사례가 더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되며, 불교 정보화에 대한 맹목적인 거부감을 일소시킬 수 있는 홍보작업도 필요하다. 스님들이 정보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야만 종단 차원의 정보화 예산 확보와 이를 통한 인적 물적 투자가 확대될 수 있다. 조계종 달마넷의 부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스님들의 협조 없이 불교 정보화는 어렵다.

▨사이버 포교 방안 수립

△사찰 홈페이지 활성화

현재 400여개의 사찰 및 포교당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홍보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신도관리 및 교육·포교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 활용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신행 상담과 고승 설법 등 불자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고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콘텐츠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불자들이 자주 찾기 어려운 산사는 등산객과 불자들이 모두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도심포교당은 일반인을 위한 불교교양강좌를 소개하고 다양한 사찰 문화 강좌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홍보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사이버 불교대학 개설

지난 3월13일 '평생교육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되어 사이버대학 설립·운영이 법률적으로 뒷받침 된 만큼 학점과 학위를 수여하는 정식교육기관으로서의 사이버 불교대학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 현재 80여개의 불교교양대학 중 사이버 불교대학 설립을 준비중인 곳은 한국불교선학연구원 한국불교연구원 동산불교대학 등 8곳. 사이버 불교대학의 설립은 불교교육의 저변 확대를 통한 불교 대중화와 불자들의 올바른 신행 형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종단 정보화 대책

종단 차원에서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 인터넷을 통한 본·말사 네트워크 구성, 종무행정 전산화, 인터넷 상에서의 불자공동체 구현(동호회 공간 및 무료 이 메일 주소 보급) 등을 추진해야 한다. 또 포교담당 부서는 계층별 지역별 연령별 직장·직능별로 포교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 인터넷 이용인구 1000만명 중 90%가 10~30대의 젊은 층인 만큼 '1 사찰 1 홈페이지 갖기 운동'과 정보화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인터넷이 실질적인 '제3의 포교매체'가 될 수 있게끔 제도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티벳 解脫의 書

'이몸 이대로' 해탈에 이른다!

보는 것만으로도, 지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다는 티벳 최고의 경전!

1200년 전 티벳에 불교를 전한 위대한 스승
파드마삼바바의 〈요약 전기〉, 그가 가르친
〈마음 알기 요가〉, 또 다른 스승 파담파 상게가 남긴
〈유언적 가르침〉으로 구성된 이 경전은,
당신에게 '이몸 이대로' 해탈하는 법을 전해준다.

이상한 일이다. ≪티벳 해탈의 서≫를 읽고 있으면 문득 주위가 밝아지는 느낌이다. 갑자기 해가 하나 떠 방 안을 환히 비추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 빛은 외부에서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비롯된 방광(放光)임이 분명하다. 칼 융은 이 책에서 '마음'을 '에너지의 변압기'라고 아주 적확한 표현을 하였다.

— 정찬주(소설가)

이 책은, 새벽 빛에 눈을 뜨고 일어난 사람들, 그리하여 지혜를 열망하는 사람들, 구도 여행에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지식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쓰여졌다.

— 에반스 웬츠



◀신간

정신세계사
전화 733-3135/팩스 739-8791/인터넷 홈페이지 www.mindvision.org
주소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171번지 원서빌딩/책방 정신세계 광화문점(02)737-8115, 대구점(053)943-4824,
원주점(0371)742-7540, 대전점(042)489-9390, 부산점(051)294-8545, 안양점(0343)466-2208

파드마삼바바 지음/에반스 웬츠 편집/칼 융 해설/유기천 옮김
양장본/432면/15,000원/서점에 있습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해 주십시오.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티벳 死者의 書】

류시화 옮김
양장본/525면/15,000원/서점에 있습니다

죽음을 알아야 삶이 보인다!

죽음의 순간에 단 한 번 듣는 것만으로도
영원한 해탈에 이른다는 티벳 최고의 경전!

사후세계 — 영혼의 행로 49일을 밝혀주는 천년의 경전.
삶과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환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영원한 대자유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가? 삶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을 불러일으키는 책!



칼 융이 가장 차원 높은 정신의 과학이라 격찬한
죽음으로 삶을 가르친 궁극의 책, 명상의 기본서!

경전 전문에 풍부한 주해를 달고, 칼 융의 심리학적 해설을 비롯한 상세한 해제를 수록하여 원전의 진의를 완벽히 드러낸 국내 최초의 완역본 — 류시화의 우리말 번역으로 읽는 정신세계사의 ≪티벳 해탈의 서≫.

"… 이 책은 언제까지나 내 손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이 책에서 새로운 생각과 발견을 위한 많은 영감을 얻었을 뿐 아니라, 수많은 근본적인 통찰력을 얻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 칼 융

정신세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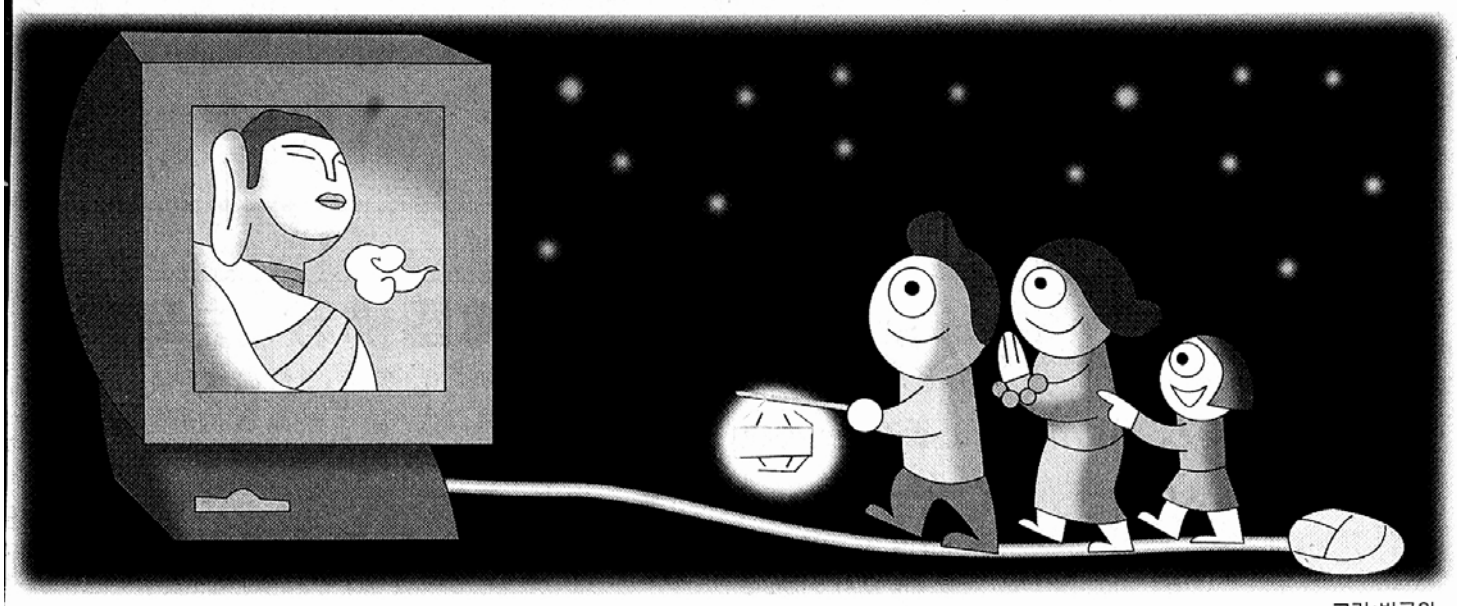


그림:박구원

인터넷 바다서 부처 만난다

사이버 세계에서 부처님을 만난다고? 1년전부터 인터넷을 통해 신행활동을 하고 있는 유인영씨(36, 보현심)의 하루를 따라가 봤다.

남편의 출근과 중1, 중3인 두 딸아이의 등교 뒷바라지를 끝낸 뒤 설거지를 재빠르게 해치운 유인영씨는 오늘은 절에 가는 대신 딸 아이 방 컴퓨터 앞에 앉았다. 연세대 사이버 교육지원센터의 '동양사상과 선'이라는 사이버 강의를 듣기 위해서다.

유씨는 1년전만해도 평범한 불자였다. 집안 대사가 없는 날이면 집 근처 문수사에 가서 혼자 기도하고, 때론 절일을 돕기도 하는 보통 보살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서대문구청 문화센터에서 인터넷을 배우고부터는 사이버 공간을 통해 신행활동을 하는 사이버 불자가 됐다. 사실 '너무 자주 절에 가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드러내던 남편을 생각하면 격세지간 배짱 편한 일이 아니다.

유씨는 불교의 넷(net)세상에 푹 빠져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이긴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큰 스님을 친견할 수 있고, 전국 각 사찰을 돌러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글로 쉽게 풀이된 경전을 보면서 공부도 하고, 매일

사이버 불자 유인영씨의 하루

사이버 불교대학서 공부도

매일의 불교계 뉴스도 남들보다 빠르게 알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선불교 강의를 만족스럽게 들은 유씨는 내친 김에 가정의 달 5월에 남편과 아이들에게 들려 줄 부처님 말씀을 찾아보기로 했다. 테마는 가족. 검색엔진을 통해 불교사이트 '관음법문'을 찾았다. 행복으로 길, 부모공경 등 가족의 소중함과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방법에 대한 부처님 말씀과 유명 법사의 법문이 실려 있었다. 인터넷을 '정보의 바다'라고 할만큼 없는 정보가 없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클릭 몇번으로 점심도 해결했다. 공양 뒤에는 배부른 나른함도 쫓고 이틀 뒤로 다가온 어버이날에 시부모님과 친정어머니께 드릴 선물도 살겸해서 쇼핑을 할 작정이다. 동호회만들기 채팅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는 프리챌에서 채팅으로 만난 사천왕님으로부터 쇼핑몰 몇 개를 소개받아 놓았다. 쇼핑몰 이곳저곳을 살펴 보았지만 선뜻 마음에 내키는 것이 없는 유씨는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마하몰에서 108 염주 3개를 사 독실한 불자이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로 했다.

불과 4~5시간 만에 사이버대학에서 불교공부를 하고, 큰스님 법문도 들으면서 신행활동은 물론 집안 일도 본 유씨는 내일은 사찰 홈페이지를 통해 알게된 조계사 큰스님 초청법회에 참석하러 직접 사찰을 찾을 계획이다. 대불련 출신인 유씨는 문수사 정기법회와 길상사 시민선방에서 참선 수행하는 것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신행하는 수행의 모자람을 채운다. 불교는 직접적인 종교적 신행을 통해 깨달음의 세계에 다가가는 '몸'의 종교이고, 사찰이라는 구심점은 불교라는 공동체를 유지해 주는 울타리가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유씨는 '선무도' 사이트에서 익힌 선체조를 따라하면서 피로를 푸는 것으로 사이버 불국토 유영을 마무리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사찰 홈페이지

사이버 사찰 60곳…법문 찬불가 서비스

"사이버 템플(Temple)로 오세요."

국내 인터넷 인구 1천만명. 불과 몇 년 새 우리 삶 깊숙히 들어온 인터넷은 신행생활에도 조용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각 사찰에서 사이버 공간에 개설한 홈페이지를 통해 법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큰스님 육성이 담긴 법문을 듣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야후나 심마니, 라이코스 등 국내 주요 검색엔진을 통해 확인된 '사이버 사찰'은 줄잡아 60여 개에 이른다. 조계종이 40여 곳으로 가장 많지만,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각 종단에서도 다투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다.

이들 홈페이지는 사찰 소개와 역사는 물론 사찰 가상 체험, 성보문화재, 법회법문,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자신의 고민이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신자들을 위해 비공개 상담실을 운영하기도 한다. 초심자를 위한 인터넷불교학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늘고 있다. 사찰 예절은 물론 불교의 역사, 기본 교리, 의식 등 궁금점을 클릭 한번으로 해결한다. 이밖에 초발심사경문, 육조단경, 법요집을 내려받기로 공부하고, 불교음악을 직접 들으며 배울 수도 있다.

하지만 어려움도 있다. 조계종에서 운영하는 달마넷에 등록된 사찰 홈페이지 수는 357개. 국내 검색엔진에 등록된 60여 곳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일단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지속적인 관리가 소홀한 곳이 많다는 얘기다. 실제로 사찰소개 같은 기본적인 콘텐츠 외에 참여공간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곳도 많다. 제때 업그레이드가 안돼 두달전 법회안내가 게시판에 버젓이 올라있는 곳도 눈에 띈다. 신행생활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홈페이지 관리와 함께 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 볼만한 사찰 사이트

- ▶납골당 안내-갈월사(galwolsa.bz.co.kr), 장안사(//www.jangansa.or.kr), 수도사(user.chollian.net/~sudosa1)
- ▶불국사(www.bulguksa.or.kr)-사찰 가상체험
- ▶보은사(www.boeunsa.or.kr)-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 ▶범어사(myhome.sinbiro.com/~cashbank)-과거, 현재, 미래 테마별 정리
- ▶보문사(myhome.shinbiro.com/~bomun/home.htm)-찬불가배우기
- ▶봉원사(www.bongwontemple.or.kr)-무형문화재 50호 영산재 소개
- ▶성보박물관-수덕사(www.sudoksa.com), 통도사(www.tongdosa.or.kr), 직지사(www.chikchisa.or.kr)
- ▶오어사(www.oosa.or.kr)-포항의 볼거리·먹거리
- ▶한마음선원(www.hanmaum.org)-미디어법당, 인터넷 방송
- ▶해운정사(www.seon.or.kr)-한국의 선사와 참선, 법맥
- ▶정토법당(www.gbs.or.kr)-인터넷불교학교
- ▶축서사(www.chooksersa.org)-비공개 상담실, 사찰 둘러보기

부처님 가르침은 인터넷 시대의 열매

전문가 의견



이종철
〈한국정신문화원 교수〉

과학과 불교의 '사이(間)'를 본다. 끊임없이 경험적 지식을 축적해가며, 그 대상 영역을 확장해 가는, 세계의 실상에 한 걸음이라도 다가서려는 진리 추구의 열정. 그렇다고 해서 확인된 경험자료 이상의 것을 강변하지는 않는 정직성. 이 점에서 과학과 불교의 정신은 같다. 하지만 생(生)과 생을 넘나드는 광활함, 일상 경험만 가지고는 모자라 선정체험까지도 경험 영역 안에 감싸안는 실험성. 이 점에 과학만으로는 아직 다 설명할 수 없는 불교의 세계가 있다.

분석가들은 한결같이 현대를 '지식정보사회'로 규정한다. 문화적 자존심이 높은 유럽인만이 영어제국주의에 맞서 애써 외면하고 있을 뿐, 현대인은 대부분 정보의 바다에서 인터넷 서핑을 즐기며 정보사냥에 나선다. 지금 당장은 변두리에서 서성대던 사람들도 곧 합류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주변 상황은 번하고 있다. 그것도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말이다.

이제 '인터넷(inter-net)'은 지구적 규모의 새로운 문화복합체를 꾀하고 있다. 불교 쪽에서도 이 시대에 나름의 목소리를 키우고 이 시대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인터넷 시대의 본질 규명, 이에 따른 관계정립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

여실지견(如實知見)이 불교가 추구하는 길인 한, 과학적 지식의 확충 및 심화는 불교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다면 유용한 정보, 과학적 지식의 공유를 모토로 삼는 인터넷 시대의 도래는 환영할 일이지 외면할 일은 아니다. 이 정보의 대해에 불교의 지식을 띄워보면 어떨까? 하여 과학적 지식과 불교적 지식이 자연스럽게 어울려져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든다면 얼마나 좋을까?

거창하게 불국토 건설 구호만 외칠 일이 아니다. 그 보다는 실질적인 초석 하나 다지는 일이 더 중요하다. 전세계 불교도 또는 불교 동호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그물처럼 서로 연결되고 있다. 불교 자료는 이미 인터넷상에 산적해 있다. 빨리 대장경, 티벳어 대장경, 한역 대장경, 산스크리트어 문헌, 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손에 넣을 수 있다. 이렇듯 불교학자들 사이에 세계적 규모의 정보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온라인 불교저널도 나오는 형국이니 우리는 멀지 않은 장래에 고도화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고급정보도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과학적 지식과 불교적 지혜를 구분한다. 과학적 지식이 생(生)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어들지 않는 한, 과학적 지식은 불교적 지혜를 얻기 위한 도정으로서만 그 존재 의의가 있다. 정보의 대해에는 함정이 많다. 있으나마나 한 정보가 득실댈 뿐만 아니라 거짓 정보가 뒤섞여 있기도 하다. 이렇다 보니 불교에 기초적인 바탕이 없는 사람은 불교에 관한 불필요한 정보를 버리지 못한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무수한 자료들을 식별하고 가공하여 새로운 불교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헌학적, 인문학적 기본 소양을 기르는 일이다. 우리가 이와 같은 능력을 갖출 때 비로소 '다언어불교용례사전'이니, '통합대장경'이니, '불교문화지도'니 하는 '불법의 이정표'를 정보의 대해에 띄울 수 있을 것이다.

현대 과학이 이루어낸 온갖 지식이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 모여든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세속제(世俗諦)의 집결지이다. 이 세속제가 길을 잃지 않고 자내증(自內證)의 세계인 진제(眞諦)로 향하도록 불교의 지식을 곳곳에 이정표로 세워두면 좋지 않을까? 과학적 지식이 인터넷 시대를 꽃피웠다면, 그 꽃이 지향하는 열매는 궁극적 진리의 세계,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대법회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는 신축개관 1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과 함께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대법회**를 개최합니다.
신라 대국통(大國統)이자 **통도사 창건주이신 자장율사께서 중국 당나라에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를 1,400여 년만에 처음으로 친견**할 수 있는 기회이자 금생(今生)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처음으로 공개되는 경주 감은사탑 사리구를 비롯한 **전국 50여 기의 불탑에서 출현한 국보·보물 사리장엄구들이 함께 공개**되오니 모든 불자님들은 동참하시어 업장소멸과 구경성불의 선근을 닦으시기 바랍니다.



1,400여 년 전 자장율사께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

영축총림통도사주지 薪虛
통도사성보박물관장 梵河 합장

◆ 법회일정안내 ◆

사리 이운식
· 일 시 : 2000년 5월 27일 12시 (관음재일)
· 장 소 : 통도사 부도전 및 성보박물관 입구

사리 친견법회
· 일 시 : 2000년 6월 2일(5월 초하루)부터 2000년 7월 30일까지
· 장 소 : 통도사성보박물관 중앙홀

법회안내
· 박물관 / 전화 0523) 382-1001 팩스 0523) 384-0030
· 종무소 / 전화 0523) 382-7182

※사리 친견은 매일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佛紀 2544年 (庚辰年)
부처님 오신날

發願已歸命禮三寶 새 천년 불국토

佛紀 2544年 (庚辰年)
부처님 오신날

大韓佛教天台宗

宗正 金道勇 大禪師

總務院

總務院長 田雲德

總務部長 朴德水
教務部長 邊春光
教育部長 金道圓
財務部長 南宮道載
社會部長 李門德
糾正部長 趙珍德
宗正司書室長 朴法傳

宗議會

宗會議長 尹德山

副議長 金國星
副議長 裵斗出

監査院

監査院長 朱正山

監査委員 李法山

參議院

參議院長 朴炯喆

中央信徒會長 金裕赫
宗典譯經院長 李昌燮
宗典研究院長 金煐泰
金剛佛教大學長 李載昌
救仁寺專門講院 金智福

■ 忠北 丹陽郡 永春面 栢子里 132-1
☎(0444)423-7100~8
FAX(0444)420-7399

公益法人 大韓佛教華嚴宗

종정권한대행
정 희 수 (유봉)

대본산 약 사 사
주 지 화 응
부주지 대 휴

재단법인 화엄승가장학재단
공익법인 대한불교화엄종장학회

이사장 정 희 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산21
TEL : 032)422-2066~7
FAX : 032)422-0413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208-1 금강빌딩 202호
TEL : 02)730-0798
FAX : 02)722-3205

韓國佛教 法華宗

初 代 宗正 金慧宣 大宗師
第二代 宗正 金惠皓 大宗師
第三代 宗正 崔大植 大宗師
第四代 宗正 金慧潤 大宗師

元 老 院 長 朴 鍾 和
總 務 院 長 金 光 泰
總 務 部 長 徐 惠 性
教 學 部 長 柳 金 石
社會弘報部長 金 妙 蓮
財 務 部 長 徐 輔 光
宗 會 議 長 金 惠 明
監 察 院 長 朴 金 藏
弘法教育院長 金 榮 晟
서울教區宗務院長 金 玉 藏
京畿教區宗務院長 朴 炳 山
忠南教區宗務院長 金 俊 雄
忠北教區宗務院長 朴 宗 山
慶北教區宗務院長 徐 妙 蓮
釜慶教區宗務院長署理 金 法 蓮
江原教區宗務院長署理 李

佛紀 二五四四年 五月 日

韓國佛教 法華宗 總務院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35-5 (중앙빌딩 503호)
전화 : 02)745-1590 / 팩스 : 02)742-1590

大韓佛教眞覺宗

온 세계가 진정으로 하나되어 즐거움을 나누는 2000년 만다라 세상 진각종이 함께합니다.
(JGO : The Joy of Genuine Oneness)

總 印 覺 海
統理院長 省 超

불교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http://www.jingak.or.kr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2동 22번지
전화 : 02)913-0753 / FAX : 02)913-0755

財團法人 大韓佛教觀音宗

宗 正 云工 慧雄
總務院長 李 泓 坡
副 院 長 金 智 攝

總務部長 黃法明
財務部長 金鏡徹
監察部長 金垈弘
教務部長 洪智默
社會部長 李法炫

宗會議長 鄭法輪

副 議 長 朴松月
副 議 長 金性哲

教育院長 金東靈

修教部長 尹祿峰
讀經部長 權宗一

布教院長 鄭法性

布教部長 柳牛耕
組織部長 趙法護

▶ 서울 종로구 숭인동 178-3
전화 : 02)763-3345,0054 / FAX : 02)763-5851

大韓佛教普門宗

宗 正 千慧眼

元老院長 崔慧月
總務院長 鄭慧日
總務院副院長 崔智性
宗會議長 李智環
護戒院長 曺法綜
總務部長 李法善
教務部長 金眞雨
財務部長 吳仁太
布教部長 李明浩

宗徒一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 3가 168
TEL : 02)928-3797, 926-9752

大韓佛教眞言宗

宗 正 六字
元 老 霽山
石庵
宗理院長 金光
宗會議長 法輪
護法院長 菊馥
監査院長 慧空
財務部長 宗密
企劃室長 曉日

宗徒一同

大韓佛教眞言宗 宗理院
■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52-3(용두 진광원내)
TEL : 02)967-2479 FAX : 02)968-3350

새 천년 대중불교
대한불교 선각종

종 정 영담 정업
총무원장 청삼 정암

宗徒一同

■ 총무원 TEL : 0638)433-2233 /3233
전남 강진군 옴천면 개산리 391
강진 옴천사

■ 광주사무처 TEL : 062)224-1080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484-4
(능인불교회관 內)

대한불교 삼보종

宗正 釋亦然 大宗師
사서실장 석자인

총무원장 석 법 찰
기획실장 석 청 강
총무부장 석 지 선
교육부장 석 효 정
감찰부장 석 도 성
포교부장 석 무 량
국제부장 석 보 승

고시위원장 석 승 훈
종회의장 석 법 운
호법원장 석 효 성
교육원장 석 법 현
문화원장 석 일 현
건설원장 석 도 여
국제원장 석 양 일
감찰원장 석 원 묵
포교원장 석 일 해

부산교구원장 석 도 각
경남교구원장 석 고 성
충남교구원장 석 태 륜
경기교구원장 석 자 혜
강원교구원장 석 법 천

심신의 종단 삼보 바다로---
대한불교 삼보종 총무원 · 한국불교대학

■ 대구시 동구 신암4동 276-25 (동대구B/D 2층)
TEL : 053)959-6333 FAX 053)959-6334

佛紀 2544年 (庚辰年)
부처님 오신날

發願已歸命禮三寶 새 천년 불국토

佛紀 2544年 (庚辰年)
부처님 오신날

韓國佛教太古宗

宗 正 安德菴

總務院長 洪印谷

副院長 金普眼 · 金智庵

■總務部長 李智性
■教務部長 片白雲
■財務部長 禹慧空
■社會部長 林虎溟
■糾察部長 玄守悅
■司書室長 鄭尋眞

中央宗會議長 柳南坡

副議長 金大雲 · 金法藏

中央司正院長 金蓮雲

副院長 李白牛

■ 우 540-800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2
TEL : 0661)754-5247 FAX 0661)754-5043
■ 서울종무처: 서울 성북2동 292-1 ☎02)745-2030 FAX 02)745-1615

대한불교 원효종

종 정	법홍	서울교구종무원장	청운
부종정	벽송	경기교구종무원장	성민
총무원장	무진	강원교구종무원장	일휴
종회의장	청은	충남교구종무원장	혜정
종회부의장	법은	충북교구종무원장	혜공
종회부의장	일휴	경남교구종무원장	향운
규정원장	혜수	서부경남교구종무원장	운제
규정부원장	정안	경북북부교구종무원장	도봉
교육원장	청운	전남교구종무원장	천수
포교원장	도철	전북교구종무원장	혜암
총무부장	승보	부산교구종무원장	법광
사회부장	보휘	일본교구종무원장	덕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광성빌딩301호
TEL : 02)735-0501 FAX 02)736-3509

불교총지종

총지종은 법신비로자나불을
주교로 하는 생활불교

총지종은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정통밀교 종단입니다.
대승불교의 극치라 일컬어지는 최상승
밀교의 뛰어난 교리와 완벽한 수행체계로
법신 비로자나불의 내증의 세계를
체득하고 마음의 실상을 깨달아
즉신성불의 대원을 이루고자 승속의
구분없이 수행하고 있는 곳이
금강법계궁 총지도량입니다.

종령 록정 대종사

▶ 135-082 서울 강남구 역삼2동 776-2
http://www.chongji.or.kr
전화 : 02)552-1080 / FAX : 02)552-1082

대한불교 삼론종

종 정 대 산
부종정 각 화
승정원장 신 수 총무원장 석 봉

총 무 원

중앙종회의장	혜 공	부원장	진봉
사정원장	혜 승	사서실	지겸
재정원장	혜 광	총무부장	청봉
교육원장	정 봉	교무부장	혜각
포교원장	법 진	재무부장	혜명
호법원장	대 안	사회부장	지원
수선원장	대 심	감찰부장	달봉
문화원장	청 봉	홍보부장	지겸
교리연구원장	(공석)	교학부장	혜안
		수련부장	도연
		문화부장	지경

새 천년은 한마음 한뜻으로 다같이 힘을 모아 정진합시다.

▶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2동 4-8
전화 : 02)3216-0165~6 / FAX : 02)3216-0166

대한불교 법성종

종정 대행겸 총무원장 서덕암

원로원장	법주	박	영식
총무원장	덕암	서	장근
종회의장	혜승	고	대환
교육원장	만원	이	홍종
포교원장	재령	김	선중
총무부장	혜운	안	병엽
교무부장	혜선	류	지형
포교부장	보현	조	보현
규정부장	혜윤	김	승만
재무부장	옥천	유	옥순

▶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281-14호
전화 : 02)747-2202

한국불교 여래종

종 정	석인왕
원로원장	김무공
총무원장	신명안
호법원장	김법우
규정원장	박청산
포교원장	홍법룡
종찰원장	신혜안

총무원 임직원
각교구 종무원 일 동

■ 총무원 · TEL : 0475)731-2261
충북 옥천군 동이면 무산리 산72 대약사사
■ 사무처 TEL : 0342)734-3205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산7 약사사

韓國佛教 法華本宗

法主 大僧正		惠	洽
僧正院長		妙	宣
總務院長		爲	佛無
副院長		惠	能
總務部長		惠	法
教務部長		法	證
財務部長		法	惠
社會部長		一	啄
教育院長		惠	耕
副院長		惠	輪
布教院長		宗	明
副院長		惠	藏
護法院長		梵	翁
副院長		泰	翁
宗會議長		惠	昭
副議長		惠	光

財團法人韓國佛教法華本宗 維持財團
理事長 : 朴 惠耕(本基)
總務理事 : 金 善醒(大成) 外 任員一同

대한불교조동종

종 정 윤지명(德瓚)

승정원장 한춘담(德春)
총무원장 한학봉(德峰)
소희문도회장 강법해(德泉)

총무원부원장	김진법(行元)	경기종무원장	김행정
종회의장	최제공(德旻)	강원1종무원장	이덕혜
선원장	임진일(德眞)	경북종무원장	박덕해
율원장	송혜정(德蓮)	경남중부종무원장	양행일
감찰원장	박심월(德潭)	부산종무원장	정덕정
포교원장	김법공(德龍)	전남종무원장	김행도
교육원장	황대은(德牛)	대구종무원장	임덕진
문화원장	김일광(行均)	경남서부종무원장	황행철
중앙종회부의장	우해륜(行峰)	울산종무원장	권덕신

宗徒一同

■ 총무원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5-152호(원효사內)
TEL : 02)719-7636 FAX : 02)719-7637

대한불교 본원종

종 정 권태허
원로원장 강무구
원로 : 국당 정송 대종 법용 송파 법정

총무원장	이대화	총무부장	김만혁
감찰원장	박보명	사회부장	최철송
교육원장	김동광	재무부장	이대봉
포교원장	김용담	교무부장	정대련
종회의장	김대운	규정부장	강만공
부의장	대연,대성	교육부장	이운공
		조직부장	이관곤
		계획부장	김일광
		포교부장	윤대허
		사서실장	손무공

■ 총무원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17-3호
전화 : 02)391-4376(팩스겸용)

주지 않는 것은 갖지 말라

혜능스님의 '재가자 위한 계율' 〈18〉

오계상경-12

삼보 물건 훔친 죄 가장 무거워

도둑질 하면 불안하고 가난해져

▲원문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바새가 세 가지 방법으로 남의 귀중한 물건을 가지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 된다. 첫째 마음을 사용하는 것이고, 둘째 몸을 사용하는 것이고, 셋째 본래 있던 곳에서 옮긴 것이다. 마음을 사용하는 것은 마음을 내고 생각하여서 훔치겠다고 하는 것이고, 몸을 사용하는 것은 몸의 여러 부분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갖는 것이고, 본래 있던 곳에서 옮긴다는 것은 물건이 원래 있던 곳에서부터 들어서 다른 곳에 두는 것이다.

▲강의

오계 가운데 두번째는 불자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숫다니파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주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그것을 가지지 말라. 남을 시켜 가지거나 남이 가지는 것을 묵인하지도 말라. 주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져서는 안 된다."

출가한 수행자들은 필수품이 주어졌을 때만 받게 되어 있고, 재가자들은 정명(正命)에 따라 정직한 생활을 해야 한다. 설령 자신의 목숨을 무릅쓴 것이라 할지라도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도둑질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주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물건을 훔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기만과 사기를 이용하여 도둑질하는 경우이다.

도둑질이라는 이 비도덕적인 행위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여섯 가지가 있다. 첫째, 남의 소유이고, 둘째 취하려는 것이 남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셋째 도둑질하려는 비도덕적인 의지가 있고, 넷째 훔치기 위한 특정한 수단을 이용하며, 다섯째 5전(五錢)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고, 여섯째 실제로 남의 소유를 앗아가는 행위 자체이다. 여기에서 5전의 값어치에 대한 주석을 보면, 부처님 당시에 통용된 화폐 단위는 파나(pana, 錢)가 최저 단위였다. 서역의 1대전(大錢)이 중국에서는 16소전(小錢)인데 율장에서 말하는 5전은 곧 80소전이 된다. 아무튼 5전이라는 돈의 값어치는 승단에서는 멸빈, 즉 승단에서 추방되는 중죄에 해당되고, 세속법에서는 사형에 처하게 되는 가치이다. 그러므로 율장의 입장에서는 5전의 가치가 많고 적은 것의 문제보다 주지 않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최소한의 양과 그 정신 자세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본문에서 '다른 이의 소중한 물건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계가 성립되는 여섯 가지 요인 가운데, 첫째 남의 소유인 것과 둘째 남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다섯째 5전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의 세 가지에 해당된다. '마음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도둑질하려는 비도덕적인 의지를 말하고, '몸을 사용한다'는 것은 훔치기 위해 특정한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본래 있던 곳에서 옮긴다'는 것은 여섯째의 실제로 남의 소유를 빼앗는 행위 자체에 해당된다. 이렇게 여섯 가지의 인연이 갖춰지게 되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되어 계체를 잃게 되는 것이다.

율장에서는 도둑질 가운데 가장 무거운 죄는 삼보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도계(盜戒)에도 극중(極重), 중죄(重罪), 경죄(輕罪)의 차이가 있는데, 시방승물(十方僧物)이나 현전승물(現前僧物)을 훔쳤을 경우에는 그 죄가 팔만 사천의 부모를 죽이거나 오역죄를 지은 것과 같다고 하였고, 〈방등경〉에 "오역죄나 네 가지 중죄를 범한 이는 내가 구원할 수 있지만 승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나로서도 구원할 수 없다"고 하였다. 〈오백문〉에서는 "삼보의 물건을 훔쳤다가 만약 갚았다면 무간지옥에 들어갔다가도 빨리 나올 수 있지만, 갚지 않는 자는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삼보의 물건이나 스승, 부모,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의 물건이나 국가의 공공물건, 군용의 물건을 훔친 경우, 그 훔친 재물의 가치가 8푼의 은자(銀子) 이상이면 중죄(重罪)가 되고, 8푼의 은자 이하이면 중죄(中罪) 또는 경죄가 된다. 뿐만 아니라 재물을 잃게 된 사람이 받는 고통에 따라서도 중죄와 경죄로 나뉜다고 하였다.

결국 도계(盜戒)는 어떠한 수단이 이용되든지 소유주의 동의 없이 그것을 취하는 한, 뒤따르는 것은 오랫동안 불안한 상태로 인한 고통, 또는 다른 선업으로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되는 업보가 따를 뿐이라는 것을 일깨우고 있다.

〈해인총림 율원장〉

'사섭법' 보살행 실천

부처님께 다가가는 길

천상천하 유아독존 / 삼계개고 아당안지(天上天下 唯我獨尊 / 三界皆苦 我當安之)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도다.

모든 세상이 다 고통 속에 잠겨 있으니, 내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

부처님 '탄생게'입니다. 이 사구게 속에 담겨 있는 사상과 정신은 부처님이 일생을 통해서 실천하고자 하셨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天上天下 唯我獨尊', 이는 지혜를 설하심이고, '三界皆苦 我當安之', 이는 자비를 설하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기 2544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이 탄생게에 담겨져 있는 지혜와 자비 정신을 얼마나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생활 속에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 따라 실천해 나가겠다는 맹세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이렇게 기리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불자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륜을 굴리고, 중생을 제도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을 믿음의 땅에 세우고, 보살의 뜻을 내지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살심을 내게 하고, 장래에 성불하리하는 수기를 주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이 땅의 모든 중생들을 부처로 이끌고자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뜻으로 오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신일을 맞이하여 우리 불자가 해야 할 일은 응당 그러한 부처님의 사명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보살행이요, 부처님께 다가서는 길입니다.

물론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보살행을 설했습니다. 육바라밀, 사무량심, 사섭법 등 무수히 많습니다. 보살행이 무수히 많다는 것은 그만큼 중생들의 근기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불자 여러분들께서도 자신에 맞는 보살행법을 찾아 늘 생활 속에서 실천해 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사섭법(四攝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섭법 또는 사섭사(四攝事)란 보살이 중생을 제도할 때에 취하는 네 가지 기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보시(布施)로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재물을 기꺼이 베푸는 일입니다. 둘째는 애어(愛語)로서 사람들에게 항상 따뜻한 얼굴로 부드러운 말을 하는 일입니다. 셋째는 이행(利行)으로 신구의 삼업에 의한 선행으로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일입니다. 넷째는 동사(同事)로서 나와 남이 일심동체가 되어 협력하거나 모습을 바꾸어 다른 이에게 접근하여 중생과 같이 일하며 제도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섭법이란 다른 이와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항상 따뜻하게 맞이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며, 모든 이로움을 그들과 함께 하며, 늘 그들의 고통과 즐거움과 슬픔과 기쁨을 함께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보시란 법보시이며, 가장 훌륭한 말이란 선남자가 듣기를 원하는 때에 맞추어 법을 설하는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이행이란 믿지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을 세우게 하고, 계율을 세우려는 사람에게는 깨끗한 계율로, 아끼는 사람에게는 보시로, 나쁜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는 바른 지혜로써 이끌어 들여 그것을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동리(同利)란 이른바 아라한에게는 아라한을, 아나함에게는 아나함을, 사다함에게는 사다함을, 수다원에게는 수다원을, 계율이 청정한 사람에게는 청정한 계율을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정리=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법회중계

원효사 초하루법회

〈2000년 5월4일〉



학봉스님 〈조동종 총무원장〉

진리·재물 베풀고 늘 부드러운 말하며 선행으로 이익주고 함께 일하며 제도하라

철학자·평론가 불교 적극 수용

세계의 불교학 〈18〉 프랑스 ①

프랑스 불교는 20세기 말 지성계와 문화계에 스며들면서 혁신적인 변화를 겪기 시작했다. 특히 동시대 세계 지성계를 이끌고 있는 미셸 푸코, 자크 데리다, 모리스 블랑쇼, 쥬네트 등 프랑스 후기구조주의 철학자들과 평론가들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유 체계를 설명하는 주요 논리로 불교 사상을 적극 수용했다는 것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우주의 중심으로서의 '신'(神), 세계의 중심으로서의 인간의 '주체성', 인간의 사유와 행동을 지배하고 이끌어 나가는 중심으로서의 '진리', 그리고 인간의 삶을 포함하여 우주 내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현상들을 설명하여 주는 영구불변의 틀로서의 '원칙/구조' (예컨대, 인간적 우주적 현상들을 선/악, 참/거짓, 음/양, 자연/문화 등의 이분법적 갈등구조로 파악하여 설명하는 따위) 같은 것들에 대한 믿음을 거부한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이런 것들이 영구 불변하는 실체를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것들이 미망일 뿐임을 보여주려고 한다. 다시 말해 이성 중심의 이분법 붕괴와 불교 사상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불교와 포스트모더니즘이 만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이들은 스스로, '사상의 원천'으로 남미 아르헨티나 출신의 작가 호르헤 보르헤스를 주목하고 있다. 보르헤스가 불교에 정통하고 불교 관련 저서까지 출판하였다는 것은 국내에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19세기 말부터 연구되기 시작한 프랑스 불교학은 유식·요가학파 등의 경전과 주석서 연구 분야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1898년 루이스 디 라 발레가 〈쁘라즈나카마티(Prajnakarmati)〉의 주석서 아홉 번째 장을 출판해 프랑스 불교학의 시작을 알린 이후, 1902년 세나르는 〈라리타비스타라(Lalitavistara·보요경 일종)〉을 출판했다. 세나르는 이 책에서 부처님을 '신격화'하는데 열중했는데, 부처님에 대한 이 같은 시각은 후에 비판되었다. 또 실비안 레비는 마명(1~2세기·인도)의 〈불소행찬〉 등 유식학파나 요가학파의 경전들을 깊이 연구하고 번역했다. 그는 연구 과정에서 바스반두의 저서 〈빔사티카(Vimsatika)〉와 〈트림시카(Trimsika)〉의 새롭게 발견했는데, 요가학파 이해에 매우 중요한 발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이 발견은 실비안이 불교 경전의 비교연구와 다른 학파들의 불교 원전 탐독의 계기가 되었다. 실비안의 제자인 라 발리 포시옹 역시 6권의 '바스반두 연구서'를 발간할 만큼 요가학파를 깊이 연구했지만, 그보다는 대승불교의 철학에도 관심을 가졌다.

19세기에서 20세기 중엽까지 계속된 이러한 연구 경향은, 프랑스에서 불교의 교세가 커지고 또 실참수행에 관심 갖는 불자들이 늘어나면서, 일본·중국·한국불교의 선(禪)에 대한 관심으로 선회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주요 일간지 '르 피가로'가 96년 18세 이상 성인 2백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불교는 가톨릭(68%) 기독교(6%)에 이어 세번째로 믿는 종교(5%)로 나타났다. 또 불교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30대에서 40대 중반의 도시인으로 고등교육을 받은 회사의 중견간부나 자유직업 종사자가 많아 여론형성층의 종교로까지 성장한 것이다.

이와 같이 60년대 말부터 조금씩 프랑스 사회에 불기 시작한 불교 열기의 이유를 시사주간지 '렉스프레스'는 "개인주의와 실용주의로 대표되는 현대사회의 가치와 현대의 다양한 갈망을 해결하는 완벽한 종교로 인식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불교는 가톨릭과 같이 절대신에 의한 외부적 힘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수양과 성찰을 통해 해탈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매력이라는 것이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야외법회를 봉행하는 프랑스 불자들.

"자력으로 해탈" 여론 주도층 매료

가톨릭·기독교 이어 3대 종교 꼽혀

氣발생의 신비 전자파 수맥파 차단 행운의 달마도 순금카드!

氣 인증서 획득

나쁜 氣를 막아주고
행운과 건강을 선물합니다.
이제 당신의 지갑속에
간직하시고 행운을 느껴보세요.

정통 달마조사도의 대가(大家)이신 오인(悟印)법사님의 달마도 원본 작품



앞면 : 오인법사달마도



뒷면 : ①반야심경



뒷면 : ②사업번창부

부처님 오신날 천만불자 보시용품

(주) 골드타운은 불사보금사업을 하는 업체로써 판매수익금의 일부분은 불사건립기금으로 쓰여집니다.



뒷면 : ③차량안전부



뒷면 : ④시험합격대길부

행운과 氣를 선물하세요



달마도 상반신

예로부터 달마도는 신비스런 기(氣)를 발산하여 수맥을 차단하고 나쁜 파장과 병마를 소멸시켜 건강을 지켜주고 부와 명예를 불러주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달마도 순금판 액자
순금판크기 : 11×16㎝
표구액자크기 : 27×32㎝



달마도 전신상





앞면:달마도 뒷면:반야심경(外 3종)
〈순금판 열쇠고리〉

대한불교관음종 해동관음선원 氣인증서



氣 인증서를 꼭 확인하세요.
순금의 함량과 제품의 품질에서 최고임을 자신합니다.

달마도 신비의 기(氣)

달마도는 TV방영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신비스런 기를 발산하여 수맥을 차단하고 나쁜 파장과 병마를 소멸시켜 건강을 지켜주고 부와 명예를 불러주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달마도 순금카드

일반 지갑 소지용으로 얇게 편 순금카드 앞면에는 오인법사의 달마도를, 뒷면에는 반야심경, 사업번영부, 안전운전부, 시험합격 대길부(4종류 중 선택가능)를 새겨서 비닐압착코팅함으로써 찢어지거나 구겨짐 없이 영원히 간직할 수 있습니다. 대형(5×7.5㎝) 20,000원, 소형(3×5㎝)15,000원이며 대·소셋트 구매시 특별할인하여 30,000원

달마도 순금판 액자

국내 최초 순금판 최대크기로 오인법사의 전신 또는 상반신 달마도를 고급 표구액자로 제작하였습니다. 표구액자(27×32㎝), 달마도 순금판 크기(11×16㎝) 일반판매가격 150,000원.
한정판매

달마도 순금판 열쇠고리

달마도 순금카드(3×4㎝)를 아크릴판 열쇠고리에 삽입하여 제작하였으며 1개 10,000원, 3개셋트 25,000원

구입 문의상담

주문방법은 전화접수 후 전국내 빠른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사찰 및 불자회 보시용품 각 영업회사 판촉사은품으로 최적상품이며 다량구매시 가격할인 및 원하는 그림,사진,글씨,로고도 주문제작 가능합니다. 셋트 및 액자구매시 사은품증정!

제조판매원 : (주)골드타운

10만 불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한국순금카드사가 (주)골드타운으로 법인화 하였습니다.

☎ 02)926-7377/7315
(24시간 공휴일 접수함) http://www.goldsale.co.kr

시방세계

FM 101.9MHz
BBS 불교방송 후원회
문의전화 : (02)705-5560~1
후원회ARS 전화 : (02)700-0108 은행지로 번호 : 8003478번
처타넷 천자신문 현대불교 http://news.buddhapia.com



◇불상조성은 예술의 범주를 훌쩍 뛰어넘는다. 자연의 돌과 나무 속에서 불보살을 모셔와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상조성의 모든 과정을 의식이라고 말한다. 사진은 해남 대흥사 천불전 불상모습.

나무와 돌이 부처되기까지

불보살상을 만드는 二九불교미술원(원장 허길량) 작업실.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이곳에는 부처님 고행상부터 보살상, 사천왕상 등을 조각하는 불모들의 손놀림이 분주하다. 그렇지만 말이 없다. 마치 선방 같다. 작업장 중간에 자리하고 있는 덩치 큰 원목이 눈길을 잡는다. 범상치 않는 모습이다. 불모 허길량씨는 경기도 화성군의 한 마을을 지켜온 당간 나무였다고 말한다. 도로 공사로 베어야 될 위기에 처하자 주민들이 불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간청해 왔다는 것이다. 허 씨는 요즘 이 나무로 어떤 불상을 만들까 고민중이다.

불상(佛像). 부처님과 보살의 형상을 돌 나무 등으로 조각한 것을 뜻한다. 이렇듯 불상의 사전적 의미는 간단 명료하다. 하지만 평범한 나무와 돌에 지나지 않던 것이 근엄과 자비를 함께 갖춘 불보살상이 되기까지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불상조성을 '자연 속의 환생'이라고 일컫는 것만으로도 충분이 짐작할 수 있다.

조각솜씨·불심 어울려야

불상 조성은 예술적으로 뛰어난 조형물을 만드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신앙적 의미가 표현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아름다워도 예술품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모(佛母)들은 혼을 얘기한다. 그것은 예술혼이 아닌 불혼이다.

대부분 조형물들은 장인들의 손끝에서 탄생한다. 하지만 불상은 그러한 범주를 훌쩍 뛰어넘는다. 조각 솜씨는 부차적이다. 나무와 돌에서 불보살을 볼 수 있는 경지가 되어야 한다. 불상을 조각하는 장인들을 '부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이를 위해 불모들은 평생 자신과 치열하게 싸운다. 바로 무념무상의 경지에 이르기 위한 철저한 수행이다. 불상을 만드는 것은 부처님의 미소 뒤에 어려 있는 깨달음의 세계까지도 담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불모들에게는 금기 사항도 많다. 날짜를 정하여 목재를 자르고 유황과 한약재를 담인 물로 깨끗이 씻는 것, 금속으로 불상을 만들 경우 재료를 세속의 용기에 담지 않는 것, 한 불상을 만들다가 도중에 다른 불상으로 바꾸지 않는 것, 부처님을 그리다 남은 물감으로 보살상을 그리지 않는 것 등.

불상은 재료에 따라 목불(木佛), 석불(石佛), 금불(金佛), 건칠불(乾漆佛), 소불(塑佛) 등으로 나뉜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많이 제작한 것은 금속으로 주조한 불상과 석불이다. 특히 석불은 여러 형태가 있다. 전후 좌우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원각상, 석주 사면에 조각한 사면불, 감실 안에 모신 감불, 석굴에 조성한 불상 등이 있다. 하지만 불상 조각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은 목불이다. 나무는 다른 재료와는 달리 생명력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섬세한 표현으로 조각 기술의 극치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의 돌과 나무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불상으로 태어날까.

예로부터 불모들 사이에 전해오는 목불 조성법을 살펴보자.

은행나무, 소나무, 녹나무 등을 사용하는 목불 조성은 원목 선별에서부터 시작된다. 벌목은 주로 나무에 물기가 가장 적은 겨울에 이루어진다. 불상에 쓸 원목이 정해지면 우선 나무 둘레에 붉은 흙을 뿌리고 번(幡)을 건 다음 목신제를 정성껏 지낸다. 이렇게 해서 베어진 원목은 21일 동안 물에 담갔다가 껍질을 벗기고 1년이상 건조한 다음 불상 만들기에 들어간다.

목불 조성법은 크게 일목식과 접목식 두 가지가 있다. 일목식은 불상 전체, 머리에서 발, 좌대까지 한 그루의 나무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접목식은 여러 나무를 이용하여 불상의 머리와 몸, 손 등을 따로 조각한 뒤 짜 맞추어 한 몸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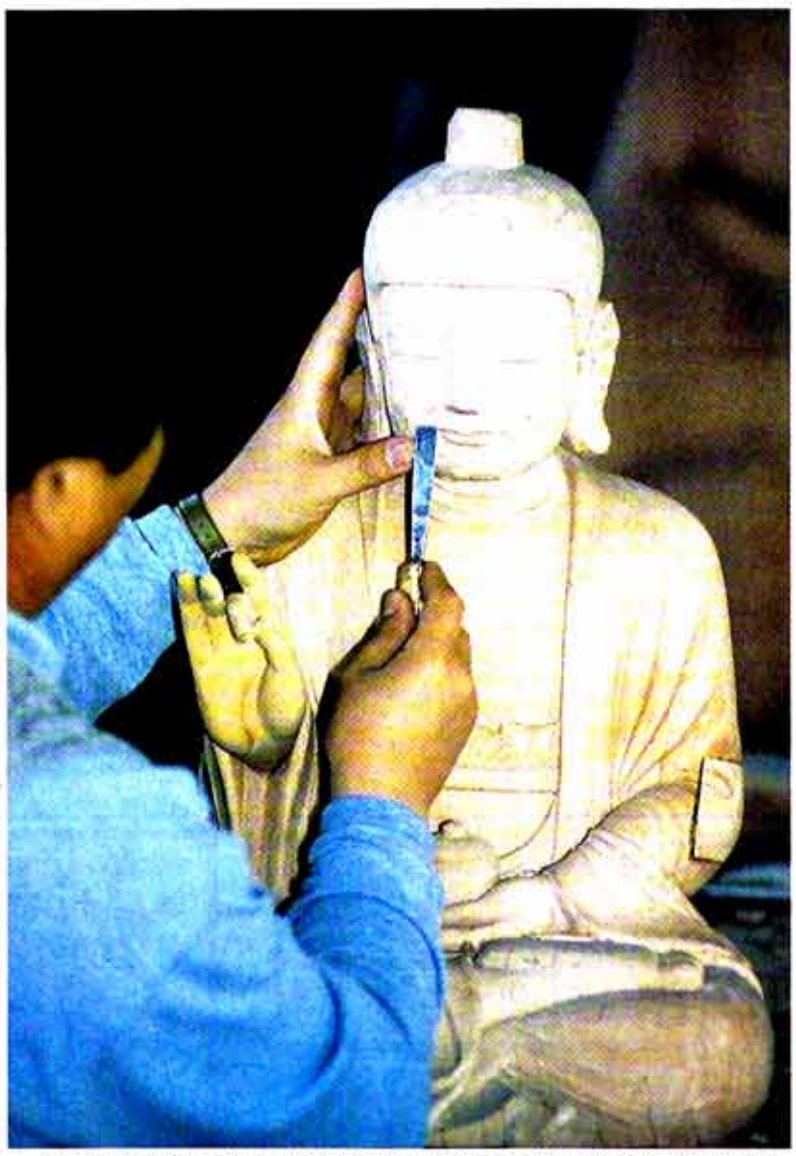
신앙대상이자 문화산물

접목식에서는 접착제를 많이 사용하는 데 밀가루에 송진과 토분을 섞은 감탕물을 주로 사용한다. 불상 조각이 완료되면 한약을 달인 물과 유황으로 깨끗이 목욕시킨다. 그리고 그 위에 여러 번 옻칠을 한다. 모가 나지 않아야 개금 작업이 원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성된 목불은 점안식 때까지 동쪽을 향해 놓고 황색가사를 덮어 놓는다. 그런 다음 점안식을 거쳐 신앙의 대상으로 불자들 가슴 속에 자리하게 되는 것이다.

불상은 신앙의 대상일 뿐 아니라 한 시대의 문화적 소산이다. 작은 부분에도 혼신의 힘을 쏟아 붓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부처님을 조성하는 불모들은 약 1백 여명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은 불상 조성에 있어 가장 어려운 작업이 원만한 상호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불모의 불혼과 비례하기 때문이다.

김종근 기자(gamja@buddhapia.com)
고영배 기자(ybgo@buddhapia.com)



◇불상조성에 있어 가장 어려운 작업이 상호를 표현하는 것이다. 혼과 불심 그리고 섬세한 조각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불모 허길량씨의 작업모습.

현대의 불모들


◇권정학


◇박천수


◇허길량


◇이진형

예로부터 부처님의 형상을 그리는 화가와 조각가들을 일러 '불모(佛母)'라 불러왔다. 부처님을 표현해 내는 일을 하는지라 사람들이 스님 못지 않은 공경을 받았다. 이들 또한 작업에 들어가면 수행자 이상으로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유지하며 원만한 부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지난 70년 조계종 제1회 불교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차지하며 불교 조각계에 등장한 권정학 씨. 불교 조각계의 살아있는 전설이라 전해지는 권씨는 60년이 넘는 세월을 부처님 조성에 몸 바쳐왔다. 10대 시절 형인 고 권정두 씨와 함께 당시 대표적 화승이자 조각가였던 양완호 스님 문하에서 수학했다. 최근에는 서울 관문사 옥불을 조성하며 81세의 고령에도 왕성히 활동하고 있다. 동생 권정환 씨도 불모의 길을 걷고 있는데, 낙산사 해수 관음상이 그의 작품이다. 또한 권정학 씨의 아들 권영식 씨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불교 조각가의 길을 걷고 있다.

96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으로 지정된 박천수 씨는 목아박물관을 운영하며, 불자와 일반인에게 우리 목공예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는 불교조각가다. 90년 개관한 목아박물관은 보물 3점을 비롯 6천여 점의 조각 작품을 전시해 명소로 자리잡았다. 박씨는 목불 조각의 계보를 장르별로 체계화하는 연구를 필생의 과제로 삼고, 목조각에 열정을 쏟고 있다.

금어 우일스님으로부터 사사를 받은 문화재 조각 615호 허길량씨는 77년 불교미술대전에서 '천수천안'으로 대상을 차지하며, 불교목공예의 장인으로 인정받았다. 동국미술인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문화재 기능인협회 총무이사로 활동중이다. 조계사 근처에 전시관 '대불공'을 열어 불교목공예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지난 99년 5월 대전시로부터 불상 조각장 무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받은 이진형 씨, 68년 박찬수 씨와 인연으로 불교 조각계에 입문, 95년 불교조각가로는 처음으로 불교조각 개인전을 열어 화제를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현재 부산에 불교조각원을 열어, 후진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밖에도 불사의 현장에서 내일의 불모를 꿈꾸는 100여명의 불교조각가들이 활동중이다.

이은지 기자(ejlee@buddhapia.com)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스님" 이젠 바꾸세요
"불자님"절에 갈땐 "바랑"을 메세요
부릉자랑
▣비가와도 걱정이 없는 방수 바랑
▣겉감은 면20수 이므로 촉감이 좋습니다.
▣안감은 ㅎ자로 佛心을 담았습니다.
▣본 바랑 제품은 수납공간이 많습니다.
▣본 바랑은 품위있고 멋스러움이 배여 있습니다.
▣본 바랑은 스님 및 재가불자를 위한 제품입니다.
▣2종류 색상과 4종류의 모델이 있습니다.
제조원 관매원 천화무역(주) 02)449-8844, 449-9100




▲B-1001 W40,000

▲B-1002 W35,000
◀B-1003(大) W35,000
◀B-1004(小) W33,000
온라인 구좌 농 협 061-17-001230 예 금 주
우체국 013805-0068619 (주)천화무역




<팔각> <타원형> <조리개, 끈>
▲B-1005 W20,000 ▲B-1006 W20,000 ▲B-1007 W20,000
◆2종류 색상, 3가지 모델 ◆소재 : 면 50%, 마 50%
후원 바랑 및 법가지는 小白山 金剛寺 노스님 선방 건립을 후원합니다.
금강사 전화 0572)636-6546, 632-6546 (불사 상담 받습니다)
취급점 모집중 (전국불교서점, 사찰매점)
서울 전지불교사 02)739-3032 성 불 사 02)735-3543
대성불교사 02)732-7375 제일불교사 02)735-0918
대 복 전 02)737-0969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다시 푸는 경서

달마 혈맥론(血脈論) ⑭

若於生死中得自在 轉一切法
약어생사중득자재 전일체법
與聖人神通 自在無碍
여성인신통 자재무애
無處不安 若心有疑
무처불안 약심유의
決定透一切境界不過
결정투일체경계불과
不免生死輪廻 若見性
불면생사윤회 약견성
諸佛 亦得成佛
전다라 역득성불

만약 생사 가운데서 자재함을 얻어 모든 법을 전하고 성인의 신통처럼 자재하여 걸림이 없으면 편안하지 않는 곳이 없다. 만약 마음에 의심이 있으면 결코 일체의 경계를 통과하지 못하고 생사의 윤회를 면치 못할 것이지만 만약 견성한다면 전다라 같은 백정도 성불할 수 있느니라."

問云 殺生作業 如何得成佛
문왈전다라 살생작업 여하득성불

물었다. "전다라는 살생을 업으로 삼는데 어떻게 성불할 수 있습니까."

걸림 없으면 편하지 않는 곳 없다

마음을 알면 한 글자 몰라도 부처

答曰只言見性
답왈지언견성
不言作業 縱使作業
불언작업 종사작업
不同迷人一切業拘他不得
부동미인 일체업포타부득
從無始曠大劫來 只爲不見性
종무시광대겁래 지위불견성
墮在地獄中 所以作業
타재지옥중 소이작업
輪廻生死 悟得本性
윤회생사 오득본성
從不作業 若不見性
종불작업 약불견성
念佛免報不得 非論殺生
염불면보부득 비론살생
若見性 疑心卽除
약견성 의심돈제
殺害生命 亦須何他不得
살해생명 역내하타부득

대답했다. "단지 견성만을 말했지 업을 짓는 것은 말하지 않았다. 비록 업을 짓더라도 어리석은 사람과는 달라서 온갖 업이 그를 구속하지 못한다. 끝없는 옛날부터 오직 견성하지 못했기에 지옥에 떨어진 것이다. 업을 지은 까닭에 생사에 윤회한 것이지만 근본 성품을 깨달으면 끝내 업을 짓지 않는다. 만약 견성하지 못하면 염불을 한들 과보를 면할 수 없다. 살생이 문제가 아니라, 만약 견성하여 마음의 의혹을 없애버리면 생명을 살해하더라도 그를 어찌하지 못한다.

自西天二十八祖
자서천이십팔조
只是遍傳心印 吾今來此土
지시체전심인 오금내차토
唯傳頓教卽心是佛
유전돈교즉심시불
不言持戒精進苦行
불언지계정진고행
乃至入水火登刀輪
내지입수화등도륜
一食長坐不臥
일식장좌불와
盡是外道有爲之法
진시외도유위지법
若識得佛爲運動靈覺之性
약식득시위운동영각지성
汝心卽諸佛心 前佛後佛
여심즉제불심 전불후불
只言傳心 更無別法
지언전심 경무별법
若識此心 一字不識亦是佛
약식차심 일자불식역시불
若不識自己靈覺之性
약불식자기영각지성
假使身破微塵 見佛終不得也
가사신파미진 역불종부득야

인도의 28명의 조사들도 오직 심인(心印)을 전하였고 내가 이제 이 땅에 온 것도 돈교(頓敎 : 금방 깨달음을 얻는 교), 즉 마음이 부처라는 법을 전하기 위한 것이지, 지계(持戒)·정진(精進)·고행(苦行)이나 나아가 불이나 물에 들어가는 법과 칼산에 오르는 것, 또는 한 끼 먹고 오래 앉아 눕지 않는 법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는 모두 외도의 유위법이다. 만약 분별하고 운동하며 신령스럽게도 깨달아 아는 그 성품을 안다면 바로 그대 마음이 모든 부처의 마음이다. 모든 부처님이 마음 전하는 법을 말했지 다른 법은 없다. 만약 마음을 알면 한 글자도 몰라도 부처니라. 그러나 자기의 신령스럽게 아는 성품을 모르면 설사 몸이 가루가 되도록 부처를 찾아도 헛일이니라.

김원각 〈시인 · 역경위원〉

불기 2544년 부처님 오신날

큰 스님과의 대화

범룡스님

조계종 전계대화상

"우리도 부처님같이" 불기2544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는 불자들은 누구나 부처님처럼 살기를 희망하며 성불에의 원(願)을 새롭게 세운다. 색신으로 몸을 나투시어 무명중생들에게 누구나 부처를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일깨운 인류의 대스승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기를 돌아보게 되기 때문이다.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자비의 등, 지혜의 연등으로 온통 아름답게 장엄된 팔공산 동화사 비로암에는 일생을 참선수행에 매진해온 범룡스님이 주석하고 계시다.

스님을 배출하는 계단(戒壇)의 설치와 운영 수계식 등을 관장하는 막중한 책임인 조계종 전계대화상을 맡고계시는 범룡스님을 뵙기 위해 팔공산 동화사 비로암을 찾은 날은 대웅전 처마에 매달린 풍경소리가 유난했다. 그렇지만 그 소리는 마치 '우리도 부처님같이' 노래처럼 싱그럽게 들려왔다. 세수 87세의 범룡스님은 비로암의 비로자나부처님처럼 자애로운 미소가 얼굴 가득해 뵙기만 해도 마음이 푸근해 지고 평화로워졌다.

"부처님과 똑같이 되세요"



- 1914년 경북 영산 生
- 35년 금강산 유점사에서 만허스님을 은사로 득도
- 41년 상원사에서 한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 수덕사 범어사 해인사 봉암사 등 제방선원에서 수십안거 성만
- 80~81년 동화사 주지 역임
- 94~96년 봉암사 조실 역임
- 99년 11월 조계종 전계대화상에 추대
- 현재 팔공산 동화사 비로암에 주석

-만해스님께서는 '부처님 나심은 온 누리의 빛이요, 뭇 삶의 목숨이라'고 노래하셨습니다. 시대는 급변하고 물질은 풍족해졌지만 세상살이는 더 각박해지고 인간성은 메말라가며 대립과 갈등, 탐욕과 분노가 중생을 얽어매고 있는 이 시대, 부처님께서 이땅에 오신 뜻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절집에서 가장 많이 쓰고 또 인사로도 많이 사용하는 말이 '성불하세요'예요. 이 말 보다 더 좋은 말은 세상에 없다고 봅니다. "부처님과 똑같이 되라는 말"이니까요.

부처님께서는 태어나신 직후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개고 아당안지(天上天下 唯我獨尊 三界皆苦 我當安之)"라고 선언하셨지요. "하늘위와 하늘아래 오직 나홀로 존귀하도다. 모든 세상이 다 고통속에 잠겨있으니 내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는 인류에게 희망을 준 자비선언 이자 인권선언입니다. 비록 무명에 가리워져 있지만 우리 모두가 찬란한 불성을 가진 주인으로서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마치 밝은 횃불처럼 모든 번뇌와 속박에서 벗어날 길을 가르쳐 주셨지요.

다른 종교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절대자를 내세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는 없다고 하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길을 걷기만 하면 우리도 부처님처럼 성불할 수가 있다고 일깨웁니다. 부처님을 닮고자 서원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생기도록 자신과 주위를 돌아보고 성불에의 각오를 새롭게 하는 날이 되었으면 하지요.

-스님께서는 출가하신지 60년이 넘으셨고 또 전국의 재방선원에서 참선으로 일관해 오셨습니다. 불교 특히 선이 21세기라는 새로운 시대 인류를 이끌어갈 정신문화의 대안이고 중심축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불자들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선공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참선의 묘미는 어디에 있는지요.

▲어느 혜던가, 부처님 성도절 용맹정진을 일주일간 하는데 그때 삼매에 들었던 것 같아요. 하여간 불법이 좋은 줄 알려면 삼매에 들어야 되겠더구만. 삼매라는게 듣고싶다고 드는게 아니고 이렇게 앉아서 일주일동안 용맹정진하다 보니까 저절로 삼매에 들은 거지. 삼매에 들면 마음이 정해지고 육체도 정해지고 눈동자도 정해지고, 눈동자도 이렇게 움직이질 않고 서요. 눈으로 보기는 보는데 큰 상시와 다르지요. 보통때는 내가 보겠다는 생각이 그리로 가서 보지만 삼매에 들면 내 눈이 면경이라. 사물이 눈동자에 와 비치니까 보는 게지. 그러니까 무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삼매에 들어 칠일 이칠일 삼칠일 돼 가면 다 깨달을 수 있다는 건데...

혼자 앉아서 하면 칠일이고 이칠일이고 하겠는데 대중이 모여 앉아서 하다 그렇게 되니까 다리 쥔다고 포행하다보니 그만 멈춰버렸지요. 세시간 정도 삼매에 들었는데 누가 뭐라고 지껄이는 소리가 다 들리고, 모두 와서 이 수좌가 자나 죽었나 눈동자를 뒤집어보고 했어요.

하여간 화두와 하나가 되어 삼매에 들면 그 공부재미가 말할 것이 없지요.

-스님께서는 어느 화두를 드셨습니까?

▲'무'자 화두지요. 어떤 스님이 조주스님에게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물으니 "무(無)" 해버렸거든. 조주스님이 "무" 했는데 조주스님이 부라 했으니 아무 것도 없는 무라 생각하지 말고, 있다, 없다 로도 생각하지 말고, 그저 '무' 자 화두와 내 마음하고 하나가 되서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내 맘 하고 화두 하고 조금만 떨어져 벌어지면 그저 망상이 나오고 밖에서 잠이 들어오고.... 화두와 내 마음이 하나가 따악 되면 잠도 못 들어오고 망상도 뭇 들어와요. 그러나 이것은 참선을 많이 해본 사람 아니면 알아듣기 어렵고 실천하기도 어렵지요.

-불자들은 참선 뿐 아니라 간경과 주력, 염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수행법으로는 깨닫기 어렵다는 말도 있고 하는데 이들 수행법과 참선과는 어떻게 다른지요.

▲흔히들 간화선이 최상승의 선이라고 하지요. 최상승 근기를 타고나야 제대로 할 수 있지, 보통이나 낮은 근기를 타고나면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다른 근기에 따라 염불이나 간경, 주력을 해도 깨닫겠다는 수행의 목적에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얼마나 꾸준히, 열심히 하느냐는 점이지요. 주력중에서 불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진언이 천수다라니입니다. 진언을 자꾸 외우면 가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 틈틈히 신묘장구대다라니 주력을 자꾸 하면 좋겠어요. 다라니를 하면 내 힘이 반, 부처님 가피력이 반이예요. 요즘 같은 말세에는 중생들이 다라니를 열심히 하면 좋겠는데 건성으로 하거나 아예 하려고 하지도 않지요.

사실 다를 것이 없습니다. 참선이 곧 염불이고 염불이 참선이예요. 근본적으로 보면 염불과 참선이 같아요. 염불(念佛)이란 것이 생각 염 자에 부처님 불자 아니예요? 염불 하는 사람이 정말 생각이 염불에 딱 붙어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해야지 건성으로 염불하면 그게 뭐 아리랑 타령이지, 한번을 해도 부처님을 생각하고 간절히 해야 됩니다.

관세음보살이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해가지고 관세음보살이 됐다는 이야기가 경에 있어요. 무슨 수행을 하든지 온 마음을 다해 간절히, 부처님을 생각하며 일념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스님들 사이에 지계정신이 자꾸

김재일법사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불교교리 강좌

본회에서는 불교를 처음 찾는 분이나 불교기본교리를 알기쉽게 공부할 제 10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강의개요

1.강의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여름반)
2.교육장소	동산법당(안국동 로타리)
3.개강일시	2000년 6월 7일(수) 오후7시
4.교과목	불교의 정의, 불교의 특징, 불교의 분류, 삼보설, 삼과설, 삼법인설, 연기설, 사제설, 수도론, 번뇌론, 반야심경, 불자의 실천덕목, 불교상식 및 사찰예절
5.지도법사	김재일 법사
6.교 재	수강신청자에게 입학당일 제공 (불교의 기본교리, 교리노트)
7.입학금	30,000원(반명함판 사진2매)
8.자원자격	제한없음

※ 문의 : 사무국 ☎ (02)732-1206~8
FAX (02)732-1207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반야회

신 간 대조 한글역

범본 極樂莊嚴經

(아미타경 무량수경)



◈ 최봉수 편찬
◈ 가격 20,000원

⊙ 아미타불의 48대 원력의 생생한 가르침 및 극락세계의 정토장엄과 왕생도를 설한 무량수경이 이제 산스크리트 원전인 극락장엄경으로부터 직접 원음을 듣는다
⊙ 지혜의 보고인 불경이 이제는 불자들의 가슴에 살아 숨쉬는 경전으로 다가오다. 일반 불자들에게는 극락왕생과 부처님의 무량광 무량수를 증득하는 수지독송경으로, 전문불자들에게는 산스트리트 원전과 한역과의 비교를 통해 좀더 심원한 정토세계를 체험하도록 편집하였다.
⊙ 다년간 불교근본경전에 대한 저서를 출간한바 있는 최봉수 교수는 대승불교의 하이라이트 정토부경전인 극락장엄경을 편찬하다.

주문처 전국염불만일회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 웅진갤러리 3층
☎ 02)732-1215 FAX (02)732-1207
※ 단 한부라도 주문하시면 발송해드립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신행하는 정토불교강좌(3년과정)

'2000학년도 아미타정토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무량광 무량수인 아미타부처님의 가피력과 위신력을 신행하는 정토행자를 양성하고자 전국 염불만일회에서는 정토법사 3년 과정의 제3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2. 교과목 및 교수

교과목	한국정토사 · 무량수경 · 연종집요 · 아미타경 관무량수경 · 왕생론 · 반주삼매경 무량수경종요 · 보왕삼매론 · 미타예참법 정토미술 · 인도정토사 · 중국정토사	교수진	주명철교수(동국대) · 김영미교수(이화대) 한보광스님(동국대) · 장휘옥교수(동국대) 최봉수교수(동국대) · 대 원스님(승가대) 강동균교수(동아대) · 정태혁교수(동국대) 혜 경스님(무설정사)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정규반(100명) 통신반(50명)	불교를 적극 신행 하고자 하는자	· 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2000년 5월 1일~ 2000년 6월 1일 입학금 1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동산교육회관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지원가능

4. 입 학 일 시 2000년 6월 1일(목) 오후 7시 (동산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 본대학 사무국(☎ 02)732-1217, FAX 02)732-1207)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 ☎ 02)733-0333 ⊙ 부산 : 불 서 보급 시 ☎ 051)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 053)425-4097 ⊙ 대전 : 보 문 서 점 ☎ 042)257-0161
⊙ 광주 : 불 일 서 점 ☎ 062)232-7542 ⊙ 제주 : 한라불교신문사 ☎ 064)55-2203
※ 특전사항 : ⊙ 상기과정을 이수한 자는 졸업장 수여.
⊙ 졸업자는 소정의 고시를 거쳐 정토염불법사 수여.

전국염불만일회 아미타정토대학



◇계율이란 불제자로서 당연히 걸어야 할 길의 길라잡이라고 강조하시는 범룡스님.



◇범룡스님은 부처님처럼 일체중생을 제도하겠다는 큰원을 가지고 정진하기를 권유하셨다.

초파일은 '성불' 다짐하는 날

'계 지키기' 머리가 아닌 몸으로

흐려져 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98년과 99년 두차례 일어난 조계종 사태도 청정계율 정신이 희박해져 그러한 사태가 일어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계법(戒法)을 전하는 계사이며 종단의 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전계대화상으로서 안타까움이 더욱 크실텐데요. 일부에서는 2천5백년전에 만든 계율이기에 현대에 맞지않아 계율을 바꿔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난이 부처님 임종전에 여쭈었지요. 부처님께서 오늘은 계시지만 내일 열반에 드시면 뵈올 수 없는데 돌아가신 뒤에는 어떡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계율로써 스승을 삼으라"고 하셨지요. 불교가 올곧게 살아나려면 계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부 수행자들은 술먹고 고기먹는게 반야자에 걸림이 없다나 뭐라나 하며 제멋대로 합리화를 시키는데 그런 중생은 제 업대로 살다 가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계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하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진정으로 참회를 해야 합니다. 계율은 머리로 아는 것도 아니고 말로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계율이란 불제자로서 걸어야 할 길을 가는 길라잡이요, 지침인데 과연를 한다면 어떻게 길을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계율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계를 받고 안 지키는 것은 바로 자기자신 탓이지 남이나 주위 환경을 탓해서는 안됩니다.

신라때 자장율사는 "내 차라리 계를 지키면서 하루를 살지언정 계를 깨뜨리고 백년을 살기를 원치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수행자들은 이 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일반 재가불자들도 오계를 평소 생활에서 지키도록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계라는 것이 거북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활화될 때 개인 생활 뿐 아니라 사회도 청정해지고 양심적이 돼 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깨끗하고 양심적으로 살 것을 바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부터 오계를 지키고 산다면 이 세상은 한층 밝아지고 청정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현대 사회라는 것이 공부하려는 사람들에겐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쉽사리 주위 환경에 끄달리고 중심을 잡기 어렵습니다. 50~60대의 불자들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이 젊을 때의 사진을 보면 젊고 탱탱한 모습이 그리운 것이 아니라 왜 이 때부터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까, 왜 쓰잘데 없는 헛일에 시간을 낭비했을까 안타깝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사실 젊어서는 불법을 만나도 나중에 수행하면 되지 뭐 하는 안일한 마음이 들기 십상입니다.

▲'사난득(四難得)'이란 말이 있어요. 네가지 얻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사람몸 받기 어렵고 남자로 태어나기 어렵고, 출가사문이 되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 어렵다는 말이지요. 불자들이야 불교안에서 사니까 잘 모르지만 부처님법 만나기는 정말 인연이 안되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부처님법 만났을 적에, 그리고 참선법을 만났을 적에 전심전력으로 한번 해보기를 권하는 것이지요.

특히 출가의 인연이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승려생활이라는게 남보기엔 편한 것 같지만 사람구실 할려면 금생에 한 생 안 난셈 치고 부처님처럼 해보자는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공부하다보면 유혹이 많게 마련이지요. 공부하다가도 이게 아닌데 혼돈도 오고 곧장 갈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렵기 그지 없어요. 그러기에 스승과 도반이 필요합니다.

어쩌다 불법을 만나기도 어렵지만 선을 한 번 해 보려면 여간해선 어려워요. 세상만사 다 작폐하고 이 세상에 나서 할 일은 이것밖에 없다. 금생에 이것밖에 할 일이 없다 그 생각만 있어도, 남은 생을 성불하는 일에 몸 바치며 해도 제대로 할 수 없는데, 조금 하고 나가 자기 볼일 보고 또 조금 하고... 껍데기만 하다보면 도가 터질 수가 있나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불법을 만나 참선하는 도리를 알았으면 그것에 몸을 한번 던져보아야지요. 그래서 옛분들이 그랬어요. "한번 사람의 몸을 잃어버리면 만겁이라도 또 사람의 몸을 받기 어려우니 모든 도 닦는 사람은 간절히 모름지기 도를 닦을 지니라."

—대부분 말을 들어보면 일심이 지속이 돼야, 소위 말해 화두일념이 돼야 견성성불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선방에 계신 스님들도 일심을 지속하기 어려운데 속가에 있는 재가불자들은 할 일도 많고 그런데 과연 깨칠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속에서 하는 말이, 무슨 일이 잘 안되거나 속상할 때는 에이 산중에 가서 도나 닦아야지 하는데 산중에 가 앉아있다고 도가 닦아집니까? 조용한 산중에 들어앉아 있으면 처음엔 참 좋지요. 하지만 얼마 지나면 도는 안 닦아지고 산밖에 안 보입니다.

산중에서 참선공부에 몰두하기도 어려운데 직업가지면서 깨칠려면 마음적으로 더욱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할 일이 많아도 다른 일은 좀 덜하고 공부해야지요. 재가불자들은 졸더 부지런해야겠지요. 아침에도 좀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도 좀 늦게 자고 시간을 내야지요.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 잠도 좀 덜 자고 시간을 내어 자기수련을 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늘상 얘기합니다. 마음을 찾아야 한다고 하고, 비워야 한다고 하는데 마음도리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요.

▲우리 마음이 항상 생주이멸(生住異滅)로 끝나는 것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무슨 생각이 죽 나서는 조금 머물러 있다가 달라지거든요. 아침에 자고 깨서부터 잘 때까지 몇가지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요. 백 가지를 했는지 더했는지... 그런데 그것이 모두 생주이멸로 끝납니다. 우리 몸은 생노병사로 끝나고, 우리가 앉아있는 지구는 성주괴공(成住壞空)이거든요. 모든 것이 영원한 줄 착각하지만 어느 것 하나 무상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해서 돌아가니 고정된 실체란 게 없고 실체가 없으니 집착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참선을 열심히 해서 마음의 본성을 깨달아 보세요. 생주이멸하는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곧 꿈속임을 안다면 깨달았다고 할 수 있지요. 모든 것이 이 마음에 달렸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여기 팔공산에도 기도객들이 많이 오는데 기도할 때 원을 좀 크게 세워보세요. 내 가족, 내 자식을 위한 기도만을 할 것이 아니라 성불해서 부처님처럼 일체중생을 다 제도해야 되겠다 이런 대원(大願)을 좀 세워보세요.

하나의 등을 밝히면 어둠이 물러가고 밝아지는 것처럼 이 세상을 밝히는 연등과도 같은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부처님오신날만이라도 새롭게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대담=이경숙 부장
(gslee@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지묵스님의 스님이야기

■지유스님

莫逐有緣(막축유연) 세속 인연을 따르지 말고
勿住空忍(물주공인) 출세간의 공에도 머물지 말지니라.

이 법문은 삼조(三祖) 승찬(僧璨) 대사의 〈신심명(信心銘)〉 한 부분이다. 지유스님은 이 법문대로 사시는 분으로 믿어졌다.

스님은 공양을 아침과 점심만 하고 저녁은 하지 않으신다. 울력을 한 날, 시내에 볼일을 보러 갔다가 온 날 역시 두 끼니로 정해져 있다. 그래도 평상시대로 일을 다 하신다. 어떤 때에는 공양주가 방편을 써서 "스님, 국수예요." 하고 권할 때 마지못해 조금 드신다. 나는 처음 이 모습을 보고 저녁은 '오후 불식'에서 '오후 불밥'이란 말을 생각하였다.

흉내내어 오후 불식을 하거나 오후 불밥을 한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다. 나는 어떤 때 밥만 안 먹고 미수가루를 한 대접 먹은 일도 있다. 또 절 밖에 나와서는 자장면으로도 채웠다. 원칙을 말한다면 반칙임에 틀림이 없는 일이다.

장좌불와중 졸음와도
별난 취미로 물리치시고…

먹을 때 먹고 잘 때 자는 자유인. 지유스님은 그런 분이다. 장좌를 하시는 곁에서 밤을 지샌 적이 있다. 정말 졸지도 않으신다. 헌데 특이한 방편이 있다.

사람마다 잠이 오는 시간대가 다르다. 초저녁, 한밤중, 새벽녘 등 제각기 잠이 쏟아져 오는 때가 다른데, 스님은 한밤중 견디기 어려울 때쯤이면 좌선하는 자세를 풀고 일을 시작한다. 공구가 많기도 하다. 시계, 카메라 같은 걸 다루는 정밀기구가 있는가 하면, 라디오, TV를 다루는 기구 등 별별 공구가 다 있다. 물건을 뜯었다가 맞추고 또 손볼 것이 있는 걸 손본다. 처음에는 뜯었다가 맞추기를 실패하는 경우도 있으나 책을 통해서 혹은 전문가에게 알아보고는 원상대로 조립해내는 기술이 있으시다.

흰 종이 위에 차근차근 나사못을 놀어놓고 순서대로 해체시키는 모습을 보노라면 재미가 있다. 일에 열중하는 동안 잠은 어느새 달아나 버리는 것이다. 잠은 올 때 죽어라고 쏟아졌다가도 그 순간이 지나면 말짱 개운해진다. 감각은 대개 그렇게 집중되어 있다. 배도 고프다가 한동안이 지나면 그 배고픔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하여간 스님은 별난 취미로 잠을 물리치는 비결을 가지고 있으신다. 춘성 스님은 밤중에 걷는 걸로 잠을 물리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앉아만 있으면 졸음에 지기 때문이다. 어떤 스님은 송곳을 턱 아래에 바로 세워두고 잠에서 벗어나고자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처음에는 송곳 때문에 앞으로 꾸벅거리지 않다가 며칠이 지나서는 좌우로 꾸벅거렸다나.

잠을 이기는 사람은 장사도 그런 장사가 없다. 백두장사 한라장사에 비할 바가 아니다. 나는 앉으면 졸음에 빠진다. 전생에 무슨 연을 지었기에 공부는 뒷전에 가고 그렇게 잘 조는 것인지 한심스럽다. 오후불식을 하면 졸음이 적으나 또 허리힘이 없어 자꾸만 허리가 굽어지는 게 탈이다. 이래저래 힘들다.

한번은 신도분의 따님이 와서 주지실에 누워 지낸 적이 있었다. 대학생인데 어딘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쉬는 모양 같았다. 물론 방사가 비좁아서 그런 탓도 있었겠지만 스님은 그런저런 것에 신경을 쓰지 않으셨다. 남자 여자 하고 가리는 일도 별 무리 없이 넘기셨다. 평소 약간 끼가 있을 양이면 소문이 파다하게 날 터인데 말이다.

"주지실에 여자애가 자고 있다."

"큰일이다. 문란해진 주지실을 그대로 둘 것인가?"

어쩌구 저쩌구 하고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높을 법한데 역시 스님의 법력 탓인지 아무 탈이 없었다. 혹 이 이야기는 내가 오해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속가 친척의 조카애 정도 되는 딸 아이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디 통하는 이야기인가. 자칫하면 방 앞에 남녀의 신발이 나란히 놓여만 있어도 말이 많은 세상이 아닌가? 초연해졌다고는 해도 그렇게 하기는 보통이 아니다.



그림 · 문병성

스님의 생활에서 나는 어떤 승보의 표준이랄까 불제자로서 스님의 전형적인 모습이 잡혀서 나름대로 정리가 되었다. 방황도 이 이후 다소 잡힌 셈이다.

"스님, 선방을 갈려면 어느 선방을 갈까요?"

지유 스님은 이 질문에,

"요즘 새로 개원한 불국사가 좋을 것이오."

하고 추천하셨다. 불국사 선원에서는 중국식 단(壇) 위에서 좌선을 한다는 이야기가 퍽 호기심을 끌었다. 개원한 지 몇 년 밖에 되지 않아 일타 스님 등 쟁쟁한 스님네가 계신다는데 나도 동참하고 싶었다.

스님의 개안(開眼)은 희양산 봉암사 조실을 지냈던 서암(西庵) 스님과 함께 정진을 할 때에 한 스님은 산에서 내려오고 한 스님은 산으로 올라가는데 눈이 서로 마주치자 이미 과거의 그 범부 중생이 아님을 간파하고 서로 인가를 하였다는 일화가 선방 지대방에 전해온다. 불불상견(佛佛相見)이라, 부처가 부처를 알아본다는 법문 말씀 그대로인 것이다. 〈끝〉

氣 행운의 달마 · 관음 · 지장 순금카드 氣
열쇠고리 직접 · 주문 · 제작 전문









▶ 999% 순금, 뒷면에는 고객이 원하시는 각종 글씨, 그림 주문 제작이 가능합니다.
▶ 소량의 주문이라도 특판가격으로 보시하겠습니다.

♣ 삼재소멸 ♣ 학업성취
♣ 소원성취 ♣ 사업성취
♣ 건강부

마야불교사에서는
불 보살님의 자애로운 마음처럼
불사 판매 사업에 임하고 있읍니다.

취급품목 불상, 탱화, 단청, 불단, 법보시용품, 출판 기타 불사상담, 사찰정보

■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2동 932-9 (반월당 보현사입구)
■ 전 화 : 053)256-6555 팩 스 : 053)256-6555 (현대불교 대구 반월당 보급소)
휴대폰 : 011)507-6550

天蓊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堂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처)
하중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秉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용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0047

사진으로 보는 연등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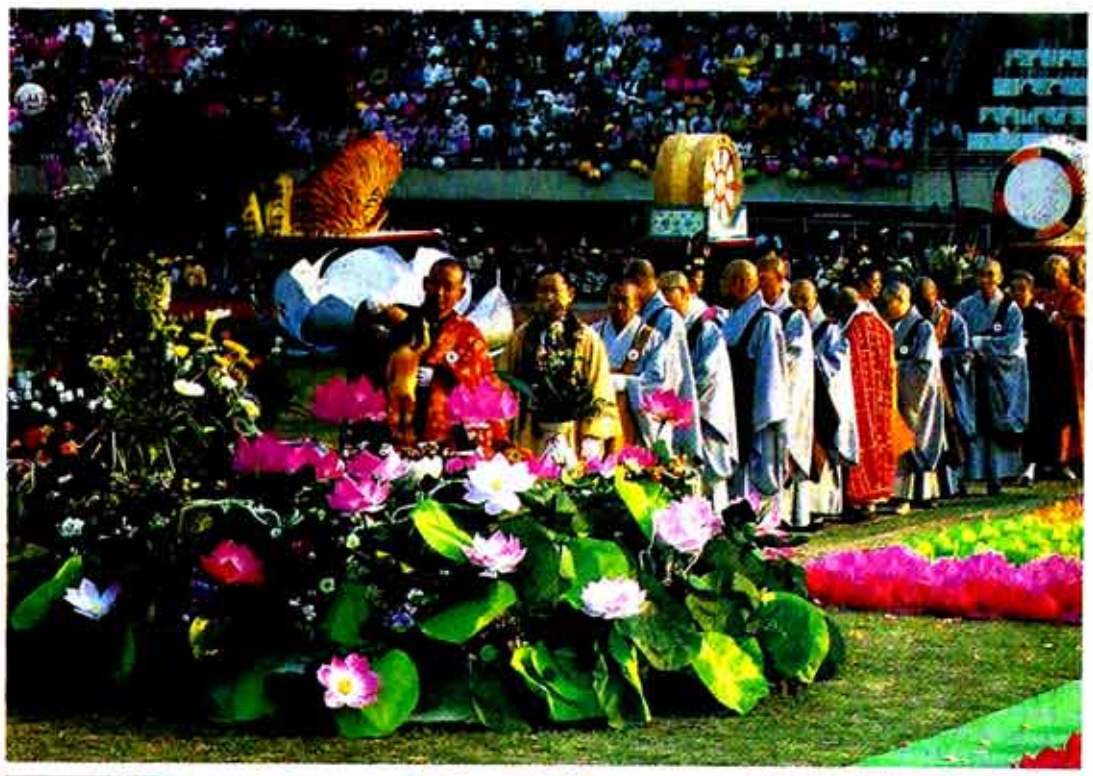
불기 2544년 연등축제가 7일 조계사 앞 우정국로와 동대문운동장, 종로거리에서 연등법회와 문화행사, 공연 등으로 낮12시부터 밤 11시까지 화려하게 펼쳐졌다. '부처님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연등축제는 부산과 대구 광주 등 전국 60여개 도시에서도 펼쳐져 부처님 오신 뜻을 되새기고 이웃에 회향하는 불자가 되기를 서원했다.



시청앞 조형물 '아기부처님과 구룡'을 형상화한 조형물이 올 부처님 오신날 서울시청 앞 광장을 장엄했다. 아홉 마리의 용이 향수를 뿌려 아기부처님을 목욕시키는 모습이다. 높이 15m, 지름 13m의 원형으로 지금까지 설치한 시청앞 조형물 가운데 가장 크다.

장애인과 함께 소팩새마을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불자들도 제등행렬에 동참, 종로거리를 밝혔다.

"환하게 태어나신 부처님





관불의식 연등법회에 참가한 13개 종단 총무원장들이 신도들을 대표해 부처님 관불(灌佛) 의식을 봉행하고 있다.

소년소녀의 찬불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어린이합창단은 4~5일 대구 동아백화점 수성점 광장에서 소년소녀가장 돕기 자선공연을 펼쳤다.



3천배 통도사 부산포교원은 6일 부산역에서 50명의 스님과 5000여명의 신도가 참석한 가운데 삼천배 철야 정진법회를 거행했다.

이 모 저 모

시민참여 프로그램 단연 인기

○…12시부터 우정국로, 거리행사에는 30여개 사찰과 불교단체에서 준비한 33가지 행사가 펼쳐졌다. 상현불탑 만들기, 연등 만들기, 전통사찰음식 시식, 청소년 댄스경연대회 등 불자들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단연 인기.

특히 외국인들은 우리 전통문화에 큰 관심을 보였다. 장승깎기 시범장을 찾은 외국인들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기에 바쁜 모습. 미국인 엘렌양(27)은 "큰 통나무가 금방 조각으로 변하는 것을 보니 신기하다"며 "한국 사람들의 재주에 감탄했다"고 즐거워했다.

외국인 등만들기 대회 '성황'

○…국제포교사회가 주최한 외국인 등만들기 대회 우승의 영예는 캐나다인 엘리나(28)와 캐서린(27)이 안았다. "상을 받으니, 즐거움이 두 배네요." 연등축제에 처음 참가했다는 이들은 서툴지만 정성을 가득 담아 만든 연등과 부상으로 받은 편액을 내보였다. 캐서린은 "이틀 동안 관광가이드를 따라 고궁 등을 다녔지만, 이런 생동감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1백여명이 참가한 외국인 등만들기 대회에서는 이들 외에도 12명의 외국인이 상장과 부상을 받았다.

달라이라마 방한 서명운동

○…불교단체의 홍보관은 달라이 라마 방한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활기를 띠었다. 달라이 라마 방한 추진 서명, 외국인 노동자돕기 바자회, 탈북난민 물품 전시회, 강원도 산불피해 돕기, 지리산 댐 백지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인 달라이 라마 방한 추진 범불교대책위, 경찰련 외국인노동자모임, 좋은벗들,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등의 부스에는 시민들과 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불교댄스그룹 큰 박수 받아

○…비전향장기수의 북송을 촉구하는 제2회 불교인권문화제에서 유진 박은 연주 도중 바이올린 줄이 끊어질 정도로 열연했으며, 첫선을 보인 불교 댄스그룹 '도리도리'가 '오계'와 '사랑의 문'을 불러 관중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주관단체인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의장 청화, 불교장기수후원회 대표 성관스님, 나눔의집 원장 혜진스님과 일본군위안부 할머니, 비전향장기수 30여명과 시민 500여명이 참석.

김대통령 영상 축하메시지

○…동대문운동장에서 열린 연등법회는 오후6시 부처님 이운 및 관불의식, 김대중 대통령 영상 축하메시지, 남북공동발원문 및 기원문 낭독, 행진선언 등으로 1시간여 동안 장엄하게 진행.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법등스님은 경전봉독을 통해 "환하게 태어나신 부처님 처음 오르는 해와 같아라…부처

몸을 다스리는(治身)

자/연/건/강/식/품

몸이 없으면 사람 아닌 귀신(神)이고 몸이 있으면 사람이다. 사람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아 태어났으므로 사람의 근본이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효(孝)가 백행(百行)의 근본, 천하의 대본(大本)이 되며 효, 그 다음이 충성, 의리, 신의가 된다. 몸이 음식을 먹고 소화와 배설을 잘하는 것이 바로 몸을 잘 다스리는 것(治身)이다. 몸을 잘 다스리면 괴로도 없고 병도 없으니 신진대사가 원활하여 몸이 건강해진다. 몸을 다스리는 치신(治身)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治世)과 똑같다. 몸이 있어야 수신(修身:몸을 닦는 것)을 할 수 있고 수신을 잘하여 도(道)를 깨달은 분이 성인(聖人)이니 성인이라야 제가(齊家:집을 다스림)·치국(治國:나라를 다스림)·평천하(平天下:세계를 평화롭게 함)를 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야 오복(五福) [첫째 수(壽:건강과 장수)·둘째 부(富:부와 귀)·셋째 강녕(康寧:편안함)·넷째 유호덕(攸好德:덕을 좋아함)·다섯째 고종명(考終命:잘 죽음)]을 다 이룬다. 사람은 잘 살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복의 첫째가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수(壽)가 되고 마지막이 편안하게 잘 죽는 고종명(考終命)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을 잘 치신(治身)하여 몸을 잘 닦아 도(道)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권력, 재산, 명예, 무병장수를 얻으려면 질이 좋은 자연건강종합식품을 먹고 몸을 잘 다스려 몸을 잘 닦아서 도를 깨달아야 된다.

「불로화정(不老化精)」·「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 등 「치신(治身)자연건강종합식품」은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方丈山)인 지리산에 있는 본사 식품제조공장에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본포

불로화정(不老化精)



산중 사찰의 스님을 위한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은 시연스님이 40여년전 은사 큰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흑염자(검은 깨)와 감식초 외 100여종의 첨가물 **[전부 우리 농산물]**을 3년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은 노소(老少), 체질에 상관없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이 호전되어 노화가 억제되며 위염·소화불량·설사 등 위장질환이 치료되며 2개월만 복용해도 다이어트 없이 배불리 먹어도 비만이 안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펴지며 다량의 음주에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피로를 모르는 건강을 만들어 준다.

가격	정가 70만원(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분에게 50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구입문의 : 053)655-2227 (011)808-8880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예금주 : 대구여래원

효성양방·한방병원 무료치료안내

말기 암환자도 치료하는 기적의 치료술!!

천하의 명산 울산 가지산(경남도립공원) 자연공원안에 의료법인 태영재단은 현재 380억원을 투자하여 9만평의 대지위에 노인복지 시설인 효성노인병원, 양방·한방병원 300병실과 104실의 실버타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효성양방·한방병원 부분전경

말기 암환자도 치료하는 기적의 치료술!!

진보덕화 보살은 하루에 밤낮으로 중생의 고난을 구해주시는 천수관세음보살의 공덕을 찬탄하고 온갖 죄업이 소멸하는 대비주(大悲呪 : 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다라니의 준말)을 천번 읽고 무릎이 썩고 고름이 나도 하루 3천배를 하면서 3년간 기도정진 하니,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시어 침과 약초를 받은 후에 인연이 있으면 어떤 어려운 병도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말기 암환자도 이틀을 치료하니 본인이 알 정도로 진통도 없어지고 음식도 먹고 잠도 자게 되어 일주일 치료한 후에 완치된 기적도 있습니다.

이번에 본 병원에서 말기 암환자를 무료치료 하오니, 전국의 불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단, 완치된 분은 앞으로 본 의료법인의 시설확장과 대작불사에 거금보시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어야 합니다.)

의료법인 효성양방한방병원
이사장 김시연

(이사장 직통) 대구 ☎(053)655-2227 (011)808-8880 병원비서실 ☎(052)254-26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산 8-4

불자들은 또 "통일의 길이 험난해도 화합하고 협력해 기어이 통일의 길로 가겠다"고 다짐했다.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에서 펼쳐진 봉축행사를 사진으로 보며 우리들의 서원을 다시 되새겨본다. "일체가 모두 하나의 생명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모든 갈등을 치유하고 이 땅을 불국토로 장엄하겠다는 간절한 기원을 섭수하여 주옵소서."

사진으로 보는 연등축제

온갖 괴로움 건져주시네"

님은 자혜의 배 타고 오셔서 온갖 괴로움에서 건져주시네"(붓다차리타)라며 부처님 오심을 찬탄.

올해 연등법회는 아기부처님 이운 및 관불의식을 추가해 행사를 여법하게 장엄했다. 관불의식에는 정대 조계종총무원장을 비롯 13개 종단 총무원장과 조계종 중앙신도회 백창기 회장, 송석구 동국대총장, 손현수 전국산악인불자연합회장, 박준영 청와대불자회장이 신도들을 대표해 차례로 참여했다.

쓰레기 없이 치룬 연등법회

○…연등법회가 열린 동대문운동장 관중석 스탠드에서는 법회가 진행되는 동안 이름을 밝히기를 꺼리는 한 노보살과 여학생이 여기저기 버려진 쓰레기들을 주워 주위사람들을 잠시 놀라게 했다. 이를 본 불자들도 함께 쓰레기 줍기에 동참했고, 연등법회가 끝나자 조계사 학생회원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빈 관중석을 돌아다니며 말끔하게 청소해 불자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줬다.

시민들에게 등 2천개 보시

○…봉은사는 재등행렬을 하며 연도에 나온 시민들에게 각종 등을 보시해 눈길을 끌었다. 봉은사 신도들은 한달 전부터 재등행렬용 연등 2천개를 직접 손으로 만들었다. 이 등에는 재미있는 동자승의 모습을 비롯해 연꽃모양, 만(卍)자 형상 등의 불교 문양을 등에 그려넣었다. 또 T자 모양의 등걸이를 사용, 2개씩 등을 달아 어느 행렬보다 등이 많아 거리를 환하게 밝혔다.

젊은 불자들 사흥서원 회향

○…재등행렬이 우정국로에 들어서면서 연등축제가 막바지에 이르자 많은 불자들이 아쉬운 듯 행렬을 빠져나와 우왕좌왕했지만, 숙명여대 불교학생회원들은 동그랗게 둘러서서 사홍서원을 하고 회향. 초발심을 지키려는 젊은 불자들의 모습이 아름다웠다.

탑골공원 앞 다채로운 공연

○…재등행렬이 지나가는 동안 한마음선원은 탑골공원 앞에서 합창 수화 무용 댄스 연주 등의 다채로운 공연을 펼쳤다. 한마음선원 청소년학생회가 주축이 돼 마련한 공연인 만큼 학생들의 발랄함이 돋보였다. 공연장 옆에는 얼굴 페인팅과 매듭 만들기, 컵등 만들기 체험마당도 마련하여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연등축제 남-북 함께 했으면"

○…연등축제의 대미를 장식한 회향한마당에는 밤 11시 가까운 늦은 시간임에도 13개 종단 총무원장과 5천여명의 불자들이 동참했다. 발원지 소지(燒紙)의식, 풍등(風燈) 날리기에 이어 오색 폭죽이 밤하늘을 수놓고 꽃비가 날리는 가운데 참가자들은 함께 강강술래를 하며 아쉬움을 달랬다.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남과 북의 불자들이 함께 연등축제를 봉행하는 그 날이 어서 오기를 기원하자"고 당부했다.

〈봉축특별취재단〉



연꽃잎등 행진 한마음선원 스님과 신도들이 창작등 경연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한 연꽃잎등을 높이들고 행진하고 있다.



연등만드는 외국인 연등만들기는 외국인에게 가장 인기를 끈 프로그램. 국제포교사회가 마련한 외국인 연등만들기 대회에는 1백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DDR 대구봉축위원회는 7일 두류공원에서 네박자 가족 DDR 붐내기 대회를 개최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지혜와 자비로 부산불교연합회는 4월28일 1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연등축제 봉축 점등법회를 봉행했다. '지혜와 자비로! 부산과 함께' 라는 2천여개의 촛불을 밝혀 서원과 바람을 담아 내는 화합의 자리를 마련했다.



불교인권 문화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주관으로 7일 종로에서 열린 제2회 불교인권문화제. 비전향장기수 30명등 5000여 시민이 함께 했다.



부처님 협동화 그리기 대구 남구사회복지관은 7일 두류공원에서 가족·친구가 함께하는 '아기 부처님 협동화 그리기'를 개최했다.



"경사로다" "온누리의 경사로다. 사월이라 초파일 봉축하세." 동대문운동장에서 연등법회에 앞서 진행된 어울림마당에 참여한 불자들이 두 손을 흔들며 즐거워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불자약사 보리회

매월 무료투약 1000명

◈ 장 소 : 탑골공원
◈ 일 시 : 매월 둘째주 日요일 10 : 30 ~ 4시
◈ 문 의 : 02)959-3298

후원회 자동이체 환영합니다.

- 서울은행 16704-0596413
- 외환은행 131-19-42978-6 예금주 : 유효순
- 주택은행 492325-01-015656

귀의 삼보하옵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속에
피도 치는날, 바람부는 날이 어디 한 두번이겠습니까?
그런날 조용히 닷을 내리시고 오늘일 잠시 멈추시고, 낮은 곳에 물어주시지요.
그동안 저희 불자 약사보리회에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 5월 11일 현재 2만 여명 상당에 무료투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료법률상담에는 김형주 법무관님께서 애써주시고, 종교 상담에는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사단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것은 불보살님의 가피와 여러분의 일일구좌, 또는 각 제약회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가 주도하는 일들이 부처님께서 더욱 일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으며 밝고 맑은 향기로 자비에 등불 밝히시고 마음 밝혀 소원 이루소서.

나무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불자 약사보리회 일동
회장 나 청자 합장

아... 봤다! 저 깊은 곳 내 존재의 근원
禪공학, 아봐타 코스에 초대합니다.

이번 코스가 열릴 봉인사 한길정진원은 현대적 수박시설을 갖춘 자연경관이 빼어난 수련장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의식개발 프로그램 아봐타로 뜻대로의 삶을 창조하십시오.

<체험단편>

- 지금부터의 내 삶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창조할 수 있어 기쁘다. .....(불교학 박사과정 수료)
- 내가 나이던가, 내가 나이던가? 사리분별 끝고 보니 이 세상에 태어났음이 참시 잠난 이었던 것을.... (여가불자)
- 건강과 행복을 자급자족할 수 있다니... 살라만살이 모두 내 안에 만든 내 밥이었다. (약국경영)
- 내 삶의 창조자로서 모두를 포용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것. 창조와 경험, 그것은 내 삶의 창과 방패. (기치료센타 운영)
- 뜻대로 사는 길이 열렸다. 모두와 함께하는 이 기쁨, 환희(주부)
- 원치 않는 삶 끈, 원하는 삶 시작(언론인)

▶주 최 : 의식개발 연구소 서울 아봐타 센터
▶홈페이지 : www.myhome.netsgo.com/cdikr
▶e-mail : cdikr@netsgo.com
▶장 소 : 봉인사 한길정진원((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송릉리)
▶기 간 : 2000년 5월 24일 오전11시 ~ 31일 오후6시 (7박 8일)
▶인 원 : 20명이내
▶코스지도 : 이상구, 오진은, 이재호 (아봐타 마스터)
▶참 가 비 : 170만원(숙식제공)
※ 아봐타코스 복습자는 40만원(숙식포함)
※ 서울 경기지역 참가자는 봉근식 참가도 가능합니다.
▶신 청 : 의식개발 연구소 서울아봐타센타 (02)572-1673
봉인사 한길정진원 (0346)574-5585

봉인사 한길 정진원 합장

연밥 (연꽃씨) 을 드셔 보셨나요?

일반적으로 연밥은 풍부한 녹말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아미노산 조성분인 리신이 상당량 포함된 양질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
인더스 문명 유적에서 연꽃 장식이 출토되었고, 불교전래 이전의 고대인도에서도 이미 다산(多産)이나 생명(生命)연장(延長)의 상징 또는 대지와 그 창조력, 신성의 상징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더러운 진흙 속에서도 청순한 꽃을 피우는 연(蓮)을 극락정토(極樂淨土)라 하는 견해도 있어 불교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味甘無毒養氣力	맛이 달고 독이 없으며 기력을 돕는다
除百疾補五臟	인체의 온갖 병을 낫게 하는데 도움이 되며
止渴益神安心	오장을 보호하고 갈증을 멈추게 한다
多食令人喜	정신을 좋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며
	많이 먹으면 몸이 좋아진다

- - - 동의보감 탕액편 중에서 - - -

補中, 益氣, 止血, 治痢 등의 효과가 있다. 기운을 더해주고 몸을 보신해주고 지혈작용과 질병을 다스리는 효험이 있다

- 삼성출판사 새 우리말 큰사전 중에서 -

1Kg포장속에는 알곡원형이 유지된 상태에서 속심과 껍질을 완전하게 제거된 상태입니다. 알곡이 파손되지 않은 상태가 15000여개가 들어있으며 충분히 물에 불리신후 사찰이나 가정에서 밥지으실 때 콩개념으로 넣어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제품안내	3Kg	36,000원	각각 포장되어 판매
	5Kg	55,000원	
	10Kg	105,000원	

예금주 : 기업은행 (377-009547-04-018) 인창 물산
농 협 (217028-52-013565) 여진구

구입문의
인 창 물 산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573-25
(0344)907-2567, 906-5691-2

佛紀 2544年 (庚辰年)
부처님 오신날

發願已歸命禮三寶 새 천년 불국토

佛紀 2544年 (庚辰年)
부처님 오신날

금강경 독송회

지도법사 김 재웅

사부대중일동

■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131-80
TEL : 02)742-0172

기원정사

주 지 도 영

신도일동

■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2동 79-116
TEL : 02)736-0367

고려산 불광사

주 지 강 자현

정토종 신도일동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153번지
TEL : 032)932-8083

대한불교조계종

강화 선원사

팔만대장경 판각성지사적29호

조 실 운 호
주 지 성 원

신도회장 조원대, 배발심화 합장

사부대중 일동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지산리692-5
TEL : 032)933-8234/8834
■선원사 한증막,기와황토불 한증막(무료운영)
TEL : 032)933-8985

금강산 약수암

주 지 보 혜

신도일동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234-1
TEL : 0392)682-1933

새천년불국토

한국불교 태고종 금강사

주 지 덕 산

사부대중 일동

■ 서울시 강서구 화곡4동 842-5
TEL 02)2649-0888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법인 능인선원

주 지 지 광

재단법인 능인불교선양원
대한불교조계종 국녕사

신 도 일 동

■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55번지
TEL : 02)577-5800
FAX : 02)577-0052

대한불교 조계종 노적사

주 지 석종후

신 도 회 일 동

■ 경기도 고양시 북한산성 내
TEL : 02)353-5016, 4924
FAX 02)386-4198

대한불교조계종

각 원 사

남북통일기원 청동대불봉안도량

주 지 신법인
총 무 서대원

대 중 일 동

■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 98-83
TEL : 0417)561-3545
FAX 0417)556-1425

대한불교 조계종 국녕사

신 도 일 동

■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55번지
TEL : 02)577-5800
FAX 02)577-0052

만불(지장보살)조성 도량

대성사 원융원

주 지 법 신

신 도 일 동

■서울시 중구 신당4동 340-8
■경기 가평군 외서면 하천2리 2번지
TEL : 0356)584-1541 (대성사)
02)2237-9796 (원융원)

마이산탑사

주 지 이왕선

신 도 일 동

■ 전북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8
TEL : 0655)433-2900/433-0303

대한불교 조계종 만의사

관음도량

주 지 김성직

신 도 일 동

■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중리 140
TEL : 0339)376-6005

대한불교 조계종 법장사

광복 제일의 포교와 기도의 절

주 지 퇴 휴(법장)

영산불교대학 일요가족합동협회

■서울시 중랑구 묵1동 25-4 신내4 단지
■봉화산 약수터 입구 중랑도서관 체육관 옆
TEL : 02)971-0303
02)947-3111

전통문화 도예 연수원

무애원 표교당

원 장 설 봉

신 도 일 동

■포교당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6동 3611
■가마요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548-1
TEL : 02)846-2156
032)932-5087~8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망 해 암

주 지 법 두

봉사회 일동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산 19번지
TEL : 0343)443-5559

한국불교 무량종

무량정사

주 지 령 관

신 도 일 동

■ 서울시 종로구 홍지동 76-2
TEL : 02)3216-1600

불광불교 미술원

원 장 박갑용

■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하천리 418-4
TEL : 0356) 584-3952
핸드폰 : 011) 216-4848

무 학 사

주 지 해 암

무학회 관음회 일동

■ 서울시 중구 신당1동 304-188
TEL : 02)2238-8872 / 2235-9900

한국불교 정토종

불 광 사

주 지 강자현

한국불교정토종 표교원장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153 (진고개)
TEL : 032)932-8083

한국선불교대불종 총본산

사회복지법인 법수사

회 주 의 성
주 지 법 수
총 무 혜 월

사부대중 일동

■ 충남 천안시 목천면 신계리 303-1
TEL : 0417-555-3243

대한불교 조계종

법 계 사

주 지 환 암

신 도 일 동

■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동 212-2
TEL : 053)768-2251

대한불교 조계종

백 운 암

주 지 본 우

신 도 일 동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210번지
TEL : 0371)763-1514
FAX : 0371)763-1528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진관사

주 지 진 관

사부대중 일동

■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1번지
TEL : 02)359-8410

지장기도 참회도량

삼학산 약천사

주 지 허 정

사부대중 일동

■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동패리 1070-1
TEL : 0348)942-3880

적멸보궁

사자산 법흥사

주 지 도 완

신도일동

■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법흥리
TEL : 0373-374-9177
FAX : 0373-374-9178

대한불교 조계종

선산 원각사

주 지 대 혜

부설 : 원각불교 교육원

■ 경북 구미시 선산읍 노산리 159
TEL : 0546)481-2363

(사)대한불교법사회

성보사 포교원

원 장 구윤희

신 도 일 동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99-28
TEL : 02)381-1234/2727
FAX : 02)371-1065

상계동 문수사

현정스님 합장

신 도 일 동

■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154-5호
TEL : 02)934-6146
휴대폰 : 011)320-1209

대한불교조계종

아차산 영화사

회 주 송월주
주 지 일 원

부설(관인)영화유치원

■ 서울시 광진구 구의2동 9번지
TEL : 02)444-4321 /444-7215

佛紀 2544年 (庚辰年)
부처님 오신날

發願已歸命禮三寶 새 천년 불국토

佛紀 2544年 (庚辰年)
부처님 오신날

정법 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향림사**

조 실 천 운
주 지 혜 향
신 도 일 동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251-3
TEL : 062)375-7600~1
FAX : 062)375-7602

대한불교 조계종 **원효사**

주 지 현 지
신 도 일 동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846
TEL : 062)266-0326

대한불교 조계종 **문빈정사**

주 지 석 장
신 도 일 동
※ 사찰에서 느끼는 감로 찻집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96
TEL : 062)222-2202

대한불교 조계종 **증심사**

주 지 영 조
신 도 일 동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56
TEL : 062)226-0107

대한불교 조계종 **무각사**

주 지 광 민
신 도 일 동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산1번지
TEL : 062)383-0108/0107

대한불교 조계종 **흥룡사**

주 지 상 운
신 도 일 동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23-1
TEL : 062)651-5083

대한불교 조계종 **법림사**

주 지 무 진
신 도 일 동

■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 649-1
TEL : 062)234-2207

대한불교 조계종
모악산 불갑사선원 **불갑사**

회 주 수 산
주 지 도 성
신 도 일 동

■ 전남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8
TEL : 0686)352-8097

부설 연화유치원
대한불교 조계종 **연화사**

주 지 명 신
신 도 일 동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448-35
TEL : 062)227-7295

선덕사 유치원
대한불교 조계종 **선덕사**

주 지 행 법
신 도 일 동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3동 241-16
TEL : 062)263-4660

대한불교 선각종 **지장암**

주 지 진 관
신 도 일 동
■전남 순천시 서면 학구리 468
TEL : 0661)755-0963

여수 지장암 포교원

■전남 여수시 중앙동
TEL : 0662)662-0968

대한불교 선각종 **자비암**

주 지 자 광
신 도 일 동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2동 50-9
TEL : 062)228-6230

대한불교 선각종 **억불암**

주 지 원보 진천 합장
신 도 일 동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584-48호
(용봉지구 현대3차 APT공원 옆)
TEL : 062)514-5789

대한불교 조계종
송 강 사

주 지 지 원
신 도 일 동

■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룡리 569
TEL 0652)243-8091 / 8681

광주 관음사 신용협동 조합

임 직 원 일동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동 4가 541-1
TEL : 062)224-1883,1921
FAX : 062)226-3757

불교식 장례는 불자들손으로
광주불교 능인회

· 사단법인 광주불교 능인회
· 광주불교 능인회 새마을금고
· 광주불교 능인회 장의부

대 표 김두원
임 직 원 일 동

■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2동 484-4
TEL : 062)226-5161~3
FAX : 062)234-8485

사단법인
생명나눔 실천회 광주지역본부

본 부 장 영조스님
상임위원 오 자 섭
후원회장 김 초 희
감 사 김 이 중
회 원 일 동

■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1동 522-65 (3층
TEL : 062)234-6602

광주불교 교육원

광주불교문화대학
광주불교문화대학원

이 사 장 이 범 석
학장·대학원장 영조스님
학 인 일 동

■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봉산B/D 4층
TEL : 062)228-9098,234-6601
FAX : 062)228-9003

장례 문화의 혁신
병원 부설 **광주빛고을 장례식장**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저렴하고 아늑 한 호텔식 장례식장)

· 친절하고 편안한 장례식장
· 품질좋고 저렴한 장의용품 판매
· 종합장례 서비스제공
· 쾌적한 분향소 및 종교별 독립공간 제공

임 직 원 일 동

■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288-7
상담전화 : 062)2252-444

대한불교 조계종 **선원사**

주 지 일 화
선원사부설 연꽃유치원
문서포교원 깨 달 음
신 도 일 동

■ 전북 남원시 도통동 392-1
TEL : 0671)625-2946,631-0108

한국불교 태고종 **천명사**

회 주 성 관
주 지 지 명
신 도 일 동

■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20/10
TEL : 062)234-6203

한국불교 태고종 **금둔사**

주 지 지 허
신 도 일 동

■전남 순천시 낙안면 상송리 3-2
TEL : 0661)754-2954

한국불교 태고종 **세심정사**

주 지 지 암
신 도 일 동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558
TEL : 062)222-9442

한국불교 태고종 **대원사**

주 지 태 현
신 도 일 동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3동 201-1
TEL : 062)263-7294

한국불교 태고종 **율곡사**

주 지 혜 령
신 도 일 동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269-4
TEL : 062)263-4575

동곡사

주 지 혜 림
신 도 일 동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산188-1
TEL : 062)232-6995

영광사

신 도 일 동

■ 광주광역시 북구 청옥동 화암부락(평두메)
TEL : 062)266-6981

전수염불 도량 **정토사**

회 주 한 탑
주 지 혜 광
신 도 일 동

■ 전남 담양군 담양읍 학동2구 492-1
TEL : 0684)381-0108

군암산 **수덕사**

주 지 혜 명

■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2동 125-1
TEL : 062)263-0550~1

무등산 **칠원사**

주 지 혜 명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104
TEL : 062)222-1691

한국불교 태고종 **법륜사**

주 지 월 인
신 도 일 동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74-5
TEL : 062)375-7444

佛紀 2544年 (庚辰年)
부처님 오신날

發願已歸命禮三寶 새 천년 불국토

佛紀 2544年 (庚辰年)
부처님 오신날

대한불교조계종
보현정사
주 지 달 오
신 도 일 동
■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2동 22-120
TEL:051)861-0034

대한불교 본원종
성불사
주 지 혜 원
신 도 일 동
■ 부산시 사하구 신평1동 294-7번지
TEL:051)292-6818/294-1800

대한불교조계종
신허산 온하사
주 지 대 성
신 도 일 동
■ 경남 김해시 삼방동 882번지
TEL:0525)337-0101

대한불교조계종 고려선찰
만 덕 사
부산지방문화재 3호 만덕사지
주 지 금산 박 혜 명
신 도 일 동
■ 부산시 북구 만덕동 32-2
TEL:051)334-3009

부산여성불자회
회 장 왕 선 자
부회장 이윤옥 허영애 문남순
총 무 심춘자 류경자
재 무 하인자 심신애
감 사 이경월 이소연
이사·지회장·회원일동
■ TEL : 051)817-3166
FAX 051)809-3166

正法弘布를 위하여 進一步 昇一段하는
부산불교실업인회
회 장 최용원
고 문 강병중 서춘석
상임부회장 박수복 부회장 김유환 김중태
감 사 박수관 이근철 이상태
박영근 하문원
회원·마야부인회 일동
■ 부산시 동구 범일2동 830-293 삼환O/T907호
TEL:051)637-7174(대)
FAX :051)637-7176

세명식품
대 표 설 정 수
보쌈젓갈 및 각종젓갈
김장김치, 절임식품
제조원 (부산신허 제18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341-4번지
TEL:051)804-5989/817-5915

부산불교교육대학
제 5 기
회 장 노강용
교화부회장 정수복
섭외부회장 지정각
外 회원일동
■ TEL : 011)573-4398

법보종찰 해인사 부산포교원
명지사 명지장학회
주 지 수 인
<부설> 명지 불교교양대학
장학회장 강 영 택
신 도 일 동
■ 부산시 북구 구포동 1095-2
구남지하철역 앞 그린코아4층
TEL:051)342-1186/342-1188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지원
한마음선원
<부설> 불교복지보건 대학
지원장 학장 혜 도
신도일동 재학생일동
■ 선원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중리 522번지
TEL: 051)403-7077 FAX:403-1077
대학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1동 847-18
(건축사회관6층)
TEL: 051)647-6556/FAX:647-6554
인터넷(http://www.hanmaum.org)

대한불교조계종
청량사
주 지 현 업
신 도 일 동
■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445
TEL:051)271-2774

봉래산 미륭사
부산불교자비원(자비의전화)
불교사회문제연구소(무료법률상담소)
원장·주지 김정각
■ 부산시 영도구 동삼1동 323-194번지
TEL:미륭사 051)404-2100/4300
자비원 051)403-4848/4841
자비의전화 051)403-4861
FAX: 051)403-4860

유림한의원
원장 이 하 경
■ TEL : 051)467-5217

관음사출판부
늘기쁜마음 감사한마음
도서출판 보안
대 표 덕 운 (주영배)
불서 전문출판/불교용품기획,제작
■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1가 151-3번지
거상빌딩4층
TEL : 051)255-5675
FAX 051)255-5676

대한불교천태종
백양산 삼광사
주 지 박덕수
총 무 이갈지 재 무 김지도
교 무 박거홍 포 교 이개문
노 전 노길운 신도회장 안영일
신도부회장 이종화 신도여부회장 오귀분
사부대중일동
■ 부산시 부산진구 초읍동 산 131번지
TEL:051)808-7111~5
FAX:051)803-1332
인터넷 삼광사 (http://www.samkwangsa.org)

대한불교조계종
장산 성불사
주 지 성 산
신 도 일 동
■ 부산시 해운대구 우2동 1108-11번지
TEL:051)746-4800

대한불교 조계종
법륜사
대 중 일 동
■ 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391-28(7/4)
TEL:051)741-5040

부산불교교육대학
이 사 장 벽파스님
학 장 이 하 우
학사이전 (2000년 4월 22일)
시청, 경찰청옆. 불교회관 5층
■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2동 157-1
부산불교회관5층
TEL : 051)867-9944/867-9946

(사)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청년회
회 장 황국근
내무부회장 허경욱 외무부회장 안강수
연수원장 박규보 감 사 류상영
상무위원일동
부설 만해불교대학 학장 이춘기
■ 부산시 진구 양정2동 157-1부산불교회관5층
TEL : 051)851-5209 /FAX :851-5210
(부산시청, 경찰서옆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부산불교신도회
회 장 강 선 태
부회장 정재선 하도명화 김창석 박성빈 이영숙 임승남
감 사 서병혼 오양효 이정옥
外 이 사 일 동
■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2동 157-1
부산불교회관5층
TEL : 051)853-2021

한마음선원
법 형 제 회
회 원 일 동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중리 522번지
TEL: 051)403-7077
인터넷 :http://www.hanmaum.org

천보공업사
임 직 원 일 동
■ TEL: 051)315-2859

자비실천 봉사회 자비실천 찬불가회
회 장 한 영 옥
지도강사 금 정 미
찬불가, 가요, 가곡등을 무료지도입니다.
부처님 법향 가득한 찬불가 노래속에서
불심을 키울 분들을 기다립니다.
또한 자비실천봉사회를 결성해 양로원,교도소등을
방문 부처님 법을 전하는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펼치고자 하오니 대자대비를 실천하는
길에 무루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 TEL : 051)898-1547/011)859-1547

월간 맑은소리 맑은나라
「맑은소리 맑은나라」는 대중포교를 위한 불법홍포지로서 낮은 곳에서 힘을 키우는 참소리를 담아내는 문서포교지입니다.
부대사업 : 사찰사보 대행 발간
■ TEL : 051)464-0953/011)564-3725
FAX : 051)469-6628

사단법인
한나래문화재단
통도사 부산포교원
HANNARAE OUITURE INOORPORATED
■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1동 390-34
TEL : 051)816-2241
FAX : 051)806-2430

대한불교원효종 대본산
금수사
부 해동원효 불교대학
설 해동원효어산의식교육원
증 정 이법홍
주 지 송구산
학 장 전용만
신도회장 지재호 부인회장 김보원행
대중일동 재학생일동
■ 부산시 동구 초량4동 843
TEL:051)467-3316/462-0338
FAX:051)467-3316

건축사 사무소
일 탑
소장·건축사 박평섭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교리 343-2번지
TEL:051)722-4785/722-8639
FAX:051)722-4782

삼천불 봉안 불사도량
정토사
부설 정토불교대학
주 지 덕 진
신 도 일 동
■ 울산시 남구 옥동 803-5번지
TEL:052)274-3800

불교인쇄기획·편집전문회사
대한기획
불서출판, 각종회보 제작,
행사팜플렛 포스터
■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2동 333-1번지
TEL:051)865-7818
FAX:051)864-7075
E-mail:Daehana@chollian.net

서적·불교용품 전문점
부다가야
인터넷 불교서적
전문점 부다가야
■ TEL:051)865-4383
FAX:051)865-4821
인터넷:http://buddhagaya.co.kr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 FAX: (0343)470-3116

사랑분별 놓아야 진정한 자기 만나

초파일에 연등 밝히는 까닭

문 저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입니다. 4월 초파일에 연등을 밝히는 까닭을 알고 싶어서 대행 큰스님께 질문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답 우리가 한 번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겠지? 그러니 우리가 수많은 생을 거쳐오면서 얼마나 치열한 문제들이 많았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야. 일체 만물만생과 더불어 같이 구르면서 수레와 같이 굴러온 이 인생살이를 말이야.

그렇게 거듭거듭 태어나면서, 거듭거듭 오르고 내리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 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헤매고 돌았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인간의 몸을 받아서 이 마음공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감사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될거야.

그래서 한마음으로서 가정과 사회와, 일체 모든 만물만생과 더불어 같이 한 등을 켠다는 생각으로 마음의 불을 켜는 의미에서 연등을 밝히는 거야. 그러니 그렇게 지극한 마음으로 마음의 불을 켜는, 바로 그 등불이 봉축(奉祝)이 되는 것이지. 왜냐하면 일체(一切)와 직결된 나의 마음에 불을 밝힘으로써 위로는 조상님과 아래로는 일체 자손들의 마음에도 불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니까 말이야.

그래서 연등을 켜는 자체가 아주 귀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 왜냐, 내가 한생각을 어떻게 냈느냐에 따라서 불이 밝아서 사방을 훤히 밝히는 것이지 보이는 등불만 환하게 켰다고 해서 그게 불을 밝힌 것이 아니기 때문이야. 다시 말해서 등을 켠다는 것은 내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방편의 의식인 것이야. 그러니 수억겁을 이끌어 오면서 공부시키고, 진화시켜온 나의 근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극하게 불을 밝혀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고 허투루 한다면 그게 공덕이 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느 것도 하찮게 볼 게 없다는 거지. 일체 모든 것이 나의 마음에 불을 밝힐 수 있게 이끌어 주는 방편 아닌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 학생이 알기를 바래요.

너무 내말이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 뜻은 분명히 전달이 됐을 거라고 믿어. 그러니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이번 초파일에는 마음의 등을 켜기 바래.

이익주고 은혜 갚을 수 있는 길

문 큰스님 항상 감사합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마음공부를 하면서 이웃과 모두를 이익되게 할 수 있고 스승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답 일체제불의 마음은 항상 우리들의 마음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웃과 모두를 이익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마저 무조건 다 맡겨놓고 나부터 찾아요. 나부터 믿고 나부터 알아야 해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누구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전부 맡겨 놓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가지가 있고 잎이 있듯이, 무엇을 하든 자기 뿌리를 믿고 거기에 모든 것을 맡기다보면 저절로 은혜도 갚게 되고 또 모두를 이익하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꿈-가상공간-현실의 차이점

문 스님, 저는 서울 종로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온통 가상공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가상이 현실과 너무 흡사하여 마치 그것이 현실인 줄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가상공간 속의 수많은 적을 공격하기도 하고 공격당하기도 하고 가상공간 속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상공간도 동일한 마음작용으로 분명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꿈과 가상공간, 그리고 현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일체가 마음에서 벌어지는 것이지 마음 이외에 다른 곳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꿈이다, 현실이다, 가상공간이다 라는 말이 붙을 사이가 없이 공해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본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살기 때문에 본래 자동적인 컴퓨터로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것이 주어지든 내 마음대로 넘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無無亦無'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없고 없고 또 없다고 하는 뜻은, 뒷발자국도 없고 앞 발자국도 없고 현재 떼어놓는 발자국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할 때 나라고 할 수 없고 저거 할 때 나라고 할 수 없으니 어느 것 할 때 내가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찰나찰나 바뀌어가는 것인데 지나간 발자국이 좋고 감사한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붙잡고 있으려고 해서는 안되지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올 것을 미리 걱정하고 있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자유스럽게 걸어가야 할 발걸음을 붙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깐요.

그러니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 진짜다 가짜다 하는 그 천차만별의 이름들, 천차만별의 모습들 천차만별의 마음으로서 생활하고 연구하고 사는 그 모습들이 모두가 부처님 한마음에 들어 있으니, 그 마음 하나에서 천차만별의 가지가지가 다 풀려서 나온다는 것만 아신다면 어디에 갖다 세워놔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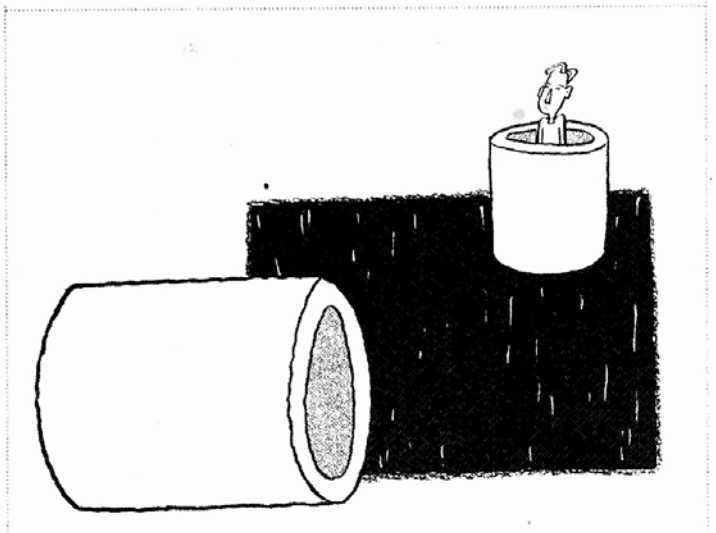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나부터 알아야 이웃에 이익 줄 수 있어

일체의 사는 도리 한마음에서 나와요

세상 얘기 잘 알아듣지 못해

문 스승님! 길을 가던 중에 세상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보니 알아듣지도 못할 뿐더러 한 사이도 없습니다. 틀림없이 다른 세상에 와 있긴 한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혜가 모자란 탓으로 내려가는 방편을 모르겠습니다. 그냥 놓고 가겠습니다.

답 이것도 저것도 다 놓아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가운데서 그대로 여여하게 사십시오. 왜냐하면 이것 저것 따지게 되면 아주 산란해집니다. 양면을 다 놓으십시오.

이 모습을 가지고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리고 고정됨이 없이 공해서 돌아가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자고 깨고 자고 깨고 하는 건데, 자는 걸 버릴 수도 없고 깨는 걸 버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 한꺼번에 그냥 다 맡겨놓으세요. 그렇게 부지런히 안을 다스리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두고 뛰게 되면 영원한 양식을 얻을 겁니다.

불행 잇따르는 집안 내력

문 나태해지고 분별심만 늘어가는 제 자신을 우선 참회하고 스님께 한 말씀 여쭈겠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가 있는데, 집안의 내력이 너무 딱합니다. 어머니는 미혼모로서 후배를 낳고 몇 번의 결혼실패를 경험하셨고 후배의 큰 이모부는 정신이상으로 가출하셔서 실종되셨으며, 막내 이모는 젊은 나이에 병으로 돌아가셨고 둘째 이모와 막내 외삼촌도 이혼과 파산의 와중에 계시는 등 듣기에도 너무 불우한 가정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관하는 법을 후배에게 일러주려고 했지만, 후배는 기독교가 모태신앙이어서 절대자 하나님과 스스로가 돌이 아니다라는 도리를 수긍은 하면서도 웬지 하나님께 불경죄를 저지르는 동시에 기독교를 열심히 믿는 가련한 어머니를 배신하는 것 같아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심성이 참 곱고 정의감이 강한 후배인데, 옆에서 별 도움을 주지 못하니 제 수행의 부족함을 한탄할 따름입니다.

위와 같은 불행한 가정사의 원인은 어디 있는 것인지, 목말라 하는 후배에게 물 한 그릇 떠 줄 수 있는 도리는 무엇인지 깨침의 말씀을 일러주십시오.

답 일체 만물만생의 생명을 일러 불(佛)이요,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배우고 느끼고 연구하고 지혜가 넓어지고 창조해나가는 것을 교(敎)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불교라는 것은 진리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어느 한군데 국한돼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주님을 찾든 주인공을 찾든 각자 자기 마음속에 중심이 있고 자기로 인해 세상이 벌어진 걸 안다면, 모두가 하나로 들어가는 진리임을 알 것입니다.

그 후배한테 주님은 네가 있는 이 자리에 항상 함께 하는 것이니 네 마음 안으로 주님을 찾으라고 일러주세요. 예수님은 '각자' 소리를 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딱 막혀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자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자기 마음은 믿지 않고 예수님 형상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오직 안으로만 주님을 찾을 수 있다면 어머니도 배신하지 않고 자기 근본도 배신하지 않으면서 공부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바깥으로 끄달리지 말고 안으로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면 자연히 자신 스스로 알아가게 되는 거니까 지극하게 마음 안으로 이끌어 주세요. 이름은 달라도 진리는 하나니깐요.

통 밖으로 나오는 방법

문 지극한 마음으로 큰스님께 삼배를 드립니다. 통 밖에 나와야 통을 굴린다는데 통 밖으로 나오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방편이 있으면 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뭐니뭐니 해도 생각에서 벗어난다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는 모양입니다. 통 밖으로 벗어난다는 것은 곧 차원이 높아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어렵기도 하겠지요. 어른이 되어서야 아이 적의 행동이나 생각이 철이 없었음을 알게 되듯이, 마음의 차원이 높아져야만 자기가 살아오면서 행했던 모든 것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주인공을 발현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모습이더라도 반드시 통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어딘가가 부족하고 갇혀있는 것 같아도 관념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럴 뿐이지 언젠가는 통 밖으로 벗어나서 통을 자유자재로 굴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늘 통을 벗어나야 통을 굴릴 수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통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생각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서 훌쩍 벗어난 뒤에 보면 그 동안 애지중지 아껴오던 내 생각 얼마나 우스운지 모릅니다. 저까짓 걸 가지고 내가 그토록 집착을 하여 남과 다투고, 스스로 업을 짓고 고를 지었구나 싶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통 밖으로 나올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기의 생각과 관념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기의 차원을 계속 높여갈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은 언제나 내가 말하듯이 양편을 다 놓는 것입니다. 사랑과 미움, 좋음과 나쁨 등 이것 저것 사량분별하는 마음을 모조리,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내려놓아서 그것들이 흔적도 없이 되었을 때 우리는 통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계가 물질만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물질의 안과 밖에 그 물질을 있게 한 원인(心)이 살아 있음을 육안이 아닌 심안(心眼)으로 보게 됩니다.

또한 통 밖으로 벗어날 때 우리는 진정한 자기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를 벗어남으로써 진정한 자기를 만나고, 자기를 죽여야만 진정한 자기가 사는 도리가 이것입니다. 자기를 벗어나고 자기를 죽이자니까, 온갖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다 놓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곧 중도행입니다. 그런 중도행을 해나가노라면 어느 사이엔가 여러분은 지금의 여러분과는 아주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태아가 정상발육 안돼요

문 주인공을 알게 해주신 큰스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합니다. 경계가 닥쳐올 때마다 주인공을 느끼지 못했다면 어디에 의지하고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다음달에 출산예정인 임산부입니다. 유산을 한 번 했던 관계로 이 아이는 부처님이 주신 아이니 정성껏 키우겠다는 마음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병원에

☞ 24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佛紀 2544年 (庚辰年)
부처님 오신날

發願已歸命禮三寶 새 천년 불국토

佛紀 2544年 (庚辰年)
부처님 오신날

大韓佛敎 曹溪宗
한마음선원(禪院)

원 장 대 행
주 지 혜 원

사부대중 일동

▶ 본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2
▶ 전화 : 사무처 (0343)470-3100
팩 스 (0343)470-3116

● 국내지원 ●

● 한마음 광명선원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4구 산5-2 Tel : 0446-877-5000/0462 Fax :0446)883-7171
● 제주지원 제주도 제주시 영평하동 1500번지 Tel : 064-721-4662 Fax :064)721-0302
● 부산지원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522-1 Tel : 051-403-7077 Fax :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시 서구 치평동 201-5 Tel : 062-373-8801~3 Fax :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451-17 13블럭 9-2노트 Tel : 052-284-0884 Fax :052)244-0182
● 대구지원 대구시 수성구 중동 532-274번지 Tel : 053-767-3100 Fax :053)765-1600
● 중부경남지원 경남 김해시 진영읍 방동리 329-1 Tel : 0525-342-6630/6639 Fax :0525)346-2179
● 진주지원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50 Tel :0591-746-8163, 744-1321 Fax :0591)746-7825
● 대전지원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344-21 Tel : 042-532-1481 Fax :042)526-0891
● 포항지원 경북 포항시 상도동 18-99 Tel : 0562-275-3163 Fax :0562)274-3503
● 청주지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동 833 Tel : 0431-259-5599 Fax :0431)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송정동 989 Tel : 0391-651-3003 Fax :0391)652-0281
● 통영지원 경남 통영시 도천동 113-3 Tel : 0557-643-0643 Fax :0557)643-0642
● 목포지원 전남 목포시 상동 952-19 Tel : 0631-284-1771 Fax :0631)284-1770

● Overseas Branch 해외지원 ●

-U.S.A (미국 지원)
● New York (뉴욕플러싱 지원) 144-39.32 Ave. Flushing NY.11354 Tel : 718-460-2019 / Fax : 718-939-3974
● Washington (워싱턴 지원) 7807 Trammell Rd. Annandale VA. 22003 Tel : 703-560-5166 (Fax겸용)
● Los Angeles (LA 지원) 210N Catalina St. L.A.CA. 90004 Tel : 213-382-1711 / Fax : 213-386-8852
● Chicago (시카고 지원) 7852 N.Lincoln Ave.Skokie IL. 60077 Tel : 847-674-0811 / Fax : 847-674-2280
-CANADA (캐나다 지원) 20 Mobile Dr. North York, Ontario M4A 1H9 CANADA Tel : 416-750-7943 / Fax : 416-750-3091
-ARGENTINA (아르헨티나)
● Buenos Aires (부에노스 아이레스 지원) Miro 1575 CP406 Rep. Argentina Tel / Fax : 5411-4921-9286
● Tucuman (뚜꾸만 지원) Av. Aconquiza 5250, El Corte, Yerba Buena, CP4107, Tucuman, Argentina Tel / Fax : 54381-425-1400
-GERMANY (독일 지원) Broicherdorfstr. 102, 41564 Kaarst, Rep. of Germany Tel : 49-2131-969551 / Fax : 49-2131-969552
-Thailand (태국 지원) 43 soi pattanavet Sukhummvit 71 Bangkok, Thailand Tel : 662-711-2005 / Fax : 662-391-6425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 FAX: (0343)470-3116

한 생각 잘 내는게 불 켜는 일과 같아

☞ 23면에서 계속

갔더니, 초음파로 진단한 아이의 크기가 정상적인 아이보다 2주정도 발육이 느리다고, 건강하다는 말을 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위해 제가 어떤 마음을 내야 할지 큰스님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제 뿌리만이 제 나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죠? 퉁그러진 뼈가 제자리에 가서 앉을 수 있는 것도, 태가 잘못 들어앉았다가 제자리에 가서 앉아 임신이 제대로 되게끔 될 수 있는 것도, 몸을 마음대로 움죽거리게 하는 것도 자기 뿌리입니다. 자기 주인공 뿌리만이 움죽거리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열심히 관하세요. 관하라는 거는 몸뚱이 속의 생명들이 그 통신을 받아야 작용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모든 소임을 맡아가지고 있는 공장장에게 생명들이 명령을 하달 받으려면, 통신을 받으려면 마음속에서 대뇌로 올라가서 정수에 입력이 돼야, 그 입력이 사대로 통신이 돼서 바로 현실로 나오게 됩니다.

좀더 쉽게 말하자면 내 몸 안에 들은 의식들이 내가 주인공을 진실로 믿고 말길 때 통신이 되는 겁니다. 통신이 되면 그 안에서 통신을 받아 가지고 전부 작용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몸이 바뀌어질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기에게 닥치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거기에 모든 것을 맡겨 놓으면 어떤 애고도 불에 타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의학적이며 과학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당신의 자식이니까 건강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잖어?' 하고 열심히 관해서 진실로만 들어간다면 금방이죠. 이 멋진 묘법을 말로만, 이론으로만 알지 말고 진실한 실천을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백년해로 할 여자 찾기 힘들어

문 결혼을 하고자 하는데 정말이지 백년해로 할 여자를 찾기가 힘듭니다. 도대체 어떤 여자를 만나야 하는지 난감할 따름입니다. 도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답 길을 가다가 갑자기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면 누구한테 물고 부탁해야 합니까? 제 삼자가 대신해 줄까요? 모든 문제는 자기가 있으니까 닥쳐오는 겁니다. 자기가 없다면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무효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으니까요. 보배인 자기 씨를 자기 안에 두고도 허구한날 남을 의지해서 빌어먹으려고 한다면 이보다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보배를 자기 안에 두고도 말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일체와 연결되어 있어 아무런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자리에다가 턱 맡겨놓고 마음 편하게 살아가세요. 그러고는 '오직, 당신만이 나와 우리 가족을 화합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인연을 오게 할 수 있다.' 하고 탁 맡겨놓고 사세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내 사량으로 판단해서 책정한다면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50%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자리에다가 턱 맡겨놓고 올바른 인연이 저절로 연결되어 질 수 있도록 지극하게 관하십시오. 그리고 조급한 마음을 쉬세요. 조급하면 되는 일이 없으니까요.

충전 필요할 땐 어떻게…

문 사람으로 몸 받아 태어난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렇게나 따스하신 큰스님을 스승으로 만나게 하니, 저를 이끌어온 바로 그 자리에 모든 공덕을 회향합니다. 저는 끝없는 집착으로 연유한 슬픔의 맨 밑바닥에서 비로소 길을 되돌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는 앙금 때문인지 더러 눈물이 나곤 합니다. 언젠가 큰스님께서 아직 전력을 끌어다 쓸 만큼 공부가 되지 못한 사람은 절에 가서 충전을 해가면서 공부를 하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정말 충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멀리 지원도 없는 외국에 살고 있다보니 그렇게 할 형편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늘 관하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지만 저처럼 아직 공부가 모자라면서 혼자 공부하는 사람은 충전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용도에 따라서 우리에게 닥치는 일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바깥에서나 안에서나 얼마나 찰나찰나 닥쳐오는지, 어떤 때는 즐거움도 닥쳐옵니다. 어려움만 닥쳐오는 게 아니죠. 그러나 즐거움은 잠시 잠깐이고 그냥 어려운 일만 많이 닥치죠. 우리 사는 게, 그러니까 그 어려움과 즐거움을 다 송두리째, 즐거움은 감사하게 놓고, 어려움은 되돌려서 맑은 물로 바꿔서 쓰라는 말을 수차에 했을 겁니다, 아마.

본래 용도에 따라 닿기만 하면 꺼내 쓸 수 있는 것인데 아직은 다 모르니까 충전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아쉬운 생각에 답답함도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충전됐다, 다 꺼내졌다 하는 것도 내 생각일 뿐입니다. 내 한생각에는 외국이니 지방이니 안양이니 하는 멀고 가깝고가 없어요. 이 공부를 하려는 마음에 달려있을 뿐, 멀고 가까운 곳이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체가 없어서 멀고 가깝고가 없기 때문에 능히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생각이면 벌써 하나가 되는데 뭘 그렇게 주저합니까? 한생각인데 말입니다. 한생각 먹기에 달렸는데…. 알고 보면, 멀리 있고 자주 못 와보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생각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지혜 있는 사람은 넘어설 것이고 지혜 없는 사람은 넘어서지를 못하겠죠. 그러니 당신의 근본과 나의 근본이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일체제불과 직결된 그 근본 안에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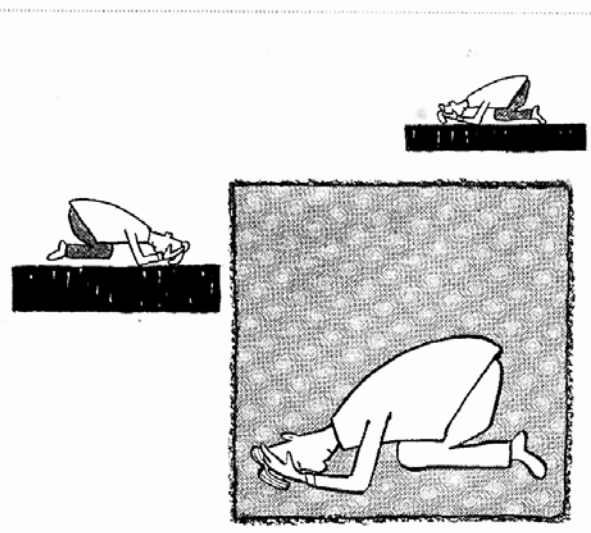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자기 안에 값진 보배두고 왜 빌어먹나

없고 없고 또한 없으니 자유롭게 살라

절하는 횟수 다른 까닭은

문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주인공과 항상 함께하고 있는 중생입니다. 귀하신 가르침에 따라 하다보니 몸과 마음이 편하여지고 집안도 모두 편안해 지는 주인공의 나툼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열심히 주인공을 관하여 부와 자가 상봉하게 하는 것이 스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궁금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불가에서는 보통 절을 하게되면 삼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는 이배를 하거나 사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절의 횟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우리가 삼배를 하는 것은, 하늘과 땅과 인간이 있듯이, 하늘이 있고, 부처님이 있고, 중생이 있고, 또는 하천세계에 중생이 있고, 보이지 않는 무생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모든 걸 가르치기 위한 방편이에요. 그럼 사배는 왜 하느냐? 삼배를 하고 난 뒤에는 전부 일체 사람들과 일체 조상들을 전부 한꺼번에 놓고 하는 거거든요. 하늘, 땅, 인간을 한꺼번에 내 안의 근본과 둘 아니게 놓고 한번은 진짜로 자기를 키워주신 내면의 부모이자 은사한테 하는 거죠. 그렇게 조목조목 이름을 우리 인간이 붙여놓은 거지, 이배다 삼배다 일배다 이렇게 고정돼 있는 건 아니에요.

일체 살아나가는 도리가 바로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 유(有)의 법, 무(無)의 법, 만법을 다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한테 있구나 했을 때의 그 능력이 바로 보배예요, 부처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일배다 이배다 하기 이전에 마음으로 진실하게 내가 절을 할 수 있는 겸손을 가져야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자기가 몸을 구부릴 수가 있는 거지, 마음으로 구부리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몸이 구부러지겠어요. 그래서 안과 밖을 마음으로써 겸손함을 가지고 구부릴 수 있다면 몸도 구부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구부려지지 않으면 몸도 구부려지지 않습니다. 허락이 되지 않는 걸요. 그러니 절이 그냥 절이 아니라 바로 진실한 내 마음이죠.

또, 언젠가 내가 절을 네 번 하라고 한 것은 산소에서 조상님의 유골을 이장을 하거나 할 때 전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삼배하고 마지막 일배는 내 안의 근본에 하나로 모으라는 것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는 이배를 하는 것이 더 맞겠지요. 그러니 그 횟수에 얽매이지 마시고 지극한 마음으로 하기 바랍니다.

보시의 진정한 의미는

문 보시에는 물질보시가 있고 무주상보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시의 진정한 의미는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갖추어져 있어서 손색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 한생각에 천당에 갈 수도 있고 한생각에 지옥에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물질로만 남에게 좋은 일을 하기보다도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면 물질의 도움보다 끝간 데 없는 보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스님네들은 바리때를 들고 다니면서 공양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먹는 음식이 좋든 나쁘든 자기네들이 먹으려고 장만한 음식으로 미리 떠서 준비해 두었다가 스님네들이 오면 공양을 올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이 어찌나 가난한지 스님네께 드릴 것이 없어서 남의 집에 가서 보리쌀을 씻어 주고 속쌀 뜨물을 얻어다 푹푹 끓여서 미음 한 그릇을 두었다가 스님이 오시자 공양 올렸습니다. 그것을 받은 스님은 너무나 고맙고 안됐기에 무엇으로 도움을 줄까 생각하다가 나무를 해다 줄 양으로, 산에 가서 나무를 한 짐 해가지고 내려오는데 은사스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신 은사스님께서 뭐 하려고 나무는 해가지고 오느냐고 하시자 이만저만해서 나무라도 해다 주려고 한다고 말씀드리기가 무섭게 지게 작대기를 뺏어 가지고 아랫도리를 내려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놈아! 한생각의 무주상 보시가 있거늘 어찌해서 잠깐 불쏘시게로 때 버리면 그만인 그런 것을 보시라고 하느냐."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그 스님은 나무를 짊어진 채 넘어지니 너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면서 일어나는데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아하! 스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로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면서 피는 줄줄 흐르지만 기뻐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 후에 쌀뜨물을 공양 올렸던 집은 잘 살게 되고, 나중에는 집을 세 놓기까지 해서 일관에 소문이 났더랍니다. 보이지 않는 무주상 보시는 무심으로 한생각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중생이기에 모르고, 병고에 시달리니까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렇게나 생각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깨우쳤든 못 깨우쳤든 생각을 잘하고 마음을 잘,다스리면서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자기를 돌이켜보는 마음이 진실하다면 숙명통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서 다시금 좋게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사회,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 과거로부터 각자 지은 대로 입력이 돼 있다가 세상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오는 그 자리에다 다시 입력을 한다면 과거에 입력됐던 것은 송두리째 무너지고, 뭉화롭고 안락한 자유인이 될수 있습니다. 망상이니 뭐니 하는 것에도 걸림없이 그대로 여여한 것이 바로 열반계에 드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자유인이 되는 길입니다.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다시 탄생을 해야만이 어떤 일이든지 해낼 수 있으며 보이지 않는 데서 오고 감이 없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고 진정한 무주상 보시를 할 수 있는 진짜 사람인 것입니다.

법공양 페이지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佛紀 2544年 (庚辰年)
부처님 오신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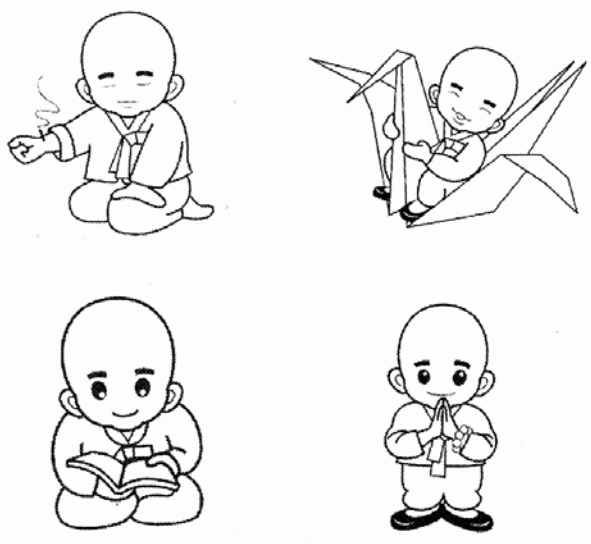
發願已歸命禮三寶 새 천년 불국토

佛紀 2544年 (庚辰年)
부처님 오신날

진실되게 믿는다면 주인공에게
이것 좀 잘되게 해 달라 저것 좀 잘되게 해 달라 부탁 할 것도 없다.
잘되는 것 안되는 것 모두 주인공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니
"해 달라"가 아니라 **"주인공 밖에는 할 수 없다"**가 된다.

말로써가 아니라 뜻으로써 이니
마음으로써 한 생각 내는 것이다. 병도, 가난도, 괴로움도 마음으로부터
일어나고 지옥고도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므로
예를 들어 병고가 닥쳤다면
"이 병고도 전부 내 주인공 밖에는 없앨수 없지"하고 밀어 넣는
것이다. 그러면 일체 보살이 한 찰나에 와서 든다.

- 대행 큰스님 법문 중에서 -



▶ 협찬 : **동인 한의원** 원장 박세철 합장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4가 445-1
☎ 053-422-4978

佛紀 2544年 (庚辰年)
부처님 오신날

發願已歸命禮三寶 새 천년 불국토

佛紀 2544年 (庚辰年)
부처님 오신날

대한불교 조계종 **부인사**

주 지 연성타
총 무 백종진
신도회장 최정숙 (보경화)

■ 대구광역시 동구 신무동 356번지
TEL : 053)982-5006

예전표구사 예전화랑

※ 독립선언문 36곡 병풍(1088×2400)
※ 대방광불 화엄경 60곡(2400×3000)

이 현 식

■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2동 724-15
TEL : 053)424-8247/427-2724
H·P : 011)9780-8247

등산용품 전문점
코오롱 스포츠

(달서구청 - 서부정류장)

■ TEL : 053)628-3584

경실련 불교시민회 회장
(주)진양엔터프라이즈 대표
에밀레 아이웨어 대표

性月 강 인성 합장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6동 616-13
TEL : 053)558-4500

재단법인 선학원 **여여선원**

선원장 혜 운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1982-4
TEL : 053)622-0336/629-4945
FAX : 053)655-3825

5백 나한 기도 영험도량
보조국사 정혜결사 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거조암**

주지 혜 해

대 중 일 동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신원리 622
TEL : 0563)335-1369

(재) 선학원
대한불교 조계종 **망월사**

주 지 동 진

대 중 일 동

■ 경북 칠곡군 지천면 달서 1동 421-4
TEL : 0545)972-2700

대한불교 조계종 **광덕사**

주 지 운 성

대 중 일 동

■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190-1
TEL : 053)763-0068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신도회

상임고문 금강이 창 용
회 장 창송유 상 종

신 도 일 동

■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5번지
TEL : 053)982-0101/2

一 波 畵 室

일 파 박 영 근

■ 대구 남구 봉덕3동 1329번지 2동 205호
TEL : 053)472-1818
H·P : 016)833-1818

(구) 보련각
동화불교서점

불교서적, 용품, 불상, 탱화, 4.8용품
각종불사문의환영

대 표 김 영 철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929-13
TEL : 053)255-0170/255-0784
FAX : 053)255-0170

동화불상조성소

청동부처님조성, 순금개금
각 불상전시(공장내사 환영)

■ 경북 고령군 운수면 신간리
TEL : 0543)955-7792

대한불교 조계종 **통천사**

주 지 이 선 지

신 도 일 동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 3-1번지
TEL : 053)941-3503

문화재 수리기능 보유자(석조각) 제 1496호
흥륜사 이차돈성사 추모비 제작

최 형 준

■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231
TEL : 0561)751-7940
FAX : 011)810-7940

대한불교 조동종 **망강암**

주 지 청 간

대 중 일 동

■ TEL : 053)614-3978

세계최대 불교종합복지관 건립도량
제 10 회 백 고 좌법회 원력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회 주 정 무
주 지 실 상

대 중 일 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산116번지
TEL:053)766-3747 FAX: 053)767-6095

법왕사 칠곡분원 연흥사

■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143-1
TEL:053)311-9937 FAX:053)311-7042

약전골목
홍익 한의원 한약원

【진료 과목】

한방내과 소 아 과
부 인 과 정신신경과
침 구 과 물리치료(운동요법)

원장 이 재 욱 합장

■ 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 132-1번지053)
(매일신문사 방향에서 약전골목입구)
TEL : 053)253-5005 / 2111-0072

사찰정보 안내

※ 대구, 경북 사찰 및 사찰부지 포교원 급히 구합니다.
※ 좋은 인연 대기, 즉시 연결해 드립니다.

사찰/납골당 조성, 부지 안내 전문

금강부동산 컨설팅

■ TEL : 053) 982-6778

연수생모집 / 자격증 취득
21세기는 건강사업의 시대! 5박 6일

운동회복사 / 활법사

※ 30년 전문교육 : 지압, 스포츠마사지, 카이로프락틱
※ 효능 : 각종 신경통, 디스크, 인체관절 교정
※ 출장 지도가능(전국 활법 지부, 지회 모집)

국 제 활 법 사 연 맹

대체 의학 연구사 회장 임 월 용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 10동 1593-18
TEL : 053)653-0077

국보 287호
백제 금동 대향로 (대구경북 문화상품 보급소)
탱화, 동 · 석불 개금, 단청
고승 선서화 취급 전문

남경불교미술원

현산 김 춘 근

■ TEL : 053)421-9477/428-1020
FAX : 017)502-9477

사단법인 (한불총)
한국불교 호법진흥회

해동불교대학 자매학교
관동불교복지보건대

혜 운 석 덕 진

회 원 일 동

▶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화리 392
총무실 : 0396)671-7751
불교대 : 0396)671-7718
불교대 : 0396)671-7752

八 公 山
冠 峯 藥師庵



산천불 관세음보살상 奉安

分院 陶工 殷正植 合掌

▶ 전화 : 0347)761-9999

청구도시락

대 표 권 오 섭

■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757-4
TEL : 053)763-1009/761-4477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www.TVbuddha. co. kr)
통신영남불교대학 모집
인터넷영남불교대학 모집
※행자원 개설 행자모집
(노동보다 수행과 교육위주)

■ TEL : 053)474-8228

대한불교 조계종 **관 음 사**

주 지 원 명

대 중 일 동

■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 2가 26
TEL : 053)421-3700
FAX : 053)427-1889

天然地氣探知器

Earth, Energy Charge Check Kod
지령인걸(地靈人傑)
〈땅의 기운이 영험하여 인물이 난다〉
地氣(地靈)가 어디에 있는가?

강화도 마니산	(인천 강화)	- 65회전
해인사 독성각 주변	(경남 합천)	- 46회전
해인사 장경각 앞	(경남 합천)	- 34회전
해인사 백련암	(경남 합천)	- 18회전
팔공산 갓바위	(대 구)	- 16회전
운문사 죽림천	(경북 청도)	- 20회전
선운사 대웅전	(전북 고창)	- 16회전
회재 이언적 고택	(경북 경주)	- 21회전
정 신 세 계 사	(서울 종로)	- 17회전

전국의 명당 기 측정기

세계 최초로 공개 특별가 35만원
■보급원 TEL : 053)982-4976

雲龍 蓮花院

然逸物産 株式會社

대표이사 성 낙 환
전무이사 김 성 수
영업본부장 이 태 화
영업이사 이 경 준

■ 경남 창녕군 성산면 연당리 산27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1330-5(청운빌딩)
TEL:053)742-3569 FAX:053)756-1538

대한불교 조계종 **원 각 사**

주 지 대 혜

대 중 일 동

■ 경북 구미시 선산읍 노상리 159
TEL : 053)481-2363

佛紀 2544年 (庚辰年)
부처님 오신날

發願已歸命禮三寶 새 천년 불국토

佛紀 2544年 (庚辰年)
부처님 오신날

봉 정 암

설악산 적멸보궁

회 주 무산오현
주 지 설 웅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TEL : 011)361-2828

두타산 삼화사

주 지 자광 이원행

신 도 회 일 동

■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176번지
TEL : 0394)534-8313
FAX : 0394)534-7546

등명락가사

주 지 이청우
신도회장 곽기웅
가섭회장 이준기

■ 강릉시 강동면 정동 진리산 17
TEL :0391)644-5337

오 봉 암

회 장 김 옥 남
부회장 최 화 자
총 무 이 선 자
총 무 박 인 숙

■강릉시 성산면 오봉리 3반 67번지
TEL : 0391)641-9915

사회복지법인 자비복지원

기쁨도 함께
슬픔도 함께

■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1156번지
TEL : 0391)642-3555

소금강산 금강사

대 중 일 동

■강릉시 연곡면 삼산2리 1-10번지
TEL : 0391)661-4271

현 덕 사

회 주 청 우
주 지 현 종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569
TEL : 0391)661-5008

약사 여래원

주 지 범 주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천진리 184-3
TEL : 0392)635-8666

풍년가든

대 표 윤 정 인

■ 강릉시 왕산면 도마1리 2반
TEL 0391)647-3201

전국 꽃배달 서비스 1004 꽃화원

대 표 전 규 식(영준)

■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용지각 사거리 (수협옆)
TEL : 0391)651-1004
(무료전화)080-651-1004
(국번없이)1588-1004

온누리에자비가

최 연 규

■ 강릉시 교1동 968-7번지
TEL 0391)648-9415

조현재철학원

■ 강릉시 초당동 296-1 2층
TEL 0391)653-8497

농촌 한정식

한정식 영양돌솥밥 전문

대 표 박근식

■ 강릉시 임당동 176-2번지
TEL 0391)647-6696

공간미술학원

원 장 박 혜 란

■강원도 양양읍 남문 2리 1반 95-5
TEL : 0396)672-5033

꿈푸른 어린이집

원 장 함 종 임

■강원도 강릉시 송정동 205번지
TEL : 0391)653-9788

자미온(주) 강릉점

귀족의침구 혼수전문점

대 표 정 정 자

■ 강릉시 성남동 99-2호
TEL 0391)648-1483

대한불교 조계종
대법사(구표충사)

조 실 김 법 혜
주 지 이 원 공

신 도 회 일 동

■ TEL: 0527)356-1015
356-0322

한국불교태고종
금오산 약수암

천불관음 기도 도량

주 지 최 환 명

신 도 회 일 동

■ 경남 밀양시 단장면 국전리 389번지
TEL: 0527)356-1844/0770

대한불교선교종
대 승 정 사

교 임 고 보현회
신도회장 김의덕

■ 경남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1063번지
TEL:0527)355-4846

대한불교
용두산 청룡사

주 지 신 무 제

신 도 일 동

■ 경남 밀양시 가곡동 (용두목)
TEL:0572)354-4897

대한불교조계종
백 양 사

회 주 목산 이지은

■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819
TEL:052)243-8712

대한불교조계종
정 토 사

주 지 덕 진

■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803-5
TEL:052)258-9944/9946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말사
용궁사

주 지 정 무
신도회장 이연등화

보 현 회 일 동

■ TEL:주지실 0527)354-4467
종무소 0527)354-4464
FAX: 0527)354-4415

대한불교
덕대산 극락사

지장기도 도량

주 지 김 법 륜

신 도 회 일 동

■ TEL: 0527)352-7224

천운고속관광 ㈜

전무이사 심 덕 길

■ 경남 밀양시 내이동 770-2번지
TEL :본 점 0527)356-4021~3
울산지점 052)233-5700
휴 대 폰 019)577-7711

대한불교법화종
용굴산 불세암

주 지 박 일 호

신 도 회 일 동

■ 경남 밀양시 무안면 덕암리 산152
TEL: 0527)353-0312

대한불교선교종경남종무원
운용산 용정사

신중 기도 도량

주 지 최혜봉
신도회장 서광명장
화염회장 이법력행

회 장 단 일 동

■ 경남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 산 213
TEL: 0527)353-1196 /017-650-1196
FAX :0527)356-1346

밀양 꽃 도매

각종화환, 생화도매, 조화
각종관엽 식물
직접 생산도매

■ 경남 밀양시 삼문동 205-6번지
TEL: 0527)354-2199/8412
011)554-8412

부용 불교사

대 표 김태선

불교용품일체, 단청
탱화, 개금

■경남 밀양시 내이동 689-5
TEL : 0527)352-3756
011)859-3756

진흥기계공업사

대 표 이 영 무

■ 경남 양산시 의곡동 158
TEL:0523)386-1778~9



털보 아저씨 손은 요술을 부려요

넓적한 돌이 부처님으로 변하고

아저씨 웃음이 너무 좋습니다

동화

윤제학(본지 취재2부 부장 · 동화작가)

부처님이 눈을 떴어요

"엄마, 부처님이 눈을 떴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예림이가 대뜸 엄마에게 한 말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니. 부처님이 눈을 뜨다니?"

엄마는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예림이에게 되묻습니다.

"아휴, 답답해. 바로 저기 서 계시던 부처님이 오늘 눈을 떴단 말이예요."

예림이는 마치 보이기라도 한 듯이 손가락으로 가리키기까지 하며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합니다.

"얘는, 갈수록 뚱단지 같은 소리만 하네."

엄마에게는 뚱단지 같은 소리일 수밖에요. 예림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참, 그렇지. 엄마는 잘 모르시겠네요."

하며 예림이는 그 동안의 일들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듯이 예림이도 학교에 갈 때보다 집으로 올 때가 더 좋습니다. 골치아픈 공부 안 하고 신나게 놀 수 있어서 그렇냐고요? 물론 그렇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답니다. 그건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인데요, 오늘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부처님이 눈을 떴으니까요.

예림이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길이 아닙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3학년이 되면서 자기만의 비밀 장소를 찾기 위해 이리저리 쏘다니다 발견한 길이지요.

교문을 나와 큰 길로 가지 않고 학교 담장을 따라가다 보면 산기슭으로 좁다란 오솔길이 나오는데, 거기서부터가 예림이의 길입니다.

길에 들어서자마자 예림이는 먼저 과수원의 배나무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그 중 몇 나무에는 별명까지 붙여 놓았습니다. 홀쭉이, 땅달보, 날씬이, 멋쟁이…. 얼핏 보면 다 같은 나무 같지만 자세히 보면 다 다른 모습이지요. 하지만 5월이 되어 하얀 꽃을 피울 때는 구름으로 만든 커다란 이불을 덮고 자는 한 형제들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조롱조롱 예쁜 배가 매달린 모습을 보면 예림이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며 예림이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조것들이 아빠 주먹만하게 자라면 여름방학이 되겠지.'

배밭이 끝나면 포도밭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포도밭은 별로 예림이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거름으로 뿌려 놓은 닭똥 냄새가 싫기도 하지만 언제나 의심하는 눈길로 바라보는 주인 아저씨의 눈초리 때문입니다. 그래도 포도가 익을 때 나는 냄새는 참 좋습니다. 그때면 예림이도 일부러 천천히 포도밭을 지납니다.

포도밭을 지나면, 드디어 예림이가 가장 좋아하는 돌 공장이 나옵니다. 이곳에서는 크고 작은 돌들이 갖가지 모양의 조각품으로 바뀝니다. 사자처럼 생긴 '해태'가 상상 속의 동물이란 것도 이곳에서 알았습니다. 그 동안은 과자 회사 이름으로만 알았거든요. 또 재미있는 건, 그 해태라는 동물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가려내는 재주를 가졌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림이는 착한 일을 더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드는 날에만 해태 위에 한 번씩 올라 타 보곤 한답니다.

돌 공장에는 여러 명의 아저씨들이 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 털보 아저씨와 가장 친합니다. 아저씨를 처음 만난 날 이름을 여쭤보려다가 그만 두기로 했습니다. 털이 워낙 더부룩해서 입술이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름 같은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 말고도 아저씨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결혼을 했는지도 나이가 몇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땐 아이 같은 얼굴로 보이다가 또 어떤 땐 할아버지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아저씨는 언제나 머리에 수건을 질끈 동여매고 일을 합니다. 다른 아저씨들처럼 안경을 쓰지도 않습니다. 언젠가 눈에 돌가루가 들어가지 않느냐고 여쭤보니까, 꺼내는 기술도 좋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시며 빙긋 웃으셨습니다. 예림이가 돌공장에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것도 이 아저씨 때문입니다.

털보 아저씨는 부처님 만드는 일만 하십니다. 다른 일을 하시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아저씨는 '드르륵' 하는 소리가 나는 기계를 쓰지 않습니다. 꼭 손으로만 일을 합니다. 그래야만 돌에 피가 돈다나요. 하지만 예림이는 아직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아저씨의 손은 요술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냥 넓적한 돌이 아저씨의 손을 거치면 살아서 움직일 듯한 모습으로 바뀌니까요. 언젠가 아저씨가 만드는 부처님의 옷자락을 보고,

"옷자락이 바람에 날릴 것 같아요."

하고 말했더니 아저씨는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큰 소리르 웃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드러내 놓고 좋아하는 건 아주 드문 일입니다. 예림이가 친구들에게 들은 '사오정 시리즈' 얘기를 해도 조금밖에 웃지 않으시거든요. 그래도 예림이는 실망하지 않고 친구들이 재미난 얘기를 할 때마다 잘 기억해 뒀다가 아저씨께 들려 드리곤 합니다. 아저씨도 듣기 싫지는 않은지 그만 두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소풍날에도 예림이는 도시락을 하나 더 싸 달래서 아저씨에게 갖다 드립니다. 그러면 아저씨는 씩 웃으시며 도시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입니다. 예림이는 그런 아저씨의 웃음이 너무 좋습니다.

"아, 그래서 그 아저씨가 만드시던 부처님이 오늘 완성됐다는 말이로구나."

"엄마도 참, 눈을 떴다니까요."

"맞아, 엄마가 잘 몰랐구나. 그런데 눈 뜬 부처님이 어떻든?"

"꼭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 아저씨가 참 좋아하셨겠구나?"

"아뇨,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시는 것 같다가 한참 뒤에는 무슨 대답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바라보시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기분이 어떠시냐고 여쭤보지 그랬니."

"엄마, 제가 아무리 어린애지만, 그런 건 물어보는 게 아니란 것쯤은 알아요."

"그래? 오늘은 엄마가 예림이한테 많이 배우는구나. 그럼 이번에는 엄마가 예림이한테 재미난 얘기 해 줄게. 너, 불국사가 어딘 줄 알지? 그 불국사의 큰법당 앞에 있는 석가탑과 다보탑에 관한 얘기란다."

예림이는 이런 엄마가 너무 좋습니다. 공부하란 말은 가끔씩만 하고, 쌀을 씻다가도 재미난 얘기가 생각나면 예림이와 얼굴을 마주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예림이도 재미있는 얘기라면 전자 오락만큼이나 좋아합니다. 옛날 이야기를 좋아하면 가난하게 산다는 얘기까지도요.

가만가만 엄마의 얘기가 시작됩니다.

불국사를 다 지은 후 김대성은 탑을 세우기로 마음을 먹었단다. 그러나 진실된 석수를 만날 수 없어서 애만 태우게 되었지. 그래서 김대성은 부처님께 기도를 드렸단다. '진실한 석수를 만나게 해 주세요.' 하고 말이야.

드디어 백 일 간의 기도 끝에 김대성의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셨어. 그리고 부처님은 꿈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백제에 가면 아사달이라는 석수가 있으니 그 사람을 만나도록 하라.'

이 말을 들은 김대성은 곧장 백제를 향해 길을 떠났지. 아사달이라는 이름 석자만 달랑 들고 말이야. 그러니 어디 찾기가 쉬웠겠니. 갖은 고생 끝에 김대성은 드디어 어느 산골에서 아사달을 만났단다.

마침내 신라로 건너온 아사달은 몇년에 걸쳐서 다보탑과 석가탑을 세웠는데, 돌을 깎는 게 아니라 차라리 뼈를 깎는 것 같은 일이었대.

그리고 다보탑을 세울 때는 항상 마음 속으로 이렇게 다짐을 했다는구나.

'진실된 마음으로 베풀고, 언제나 착한 일을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물론이고 우주의 만물과 한몸이라는 마음으로 이 탑을 세웁니다.'

또 석가탑을 세울 때는

'티끌 같은 욕심도 버리고, 오직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으로 이 탑을 세웁니다.'

하고 말이야.

엄마의 얘기를 다 듣고 난 예림이는 한참 동안 마음 속으로 털보 아저씨를 그려 봅니다.

"엄마, 털보 아저씨도 아사달과 같은 마음이었겠지."

"아마 그럴 거다. 엄마도 그렇단다. 일요일에 한 번씩만 부처님을 만나러 절에 가는 게 아니란다. 예림이 양말을 빨 때도, 방을 닦을 때도, 쌀을 씻을 때도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단다. 세상 온갖 것에 다 부처님의 마음이 깃들어 있으니까.

예림이도 털보 아저씨나 아사달처럼 아주 정성스런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면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것이란다. 그러면 예림이의 마음 속에도 부처님이 들어오신단다."

엄마의 얘기가 끝나자마자 예림이는 스르르 잠이 듭니다. 그리고 예림이는 털보 아저씨가 만든 커다란 돌부처님이 예림이에게로 다가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내일은 부처님 오신 날, 어쩌면 잠에서 깨어난 예림이의 머리맡에 진짜로 부처님이 와 계실지도 모를 일입니다.



삽화 최혜락

엄마는 항상 부처님을 만난단다
쌀을 씻을때도 방을 닦을때도
예림이도 어떤 일이든 정성껏 하면
마음속으로 부처님이 들어오신단다

오체 투지 호흡법

호흡에 맞춰 절하는 방법

◈ 3천배를 천일간, 보궁 · 성지등에서 만배씩 100일간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절을하여 500만배를 하면서 터득한 비법으로 절대 숨차지 않고 헐떡대지 않으며 숫자는 자동으로 헤아려지고 삼천배를 하여도 힘들지 않고 밝은 기운이 팍차며 병고 액난 악업의 업장을 절로녹고 단전혈이 열려 일상생활에서 단전호흡이 저절로 되며 용천혈이 열려 용기와 뱃장이 생기고 명문혈, 백회혈등이 열리는 불자라면 필히 알고 실천하여 터득해야 할 중요한 수행

참선 수행의 비법

참선 호흡법, 자세법, 마음집중법, 번뇌 망상퇴치법

◈ 입술, 허, 침 처리하는 방법
◈ 허리 펴고 척추고추 세우고 어깨펴고 머리 바르게 유지하는 법
◈ 발목, 무릎, 다리, 쥐나는 현상 처치법
◈ 혼침, 졸음, 무기용 방지음
◈ 염불 수식관으로 좌선기초를 닦는법
◈ 참선 업장소멸 법
◈ 무의식 자동 단전호흡법

금강경 독경법, 행선, 와선, 도입체조, 태양기공체조

※ 상기병, 화병, 얼굴 붉고, 미간 좁고, 손가락 길고, 살이 없고, 눈동자 불안, 눈 깜빡 자주, 눈충혈, 머리 속 헐고, 기미, 죽은깨, 여드름, 머리 빠지고, 희어지며, 코막히고, 헐고, 귀는 울고, 목아프고, 침 마르고, 허바늘 서고, 입술 부릇트고, 피곤 몰립고, 혼침, 감기 저주걸리고, 몸은 차겁고, 허리,어깨, 목굽어 가슴 답답하고, 소화불량 고혈압, 당뇨, 관절염,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강박관념 있으시면 몸을 바르게 닦고, 호흡을 닦고, 막힌혈 뚫어야 하지 단전호흡, 주력수행 화두참선, 기도으는 수련을 하면 좋지 않다. 호흡에 맞춰 절하면 좋아진다.

◈ 매주 철야정진 : 토요일 저녁8시 일요일 아침8시
◈ 3명이상 예약하시고 오시면 수행교육함
◈ 수행,기도, 명상, 휴양 : 3,7,10,15,30,50,100 일 (1개월 교육수행 숙식 20만원기준)

아름다운 소리산 물빛고운 소금강 **법왕정사 수행원**

◈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홍천대명스키장,산음자연휴양림5km)
◈ 전화 0338)771-7745 011)9088-7745

봉 **광주불교의식 대학** 축
(추가모집)

■ 과 목 : 제반의식, 상주권공, 시식, 불공의식 화청, 바라춤, 나비춤, 각종사물다루는 법
■ 마감일자 : 2000년 5월 31일까지 접수받음
■ 문의전화 : 062)362-8604, 011)624-8604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2동 759-14

※ 혜공스님 테이프 (1차녹음방출)
· 상단상주권공의식 · 대령 관욕
· 종성, 전통아침예불 · 부모은중경 · 화청 (1,2)

성지순례모집

각 사암스님 및 교임
■ 장 소 : 경기도 회암사
■ 일 시 : 2000년 5월 31일 오전8시
■ 출발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시교육청앞 (일체제반 경비는 수명사에서 부담함)

함평 나산 수명사

주 지 혜공스님

■ 전남 함평군 나산면 삼축3구 438-1
TEL : 0615)322-8604, 011)614-8604

봉 천년의 신비를 재현하는 축
청자골 강진도강요

청자불상, 청자석등
청자차다기류, 생활자기
맥반석 옹기 및 생활용품

신비의 돌 맥반석 찜질방

대 표 윤 도현

임직원일동

■ 전남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324-1
TEL : 0638-434-7788/7462

봉 **현대자동차 매매상사** 축

품 질 보 증 불자님의 안정운행과 고장없는 차량이 판매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갖는 도리를 좇지 말고 주는 도리를 좇아라"
- 대행큰스님 법어中에서 -

대표 김 정숙

파시는분
전화 한 통화로 전문 딜러의차량 도/소매 가격 정보제공 및 방문후 정당한판매가를 보장하며, 계약 당일 이전 등록을 책임지겠습니다.

사시는분
품질 최우선의 신념 아래 고객이 원하는 자동차를 전문딜러가 감정선별하여 믿을 수 있는 자동차를 직거래 판매합니다.

※ 중고차 전차종 즉시 고가매입

※ 신용카드 할부
· 가맹점(6~18개월)
· 기혼자 무보증 할부(300만원/24개월)
· 전차종 매매/위탁/알선함
· 당일 현금 지급

■ 연 락 처
· 광주영업소 016)622-9082(김정숙) 011)601-0621(박동헌) Fax. 062)371-7544
· 해남영업소 017)611-6670(박동권) Fax. 0634)536-8845

佛紀 2544年 (庚辰年)
부처님 오신날

發願已歸命禮三寶 새 천년 불국토

佛紀 2544年 (庚辰年)
부처님 오신날

용성스님 창건도량
삼각산 대각사
도심포교 발상성지
주 지 瑞海 興敎
대 중 일 동
■ 서울시 종로구 봉익동 2번지
TEL : 02)765-0972/744-4502~3
FAX 02)742-2126

대한불교조계종
연화산 옥천사
회 주 경하 현성
주 지 호암 지성
사부대중 일동
■ 경남 고성군 개천면 북평리 408
TEL : 0556)672-0100/0481
FAX : 0556)672-0481

우주정사
주 지 법 현
기적의 손 부처님의 기를
전달하여 디스크환자 팔 다리 마비환자
신경통, 관절염환자를 치료하는
기적의 손을 가진 스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138-2
TEL : 0331-251-2871/252-1766

인과선원
주 지 정 덕
신 도 일 동
■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657-2
TEL : 02)993-3706
02)907-3706

정 각 사
주 지 이광우
신도회장 이원각성
대 중 일 동
■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1가 277-12
TEL : 02)742-1231

대한불교 조계종 **정토사**
주 지 설 산
배달문화 선양회, 설산장학회
대중일동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523-61
TEL : 02)379-5502

대한불교 관음종
천 국 사
주 지 해 정
고박정희 육영수 영부인 영정 봉안사
일백만 지장근본 기도 도량
신도회 일동
■ TEL : 0414)742-5966/5965
FAX : 0414)742-0479

대한불교조계종 청법도량
청소년 수련원 **신흥사**
주 지 오성일
사부대중 일동
■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상안리 산 42-1
TEL 0339)357-2695 / 357-3916

한국불교 미술원
원 장 정규진
문화재수리 단청기능 708호
도금기능 821호
탱화, 단청, 불상조성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96번지
TEL : 02)730-8072
02)678-0930 (야)

대한불교조계종
황금절 수국사
회 주 한자용
주 지 김자성
신도회장 김자비심
찬불합창단장 문안락행
수국사 대중일동
■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314번지
TEL : 02-356-2001~2

사단법인
한국불교사회봉사회
이사장 이설산
임 원 일 동
■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3동 321-3
TEL : 02-303-0024~5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불교대학**
학장 무진장 이사장 김재일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반야회**
회 장 김 재 일
사무국장 구본설 이사장 문종순
대 중 일 동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3
TEL : 02)732-1206~8
FAX 02)732-1207

팔공산 약사암
주 지 일 여
신도회장 이 광영
사부대중 일동
■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동 산 44
TEL : 053)852-0803

유달산 달성사
주 지 법 정
신 도 일 동
■ 전남 목포시 죽교동 317번지

양을산 선덕사
창건주 박대륜성
사부대중 일동
■ 전남 목포시 용해동 281-20
TEL : 0631)276-1627

불자님이 서로 믿고 찾는은행
부산불교 신용협동조합
불교신협이 "알짜"인 세가지 이유!
하나, 정부가 보장합니다.
둘, 이자소득세가 없습니다.
셋, 빠르고 편리한 대출 때문입니다.
범일동 지하철입구 현대백화점 맞은편 2층
■ TEL:051)633-9120~3

화방다래원
「차는 마음입니다.」
원장 송 경 자
회 원 일 동
■TEL : 051)413-6261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합창단
단 장 민 영 희
총 무 오 희 숙
단 원 일 동
■ TEL:051)403-7077
FAX:051)403-1077
인터넷 (http://www.hanmaum.org)

운 진 사
원장 지 암
신 도 일 동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335-48
TEL: 051)757-3118

대한불교법등회
지도법사 혜 총
회 장 강자명심
부 회 장 박영자 곽구자 양정자
주윤희 윤순자
총 무 박정순 박계순 염숙자
김갑선
外 회 원 일 동
■부산시 금정구 서3동 141-137
TEL: 051)523-1480

부설 반야유치원
월명산 흥천사
주 지 지 환
신 도 일 동
■ 전북 군산시 금동 2-17
TEL : 0654)445-3769

맑고 향기롭게
광 주 본 부
본부장 박 원재
회 원 일 동
■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219-6
TEL : 062)267-0048

대일불상조선소
(불상, 석불, 등불, 목불, 대리석, 순금, 인조석등, 조각탱화, 조각일체)
범종불사 일체 문의
대 표 심준식(우형)
심민우(자)
■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2동 57-91 4통1반
TEL : 062)652-2384
H·P:(부) 011)642-2384 (자) 011)604-2384

대한불교 조계종
쌍 봉 사
주 지 관 해
신 도 일 동
■ 전남 화남군 이양면 증리 741
TEL 0612)372-3766 / 3765

봉 **第15回 不二賞 要綱** 축

不二會에서는 한국불교 중흥의 선구적 역군이 될 참신한 젊은 일꾼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연구와 실천분야에 걸쳐 탁월한 가능성을 보인 젊은 인재를 발굴, 그들의 보다 알찬 발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본 상을 제정 시행합니다.

연구분야

▶ 대학원 석사과정수료 이상의 학력자로서 대학에서 시간강사 이상, 조교수 이하의 직에 있는 자로서 최근 2년 동안 업적 중 불교학(불교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철학·문학·예술·비교사상, 기타)관계의 탁월한 연구 성과를 올린 40세 전후인 자.

실천분야

▶ 불교에 입문하여 7년 이상 경과한 불자로서, 신행과 포교가 모범이 되는 자. (연령 제한 없음)

각 분야별 1명 500만원

가. 후보자 추천카드(소정양식)
나. 자필이력서(사진첨부)
다. 학력증명서
라. 경력증명서
마. 업적증명용 연구물, 활동내역서, 성적증명서
바. 구족계, 수계 증명서
사. 추천서3통(총장,대학원장,기관 단체의 장)

2000년 6월 3일(토요일)

불이상 심사 위원회
불교계 언론매체, 응모자 개별통지

불이상 심사 위원회
■ 서울 강남구 개포3동 186-1 개포빌딩 6층
한국불교연구원 내 不二會
TEL. 02)3411-6167~8/ FAX.02)3411-6169

한국불교여성회
회 장 윤 혜월성
회 원 일 동
■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2동 484-4(능인)불교회관내
TEL : 062)226-4729 /673-3001
H·P: 011)603-3001

(주) 성진건설
전문건설업 형틀목공,철근콘크리트
토목공사
※ ISO 9002 인증업체
대표이사 최 덕수
이사 서 대석
임 직 원 일 동
■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1-2
TEL : 062)525-0146~7
FAX : 062)521-9408 / H·P: 011) 601-7840

성경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승강기, 주차기보수 전문 업체
대 표 전 재성
임 직 원 일 동
■ 본사 :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88-10 임동B/D3층
TEL : 062)528-0461~3
FAX : 062)528-0460
H·P: 011) 601-8416
■ 지사 : 전남 순천시 조례동 1592-3 태산B/D5층
TEL : 0661)722-0464

승복·한복·두루마기전문
화신 승복
대 표 이 진우
직 원 일 동
■ 광주광역시 동구 호남동 11-3
(광주공원 다리건너 가든예식장 옆)
TEL : 062)223-8910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6)849-3858
012)1166-3858

강좌

사주 명리학 강의
★ 6개월 완성 ★
초보에서 완성까지(스님직강)
(사주, 택일, 궁합 작명등)
※스님 佛者 환영 ※
월 · 화 · 수 오후 2시부터
인천 032-504-1387
H.P 011-9046-9903

불교발전의 획기적인 모델
- 한학기 3천명의 신입신도 -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행자(예비스님 모집)
(가장 엘리트스님 배출을 목표- 공부와 수행 · 모든지원)
통신불교대학 · 인터넷 불교 대학 접수중
대구 053) 474 - 8228 /011) 560 - 5968
(선착순 10명)

제6기 무료강좌안내
⊙ 따주기 ⊙ 수족침요법
⊙ 침구 ⊙ 기공
2개월간 주1회 교육
통신교육도 가능
※지회및 분회 개설할 분도 연락요망
한국전통민간요법학회
02)2246-7477
011)9090-1049

탈종공고

탈 종 공 고
대한불교 관음종 총무원장 법하
◇성 명 : 조 혜경
◇법 명 : 영 봉
◇사 찰 명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전두3리 9반
청 용 사
본인은 귀종단의 종지와 종풍이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2000. 5. 15

역학 수강생 모집
▶과목: 사주, 육효, 신수, 작명, 관상
▶과정: 정규반, 연구반, 자격증반, 창업반
▶시간: 오전10시~12시, 오후 3시~5시
(월~금, 주5일)
※ 매주 토요일 관상학 특강: 오후 6시
▶강사: 엄윤문 원장(명학비해 外 20여권 저술)
김회선 선생, 관상학의 달인 신기원 선생
▶기타: 사주감정 의뢰하실 분(3만원 입금후 전화요)
제일은행(105-20-163426) 엄윤문
▶문의: 02)752-9013
청운역리학원

풍수 · 사주 강의
◆위치 : 청량리 성바우로
병원 건너편
◆개강 : 5월 16일
(매주 화요일, 금요일)
◆여자는 무료 (초급)
02)969-7389 /011)9785-8780
한양풍수지리연구원

구인구직

사람을 찾습니다.
◇성명 : 박 정재 (정주스님)
◇본적 : 전남 신안군 지도읍
◇주소 : 부산시 부암3동
부친 병세 악화, 생면에 상련 원함.
0631)242-6137
017)674-0508

행자(男) 모집
본 사찰에서는 신심과 원력을 가지고 21세기 불교를 이끌어갈 행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인원 : 00명 · 간간 : 4월 15일 ~ 5월 30일
· 연령 : 만19세 ~ 35세
· 학력 : 고(재)졸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학력이 되지 않는 자는 행자수련 기간 중 검정고시를 볼 수 있음
문의처 0342)719-0408~9
대한불교 조계종 불광선원 주지 합장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2)
2234 - 2198

새로운 도량입니다.
100년 대계를 세우고서
평생 절에서 계실 심신
깊은 보살님을 모십니다.
(40~50대)
내 절을 세우고저 원을
내신 분은 전화주십시오.
0563)335-0092

비구니 스님만 보세요
▸ 몸이 아파서 대중에 못나가는 스님
▸ 경제사정으로 병원에 못가는 스님
▸ 병원에서도 완쾌치 못하는 스님
▸ 걸망을 풀고 편히 쉴곳이 없는 스님
▸ 무료침식제공
▸ 자유정진 및 자유기도 환영 해제비 지급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산42
약사사 02) 384-5060

산이깊은 절
포교당을 인수할
인연깊은 스님을
기다립니다
허인 합장
02)939-7121
011)9972-7121

봉은사 종무원 모집
◇나 이 : 30세 미만 ◇성 별 : 남성 불자
◇직 책 : 총무 주임
◇자 격 : 4년제 대졸 이상, 정보통신 기능자 우대
◇구비서류 : 이력서(신행 이력 포함), 자기 소개서, 주민등록등본, 자격증
◇접수 마감 : 2000년 5월 10일(우편 접수 가능)
◇접 수 처 : 봉은사 종무소
(전화 : 02)511-6070/4)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부전스님(비구) 모집
서울에 위치한 대한불교 조계종 사찰로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부전 스님을 보시고자 합니다.
◇나 이 : 35~45세
◇승 람 : 10년 이상
◇인 원 : 0명
◇구비서류 : 수행 이력서, 승적 증명서
011) 9781-2862 (노전)

기도하시면서 함께
사실 공양주 보살 모
십니다.
0371)763-8259
011)371-7877

공양주및 종무원
겸 법당 보살님
모십니다
(나주 불회사)
0613)
337-3440
/3446

공양주 보살 모
십니다
042)
825-4040

수양원

◆청학사 수양원◆
■수양 · 기도 · 공부 · 참선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月 숙식비 : 30만원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95)883-2935
0595)883-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수양, 기도하실 분
공부할 학생
기도하시기 좋은
최적의 도량
합천호부근 청강사
· 가액 : 월30만원
(약간명 모집)
0599)932-5706

불교용품



◂ 달마상
45×70cm
(가로×세로)
※ 금강경10폭병풍
※ 자비동자
35×45cm
(가로×세로)
금모스님 합장 0561)775-2432

보이산차
40년생, 15년생 입하
칠지병차 소탁차
고산 오룡차 철관음
※ 염가판매 ※
전화주시면 견본보내드립
02)911-6798
017)406-6682
茶道里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광약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0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맑고 향기롭게…
꽃 공양
◆불교전통 사찰 행사용꽃 전문
◆일반 생화 일절 도소매
◆화환 · 꽃바구니 · 신부화 · 웨딩꽃길전문
◆전국 꽃배달
淨我 꽃집
※ 금강자비회 초대 회장 윤 대현화 합장
남대문 꽃 도매상가 138
02)774-5886/011)737-4659

기타

국내 최초로 인터넷 화랑방 개설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korea art gallery [인터넷 화랑방]
대한민국 미술작품 화랑방
홈페이지 http://www. korea-art - gallery.org
동양화 서예 서양화 선화 도자기 공예 디자인 초대작가들의 전시 작품을 공모 접수합니다.
02) 2242-0331 / 2242-0255
자유롭게 사고 파는 인터넷생활정보 무료 매물 사이트
홈페이지 www.memull.com

목조 건축물 보수
사찰 한옥, 통나무, 목조, 보수공사전문
◆ 못으로 시공하는 방수시트
◆ 페인트 제거제(단청)
◆ 목조, 석재, 세척제
◆ 방염성, 방부제
※ 영업사원 모집
02)3474-6232
(주) 동화특수 산업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심한 피로 · 정력강화
◆간기능 획기적 개선
◆혈압, 혈당치 낮추고 장 · 변비개선
◆손발냉증 · 피부 고와져
◆감기에 강한 체질로
▶가격: 분말(230g) : ₩39,000
환 (250g) : ₩45,000
동양물산(주) 02)832-0742

유방암, 자궁암, 간암에 좋은
백화 지설초, 조정엑기스
신경통, 관절염, 척추에 좋은
꿀담초, 조정, 엑기스
※ 다려드립니다. (건강원)
053)941-5432

불교 조각
고려 미술원
문화재수리 단청, 개금, 조각기능보유등록 693호, 1361호, 1495호 1853호
목불상, 탑집, 불단, 개금, 법당, 내부불사 일체
충남 천안시 안서동 178-1(성불사 內)
0417)567-2600 011)421-5337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mainsoft.co.kr/Art.htm
※ 연락주시면 카다록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원장 임영창 합장

사찰안내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전시 중구 대흥3동
◆ 평수 : 1층 20평(공양간겸 방1칸), 2층 37평 (방2칸, 법당1)
◆ 특징 : 시설 완비
◆ 가액 : 답사후 가격 절충
011)430-3344
※꼭 하실분 연락 바람.

사찰 안내
◇위치 : 함양
◇법당 : 20평
◇요사 : 30평
◇부지 : 310평
◇가액 : 4천5백
※전국 사찰, 포교당 다랑보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011)713-5634

토굴터 안내
◆ 위치 : 여주군 흥천면 하다리
◆ 건물 : 20평, 주방, 거실 욕실, 보일러, 방2개
◆ 가액 : 건물만 750만원
011)9855-0801
019)225-4277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대문구 북가좌동
◆ 평수 : 법당15평, 방3개 삼존불, 지장보살, 후불탱화 상단에는 홍탱화, 세면장
◆ 특징 : 주위에 복지사업할 여건이 좋음
◆ 가액 : 3천만원 월 20만원
0351)868-0516

사찰 안내
◆ 위 치 : 부산시 금정구
◆ 평 수 : 건평 1층 30평,2층 30평 시설완비, 삼존불, 법당 단청 대지300평
◆ 특 징 : 지하철과 가까움
◆ 가액 : 답사후 절충
011)586-1155

사찰 (급)안내
◆ 위치: 경기 이천 소재(장호원) 99년 행정수도권 서울 근린지역
◆대지 437평, 법당 27평(사무실포함) 법전 요사 15평(거실1 방3),요사 43평
◆가액 : 4억6천이나 급매로 절충하여 정함
◆교환가◆특징 : 1.취락시가지 확정 2개 대학과 약45만평 전자공단의 요충지 2.신고속도 건설중 서울50분대 3. 녹지푸른 청정도량(고시원운영)
0336)643-9051/017)430-9051

귀절지을 땅(임야1500평)
◆위 치 : 안동시 안막동 (시청서 5분) 2차선 신도로 접
◆별장, 실버타운, 기도원, 사찰적합위치최상 경관수려 (주차 15대 이상가능)
◆가격 : 9800만원 011) 301-4949
포교원 30평
◆위 치 : 전서울 성북구 전철역앞
◆평수 30평, 상담실, 대기실, 강의실, 법당
◆3층건물의 3층 전체(옥상도 단독으로 씀)
◆가약: 2천 5백 (1천6백에 월 40만원)
0502)888-0119(서울)

포교당 안내
◆ 위 치 :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 평 수 : 52평 3층, 법당20평, 삼존불, 방3개, 욕실 주방시설완비
◆ 가액 : 1천만원 월 50만원 전세5천, 시설비 답사후 결정
051)516-4664/ 514-3210
011) 783-5204

요양원터 안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월명동 산19-17 (월명공원 근처)
◆ 수익허가 면적 893m
대지300평, 건물 48평
◆ 가액 : 5천만원 (가격절충)
011) 9646-3220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하동
◆ 평수 : 290평, 법당22평 목조, 요사35평 기와
◆ 특징 : 포교최적지 기도도량
◆ 가액 : 1억 8천만원
0595)883-2448
017)856-3617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남해
◆ 평수 : 1천평 법당, 요사, 용왕당
◆ 특징 : 산세수려, 기도도량
◆ 가액 : 1억 3천만원
0595)883-2448
017)856-3617

포교원운영하실 분
◆ 위치 : 구로동 최요적지
◆ 평수 : 법당 30평
◆ 특징 : 삼존불, 불기류 일체 양도, 즉시 법회가능
◆ 가격 : 전세 4천만원
02)867-813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가평
◆ 평수 : 2500평 이상
◆ 건물 : 대웅전, 요사채 2동, 용화전, 용왕전, 산신각, 정각2개 황토방1개
◆ 가액 : 월세가능 답사후 절충
※ 입주가능, 공양주보살, 스님 구합니다
※ 인연닿는 행자스님(남, 녀) 모십니다.
0356) 582-0635/ 017) 708-0635

토굴 안내
◆ 위치 : 경남 함양군 덕유산 자락
◆ 건물 : 임법당 30평, 황토방1, 요사채1
◆ 가액 : 전세 1천만원 (건물위치 좋음)
0597)962-3528
011)842-3525

사찰 안내
◆위치 : 경북 영덕군 축산면 부곡1리 75
◆전체평수 : 1,997평 ◆대지 207평 40평 전통한옥 내 임법당 9~10평 사무실 7평~8평, 방 5개
◆국도에서 1km 내에 위치
◆도로 좌우로 2차선 완성, 주차장 완비
◆야산밑에 한덩어리로 묶여져 있음
◆주택지로도 좋고, 가족 묘자리로도 좋음.
◆가격 : 5천 5백만원
011) 655-3883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동작구 사당동 321-47호
◆ 평수 : 40평, 방 3칸, 주방 세면장, 심존불, 삼신각
◆ 가액 : 보증금 1천 5백, 월 70만원, 시설비 : 1천만원
02) 521-7512
018) 385-1234

사찰 안내
◆ 위치 : 의령군 부림면 신반 공원 밑
◆ 대지 : 200평 법당8평, 야외법당 25평, 요사채 12평-2동
◆ 가액 : 1억 2천만원
0555) 572-2462
011) 828-6006

사찰 안내
◆ 위치 : 삼척시 노곡면 주지리 226번지 전 : 각국사
◆ 건물 : 법당 13평 1동, 요사채2동, 부엌2개, 방5칸
특징 : 산새좋고, 물좋고, 맑은 청정 계곡
◆ 가액 : 5백만원 (사정상 급매)
0397)574-1358

사찰부지 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임화댐 인접
◆ 평수 : 450평, 입야 680평 연수원, 기도원, 복지시설 수양처, 별장지, 경관 최고
◆ 가액 : 평당 16만원
011) 594-3486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방 2, 주방 1, 법당옥상 사용가능
◆ 삼존불, 후불탱화, 신장 · 산신탱화, 시설 완벽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53)942-0700

과수원 하시면서 절 지으실 분
◆ 위치 : 밀양시 청도면 조천리 산207-2번지(시명대사 생가근처)
◆ 대지 : 2만평중 약 4천평 개간완료
◆ 길, 전기, 임시거처할 가건물, 하우스 있음, 계곡깊고, 저수지 바라 보임, 추천 과수목 : 호두, 메실, 단시감
0551)296-7226
017)286-7226

사찰터 안내
◆ 위 치 : 경북 김천
◆ 평 수 : 밭 470평
◆ 특 징 : 축대조성, 암자지을수 있음, 산밑에 위치 스님, 보살님도 가능
◆ 가액 : 2천만원
0547)436-1769
011)511-1769

봉축연등 백령도 다시 밝힌다

태고종 종교편향 딛고 통일기원 법회

심청각 위령재·군부대 위문품 전달도



◇백령도 불자장병들과 함께 남북정상회담의 성공과 평화통일을 발원한 봉축기원 법회.

연등을 다는 장병들의 손길이 감격에 겨운 떨림으로 한층 조심스럽다. 세찬 바닷바람 때문은 아닐 것이다. 백령도, 멀리 북한이 보이는 서해 최북단인 이곳은 기독교도인 공무원들의 방해로 지난해 연등조차 달지 못하고 불자들이 쫓겨나다시피 한 곳.

인구의 95%가 기독교인들로 이뤄져 무불(無佛)의 땅과도 같았던 백령도에 부처님 오심을 봉축하는 통일연등이 환하게 밝혀졌다.

태고종 인천종무원(원장 대은) 산하 스님들과 신도, 호국 흑룡사 군불자 4백여명은 4월29일 북한의 장산곶과 10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안보접경지역 백령도에 연등을 달고 북녘하늘을 환하게 비추는 자비의 통일등이 되어 줄 것을 염원했다.

불자들은 또한 기독교 일색인 백령도에 연등 밝힘을 계기로 불심의 싹이 튼튼하게 돋아나 큰 나무로 자라줄 것도 기원했다.

지난해 관공서가 노골적으로 봉축행사를 방해하자 인천종무원장 대은스님을 비롯하여 교계 종교편향대책위는 옹진군청과 인천시 등 각계를 찾아다니며 시정을 요구했고, 마침내 이날 공식적으로 연등을 밝힐 수 있게 된 것.

통일연등을 달고나서 합장기도한 해병대 김 모 병장은 "율해는 웃으면서 봉축법회를 갖고, 아름다운 연등을 볼 수 있어 너무 좋다"며 "우리민족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고, 분단의 고착화와 정신의 이질화를 막기 위해 하루빨리 대화를 통해 통일을 이루자"고 다부지게 말한다.

이날 국민화합 통일기원 점등법회를 주도하고 법문도 한 대은스님은 "50년만에 남북정상회담을 맞게 되는 만큼 백령도에 밝혀진 자비의 등에 모아진 기원으로, 통일이 앞당겨지고 북녘동포들에게는 부처님의 자비를 전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감개어린 음성으로 말했다.

점등법회에 이어 불자들은 30일 북한의 장산곶이 육안으로 보이는 인당수 앞 심청각에서 민족통일 기원기도 및 효녀 심청 위령재도 봉행했다.

한편 인천종무원은 군부대에 TV 3대, 떡, 격려금과 함께 태고종 총무원에서 마련한 불자장병 위문품 300 박스를 전달했다.

백령도=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정선 태경원 광산개발로 '몸살'

"소음·생태계 파괴중지" 서명운동 전개

강원도 정선군 북면에 소재한 한대리석광산의 공사로 인근 사찰과 주민들이 공해와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태경원(주지 동선)은 정선대리석광산이 매봉산(해발 967.4m)을 무참히 파괴해 산세와 경관, 보전임지, 계곡·하천을 파괴·오염시키고 24시간 작업 장비 및 화물차의 굉음으로 수행 및 신행환경이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1일부터 '정선대리석 개발중지를 위한 불교인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주지 동선스님은 "불과 800m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산개발로 인해 동강의 지류가 되는 뱃골천이 오염되고 있으며, 밤낮으로 진행되는 공사로 인해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최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광산의 개발중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접수해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녹색연합과 통해시 백두대간보존회, 원주환경운동연합도 자체 조사를 통해 정선대리석광산의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광산 개발중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선군도 정선대리석광산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중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옹진 몽운사 추정사지 수장위기

심청전 무대…댐건설 추진

심청이 공양미 삼백석을 바친 사찰 몽운사로 추정되는 중화동 절골의 사지가 수장될 위기에 처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 일대에 1백42억원을 들여 6월부터 공사에 착수할 식수 전용댐은 높이 25m, 폭 130m로 총 저수용량 23만1천 톤 규모.

수몰지인 절골 사찰터는 2000평으로 현재도 곳곳에서 기왓장들이 무수히 나오고 있다. 주변에는 용궁에서 돌아온 심청을 태운 연꽃이 떠올랐다는 연봉바위와 심청이 연밥을 떨어뜨리고 갔다는 연화리 연못 등이 현존해 지역주민들은 이곳 사지를 몽운사 터로 추정하고 있다.

이 지역 불자인 몽운거사는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지 발굴조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뒤 공사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4월30일 개원한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 영탑공원 전경.

한마음 선원 중부경남지원 영탑공원 준공

가섭·해수관음상 점안도

경남 진영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지원장 혜보)은 4월30일 가섭, 아난 존자 및 해수관음보살 점안식을 겸한 영탑공원 준공 법회를 봉행했다.

2천여명의 사부대중이 함께 한 이날 법회에서 한마음선원장 대행스님은 법어를 통해 "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부처가 있다"며 "모든 것이 귀일하는 근본처에 일체를 맡겨 놓아 자유스러운 삶을 살아가자"고 법문했다.

대행스님은 또 바다 인접지역에 해수관음보살상이 모셔진 이유를 묻는 신도의 질문에 "산, 바다가 모두 이름일 뿐 근본은 하나"라며 "모든 사람들에게 친근한 관음보살상을 조성하는 것은 생활과 불법이 둘이 아님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환경보호차원의 영탑 공원 조성에 국가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은 50기의 영탑을 조성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

천미회 기자
(mhcheon@buddhapia.com)



◇3일 종단협 주최로 서울 호창공원 원효스님 동상앞에서 봉행된 '원효성사 추모대재'.

"화쟁사상으로 사회갈등 치유"

서울·경주서 원효스님 1314주기 추모재

원효성사 열반 1314주기를 맞아 서울 효창공원과 경주 분황사에서 추모대재가 열렸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정대, 조계종총무원장)는 3일 서울 효창공원에서 "1314주년 원효성사 열반추모대재"를 봉행했다. 원효종 주관으로 열린 추모재에는 인곡 태고종 총무원장, 운덕 천태종 총무원장, 성초 진각종 통리원장, 무진 원효종 총무원장, 홍파 관음종 총무원장, 학봉 조동종 총무원장, 네팔 소얍부 주지대승정 진파 림포체, 김영태 전 동국대 불교대학장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해 원효성사의 뜻을 기렸다.

종단협의회 회장 정대스님은 인곡 부회장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원효성사의 원융화합의 뜻을 이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화두로 삼아 사회적 깨달음을 추구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원효학연구원(이사장 성타)과 (사)이차돈·원효양성사봉찬회(이사장 혜인)도 같은 날 경주 분황사에서도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추모재를 봉행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선각종 해인사 점안식



대한불교선각종(총무원장 정암)은 4월30일 광주 두암동에 위치한 해인사(주지 명인)에서 부처님 점안식을 봉행했다〈사진〉. 정암 총무원장 스님은 "불교는 일체의 선한 행과 진리를 중생에게 전하는 가르침"이라며 종도들의 화합을 당부했다.

김재경 기자

동의대 사찰출입 통제 완화

통행증 발급등 합의안 마련

부산 동의대학교의 주차장 유료화 실시에 따라 교내에 위치한 사찰 출입에 제한을 받아온 안극사(주지 수불)가 3일 동의대와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했다.

안국사 신도회가 1일부터 동의대학교 정문과 본관입구에서 자유로운 사찰 출입 보장을 위한 시위를 계속한 가운데 학교측과 안국사는 3일 대표 8명을 선임, 합의점을 찾기 위한 회의를 가졌다.

양측은 회의를 통해 안국사를 참배하는 사부대중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과 시위로 훼손된 동의대의 명예회복을 위해 안국사 신도들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아래 무료통행증 10장, 1학기당 5만원에 해당하는 교직원 수준의 통행증 40여장 지급, 초파일 학교 전면 개방 등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부산=천미회 기자

와우정사 미얀마불상 봉안

열반종(총무원장 김해근)은 미얀마에서 모셔온 부처님 이운식을 4월30일 경기도 용인 와우정사에서 거행했다〈사진〉.

이 불상은 미얀마 모유하에 모셔져 있던 것으로 탤런트 이원용(법명 신띠로가)씨가 봉축특집 KBS 도전 지구탐험대 미얀마 불교체험에 출연, 17일간의 출가생활을 경험한 인연으로 모셔온 부처님이다. 미얀마는 불상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평소 미얀마와 지속적인 교류를 해온 열반종 김해근 총무원장의 노력으로 와우정사에 모셔지게 됐다.



남방의례와 우리나라 전통의례로 진행된 이날 이운식에는 스리랑카 불치사 유실라완사무르테르 스님과 열반종 원로의원 덕암스님, 성대석 신도회장, 박재오 청주지검 전 검사 등 사부대중 200명이 참석했다

현재 와우정사에는 현재 세계 각나라의 불상 200여구가 모셔져 있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자연과 이웃을 내몸처럼"

광주 BBS 서옹스님 초청법회



광주불교방송(사장 이상진)은 4월27일 광주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개국 5주년기념 서옹대종사 초청대법회〈사진〉를 개최했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장 천운스님, 백양사 주지 다정스님, 화엄사 주지 종걸스님, 선각종 총무원장 정암스님, 광주전남불교신도회 김두원 회장, 광주광역시 이윤자 정무부시장 등 사부대중 1000여명이 참석했다.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서옹스님은 법어를 통해 "불교만이 대립과 투쟁으로 반목해 온 인류에게 화해와 평화를 약속할 수 있으며, 전도양양한 인류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며 "부처님의 동체대비사상을 바탕으로 자연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자"고 당부했다. 광주=주용직 지사장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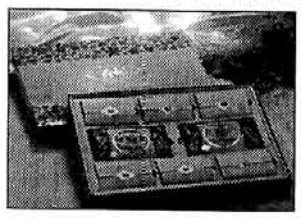
밝은길 아바타센터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합장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 (02)396-2736 H.P. 016-228-2358

◐ 아바타 코스는 7-9일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서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교통편 : 서울역, 시청앞 조계사앞 3호선 경복궁역에서 135, 135-1, 2, 3번 버스로 약 20분 거리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악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개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 영 희)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목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합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 팔 괘 : 고급나무 조각 목판 팔각형
· 만다라 :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 규 격 : 45Cm×45Cm

◎ 보급가 : ₩ 300,000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화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파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7남매 보살행 '빈자의 일등'

소쩍새 마을에 3천만원 보시
모두 불교대학 졸업…신행 열심

어느 일곱 남매와 며느리의 깊은 불심, 그리고 그 어머니의 헤아릴 수 없는 자비가 올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마침내 연꽃으로 피어났다.

대구어 사는 안순자 보살(48)은 큰 언니(62)와 함께 최근 소쩍새 마을을 찾아 3천만원을 선뜻 내놓았다. 두 사람은 어머니의 유지를 전한 것일 뿐 별다른 의미를 두려고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거기에는 어머니와 며느리, 7남매의 '부처님 사랑' 이야기가 숨어 있다.

안보살의 형제들은 위로 언니넷과 오빠 하나, 그리고 막내 동생을 합해 모두 7명. 이들 일곱 남매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48살에 남편을 잃은 어머니 이복순씨는 이 무렵부터 94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무려 30년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2시간씩 경전을 외고 기도를 했다. 어떤 날엔 며칠간 삼천배 기도로 밤을 밝히기도 하고, 또 몇 주나 몇 달씩 절에 가서 무보수로 공양주를 하기도 했다.

일곱 남매는 모두 어머니를 닮았다. 이곳저곳의 사찰을 찾아다니고, 마음만 나면 아무때나 절에 찾아가 삼천배를 올리는 것이 그렇다. 사찰이나 지역에서 남을 돕는 행사가 있으면 참가했다가는 슬그머니 빠져나오는 상(相)내지 않는 모습까지도 빼 닮았다. 여기에 안씨를 비롯한 일곱 남매와 올케가 모두 불교대학을 나왔을 정도로 불교를 알고자 하는 노력이 대단하다.

그중 대구 보현사 신도인 큰언니(62)의 불심은 가장 절절하다. 10여 년전 옥상에서 떨어져 허리를 크게 다쳤지만 몇 백번인지도 모를 정도의 삼천배 기도를 통해 지금은 밭일도 거뜬히 해낸다.

둘째(58)와 셋째(53) 언니, 그리고 오빠(56) 역시 큰 언니 못지않게 신행생활에 열심이다. 삼천배는 기본이고 일년에 최소 한 두 차례 꼭 100일 기도를 한다. 웬만한 경전은 꿰고 있을 정도로 공부도 열심이다. 막내(46)는 사경에 관한 한 형제들 중 제일이다. 한 자 쓰고 108배를 올리는 식으로 일년에 두 차례 100일 기도를 한다.



◇어머니의 지극한 불심을 본받은 일곱 남매는 저마다 독특한 신행생활을 통해 불심을 가꿔가고 있다. 사진은 안순자씨가 결혼한 직후인 79년에 여섯 자매가 한 자리에 모였을 때 모습.

안씨의 올케는 20년을 넘게 시어머니와 함께 절에 다닌 도반. 시집을 오기 전까지만 해도 개신교도 였으나 시어머니의 불심에 감동해 불교신자가 됐다.

이번에 소쩍새 마을에 기탁한 3천만원은 94년 타계한 어머니 이씨가 일생동안 한푼두푼 절약해 도은 재산 1천5백만원에 자식들이 그만큼을 보탠 것이다. 장애인을 위해 쓰라는 어머니의 유언을 7남매는 6년이 지난 이번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그대로 따랐다.

풍족하게 사는 삶은 아니지만 어머니의 불심에다 자신들의 정성을 더 모아 3천만원을 선뜻 소쩍새마을에 내놓은 이들 일곱 남매의 불심은 '빈자의 일등'처럼 세상을 밝게 비춘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봉은사 11일 '야간거리축제'

경내 미륵광장-봉은로
5천여 불자 참여할듯

서울 봉은사(주지 원혜)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단위 사찰로는 처음으로 야간 거리축제를 개최한다.

봉은사는 11일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봉은사 앞 도로와 경내 미륵광장에서 5천여 명의 불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부처님 오신 뜻을 되새기는 각종 문화축제를 벌인다.

이날 벌어지는 축제는 불꽃놀이와 무대특수조명 등을 연출하는 '천년의 빛'을 주제로 한 식전 행사에 이어 무용단 퍼포먼스와 부처님의 강림을 표현한 레이저 쇼, 합창단 공연 등의 1부 행사와 참석자들이 자신의 물건을 타임캡슐에 묻으며 소원을 발원하는 매향식, 스님 드림팀과 연예인의 줄넘기·기마전·닭싸움, TV 프로그램인 '출발 동서남북'을 응용한 불교상식 게임, 시민 노래자랑과 댄스 페스티벌 등의 2부 축하공연이 이어진다.

특히 부처님 강림을 표현하는 레이저 쇼는 대형 연꽃 애드벌룬 2개 사이로 설치된 스크린이 밤하늘에서 영상을 받아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게 되며, 이어 무대 중앙에서 리프트를 타고 내려온 연꽃 모양의 지구본이 열리면서 동자승 캐릭터가 등장하는 등 첨단기술에 부처님 오신 뜻을 담은 무대가 펼쳐진다.

이와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거리 한쪽 부분에 인조 벽을 설치해 불교와 관련된 그림을 그리는 행사와 찬불가 경연대회, 소규모의 록 페스티벌 등의 거리 이벤트 행사를 통해 10대들의 동참도 유도할 계획이다.

실무를 맡고 있는 박금직 기획과장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부처님 오신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키는 취지에서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02)517-0149

한명우 기자

고양 극락사 '추모관' 8월 완공

시립화장장에 국내 첫 사설납골당

경기 고양시 태고종 극락사(주지 상균)가 8월말 완공예정으로 건립중인 '벽제 정안공원 추모관'이 시로부터 공식허가를 받음으로써 시립 화장장에 들어서는 국내 최초의 사설납골당으로 기록됐다.

시립 벽제화장장에 들어서는 정안공원 추모관은 벽제화장장과 불과 1백여m 떨어진 곳에 위치해 화장 후 안치가 편리한데다 서울과 인접해 있어 교통이 편리한 것이 장점. 지상 2층에 연건평 2천여평 규모로 모두 1만여기를 수용할 수 있다.

고인의 생존시 모습과 육성, 업적 등의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시간에 제례를 지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최고급 자재와 항온·항습 자동장치 등 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밖에 1천여평 규모의 주차장과 각종 휴게·편의시설 등도 설치된다. 납골당 1기당 가격은 250만원. (0344)969-9003

한명우 기자

뉴스 & 뉴스

비전향장기수 송환촉구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장 청화)와 불교장기수후원회(상임대표 성관)는 37개 인권단체와 공동으로 비전향장기수 송환 촉구 서명운동을 6월30일까지 실시한다. 두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통일조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단의 상징처럼 남아있는 비전향장기수에 대한 조건없는 원거주지 송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7일 국세청 앞에서 열린 제2회 불교인권문화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가두 서명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김해 동림사 천불전 전소



김해 동림사(조실 화엄) 천불전이 4월28일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전소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이 화재로 천불전에 봉안돼 있던 1천7백여기의 청동 지장보살상이 훼손되었고 목조 건물인 30여평의 천불전이 전소되는 등 경찰 추정 1억원, 사찰 추정 10억원 상당의 피해를 냈다.

김해경찰서는 "화재 감식 결과 전기 누전이 아니라 촛불에 의한 화재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림사에 상주하는 보살은 "화재 발생 당일 참배객과 대화를 하는 도중 갑자기 천불전에서 불길이 솟았다"며 방화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해=천미희 기자

최장수 직업은 종교인

사회 저명인사 중 종교인이 최장수를 누리는 반면 언론인은 가장 단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원광대 복지보건학부 김종인(한국보건복지학회장) 교수가 1963년부터 지난 2월까지 37년간 주요 일간지 부음기사에 난 사회저명인사 2,142명을 대상으로 조사, 2일 발표한 '직업별 평균수명에 대한 조사연구" 논문에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이들 사회저명인사의 직업별 평균 수명은 종교인이 79세로 가장 높은 반면 언론인은 65세로 제일 낮았다. 김재경 기자

생명나눔실천회 '캠페인'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는 4월29일 경기 광명시 금강정사 청년회와 공동으로 철산동에서 '전국민 1인 1장기기증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에는 200여명의 일반시민들이 장기기증을 서약했으며, 금강정사 스님들과 신도회, 학생회 등도 참여했다.

한명우 기자

인터넷 불교대학 개강 "불전강독 합니다"



◇인터넷 불교대학은 동영상 강의가 진행되면서 강의노트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동영상으로 불교강좌를 들을 수 있게 됐다.

5월2일 오픈한 '인터넷불교대학'(책임교수 최봉수, IBC/Internet Buddhist College, www.buddhistweb.com)은 교계 최초로 동영상과 강의노트를 요약해 보여주는 교육시스템으로 다른 원격강의 사이트와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 특징이다.

인터넷불교대학이 운영하는 원격강의 시스템은 동영상으로 교수의 강의가 진행되는 등안 화면 좌측에 강의노트가 작동돼 입체적인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고안됐다. 강의노트만 따로 볼 수 있는 '슬라이드 보기' 코너와 강의내용을 다운받을 수 있는 자료받기 코너가 개설돼 있어 동영상을 보기 힘든 이들에게 좀더 쉽게 강의를 접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불교대학은 이용자가 동영상과 강의내용 요약본, 자료받기 등을 통한 강의 노트 등 3원 입체교육을 구현하고 수준높은 강의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붓다의 생애, 불교입문, 초기불교개론, 부파불교 비판, 대승불교연구 등의 불교학 강의와 〈능엄경〉〈화엄경〉 등 불전강독을 오픈했다.

인터넷불교대학에서는 현재 서비스 하고 있는 불교교리·경전 강좌 동영상 원격강의 외에도 불교전자 출판, 불교사전 검색서비스, 불교문화재 순례프로그램, 산스크리트어·팔리어·티벳어 등 불교전문 언어 원격강의, 관련 교리 쟁점 문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강지연 기자

관문사-흥천사 자비의 경노잔치

천태종 서울 관문사(주지 운덕)와 보문종 군산 흥천사(주지 지환)는 3일과 7일 부처님오신날과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경로잔치를 각각 개최했다. 서초구내 노인 5백여명이 동참한 관문사 경로잔치에서 노인들은 관문사에서 준비한 점심을 들며 가수 김흥국 머루와 다래 장미화 국악인 김병순씨의 공연을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김덕룡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조남호 서초구청장 등이 참석한 이날 운덕 주지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갈수록 퇴색되고 있는 경로효친사상을 고양시키고 부처님 오신 뜻을 되살리기 위해 이 행사를 마련했다"면서 사찰과 불자들이 경로효친사상을 발전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경로잔치를 연 흥천사도 군산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5백여명을 초청하여 점심과 과일 음료수 떡 등을 대접하고 국악공연과 흥천사 유치원생들의 재롱잔치, 무용, 노인들의 장기자랑 등을 펼쳤다. 특히 흥천사는 신도들에게 미리 '자비의 코끼리' 저금통 1천개를 나누어주고 자발적으로 모여진 저금통으로 경로잔치가 베풀어져 한층 뜻있는 행사가 되었다. 이경숙 기자

정각선원 개원 5돌

국회정각회 직원불교신도회는 국회 정각선원의 개원 5주년을 맞아 철산 탄공스님(전 문경 사불산 대승사 주지) 초청법회를 4월28일 정각선원에서 봉행했다.

부처님 오신날 법요식을 겸해 거행된 이날 법회에서 탄공스님은 "남보다 나아지려면 몇시간이고 더 노력하고, 죽을 힘까지 다해서 공부해야 깨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지연 기자

'폐기종' 앓는 네살바기
"수술해야 산대요"



'엄마! 숨을 쉬고 싶어요' 네살바기 지윤이가 가녀린 팔뚝에 주사바늘을 꽂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들어 있는 모습은 안타깝기만 하다.

지윤이의 병명은 '선천성 배엽성 폐기종'. 지난 3월 갑자기 숨을 잘 쉬지 못하고 심한 독감 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실려온 지윤이는 수술밖에 살 길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문제는 수술비. 엄마와 단칸방에서 단 둘이 사는 형편이라 수술비와 치료비 600여만원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지윤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엄마는 병간호를 하느라 일을 하지 못해 생활마저 어려워지는 등 이래저래 딱한 처지에 놓였다. 이런 안타까운 사정을 전해들은 조계사는 부처님 오신날의 참뜻을 되살리고 지윤이를 돕기 위한 '이웃을 위한 등달기' 행사를 벌이고 있다. (02)732-2183

한명우 기자

불기2544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 동시법회 공동발원문

대자대비하신 우리 부처님!
불기 2544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뜻깊은 이 날, 남과 북의 불자대중은 동시에 법회를 열고 범종을 울리며 통일의 서원 가득 삼가 부처님 전에 발원합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자주·평화통일·민족 대단결의 평화통일 3대 원칙은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며, 남과 북의 공존·공영·공리를 보장하고 민족성원 누구나 다 소원하는 평화통일이야말로 우리 불자대중이 희망하는 최상의 통일방안입니다. 애국애족의 기치아래 온 민족이 한결 화합하여 서로 협력하고 혈육의 정을 뜨겁게 나누는 것만이 우리 불자 대중이 바라는 겨레의 화목한 모습입니다.
남과 북의 전체 불자대중은 우리 조국의 통일을 위한 실천행으로 자주·평화통일·민족 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에 충실하여 민족의 화합, 교류와 협력을 통해 통일을 앞당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이 땅 위에 불국정토, 통일조국을 실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 외칩니다. 한마음 함께 기울여 통일을 앞당겨오고 통일된 이 땅에서 길이 함께 살아야 할 형제법우들이기에 우리 가는 통일의 길이 험난하다 해도 이 서원 굳게 지녀 기어이 통일로 가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는 우리 부처님, 남과 북의 불자대중의 굳센 서원 깊이 성찰하시고 우리 가는 앞길에 불은을 내려주시오소서. 저희들이 가는 길 잠시라도 멈춤이 없도록 부처님 가호가 있으시기를 발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불기 2544년 부처님 오신날

남북불교대표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서 정 대
부처님 오신날 봉축위원회 위원장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박 태 화

봉축위원 : 홍인곡, 전운덕, 김성초, 이홍파, 김혜정, 정혜일, 배일공, 총지화, 송무진, 전남정, 주운경, 정법륜, 손금광, 방보명, 이대화, 장봉암, 한학봉, 이청봉, 윤일오, 전석봉, 김해곡, 이월정, 신명안

봉 환 동해권 중심대학으로 부상합니다 축

■ 설립취지 ■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이념과 대한불교진각종의 근본정신에 입각한 대학교육을 통하여 민족과 인류에 헌신할 지덕겸비의 참된 인재를 육성한다

■ 교육목적 ■
21세기 선진통일한국을 이끌어 나갈 지도적 인재를 육성하며, 문화발전과 과학기술혁신에 이바지하고, 특히 지역사회에 봉사한다.

■ 교육목표 ■
◎ 자주적 지성인 육성
◎ 창조적 문화인 육성
◎ 개방적 지역인 육성

위 덕 대 학 교
총 장 손 제 석
780-713 경북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산50
TEL (0561) 760-1053 FAX (0561)760-1059
나우누리 홍보광장 : go uiduk 인터넷홈페이지 : http://www.uiduk.ac.kr

佛紀 2544年 (庚辰年)
부처님 오신날

發願已歸命禮三寶 새 천년 불국토

佛紀 2544年 (庚辰年)
부처님 오신날

대한불교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신흥사

회주 무산오현
주지 법 장

대중일동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
전화 : 0392)636-7393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 본사

月精寺

회주 인 허
주지 현 해

대중 일동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63
(우 : 232-940)
전화 : 0374)332-6661~5

대한불교 조계종 제5교구 본사

속리산 법주사

주지 석지명
부주지 무 상
총무 종 운
기획 종 진
교무 각 신
재무 각 원
호법 감 진 광 밀

대중 일동

▶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209
전화 : 0433) 543-3615
FAX : 0433) 543-3620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 본사

팔공산 동화사

조실 진제 법원
주지 자호 성덕

선원장 영 진
강주 해 월
총무 지 우
기획 지 도
교무 혜 정
재무 혜 성
사회 성 묵
포교 정 현
호법 도 완

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5번지
전화 : 053)985-4404/982-0101
FAX : 053)985-4405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본사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서 옹
주지 다 정

총림 대중일동

▶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6
전화 : 0685) 392-7502
FAX : 0685) 392-2081

대한불교 조계종

낙산사

주지 지 홍

대중일동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55
전화 : 0396)672-2448

대한불교 조계종

화계사

조실 숭산행원
주지 성광

사부대중
신도일동

▶ 서울시 강북구 수유1동 487번지
전화 : 02)902-2663

대한불교 조계종

불광사·불광법회

법주 지정
회장 하산 박충일

법등 가족일동

▶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160-1
전화 : 02)413-6060~2
FAX : 02)413-6781

大韓佛教 曹溪宗

천불사

회주 도봉

신도일동

▶ 경남 양산시 웅상읍 매곡리 304
전화 : 0523)382-1463
0523)383-9212

대한불교 조계종

황령산 홍제사

황령선원
선원장 혜 국

대중일동
신도일동

매월초하루 정기법회 큰스님법문

▶ 부산시 진구 전포3동 산 51-2번지
전화 : 051)802-0130

금해스님의

여래선식

오랫 동안 기다리신 소납의 선식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킨 122종류의 약재와 순수한 토종 곡류로 각 약재마다 특성을 최대한 살린 9증9포와 오랜 법제 기간을 거쳐 3년에 걸친 노력 끝에 완성되었습니다. 15년 이상의 경험을 살려 수 천년 민족비방과 1천여 년간의 佛家 선식을 합친 환 및 가루 선식으로 복용방법이 간단하며 남녀노소 체질 등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래선식은 현대의 각종 공해로 인한 유전자 변형과 음식물 및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으로 인한 오장육부의 일체 질환과 체질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특히 간염, 간경화, 간암 등에는 놀라운 치료 효과가 나타납니다.

▶▶ 치료 대체효과로 본 증상 사례 ◀◀

1. 비, 위장 및 소화기 질환, 대장병
2. 기관지 천식, 폐암, 기관지염, 선후암
3. 비만 및 체질개선
4. 각종 초기암 및 진행암
5. 수술전후 방사선 및 항암치료
6. 병원에서 진단되지 못하신 분 친견
7. 우울증, 정신장애, 신병 등에 관한 친견

주문 신청 0523)372-1221 / 011)564-1217

■입 금 : 우체국 611715-0029373 예금주 : 지덕용
■주 소 : 경남 양산 약사사 ■대 금 : 20만원

栗林書道院

栗山 李洪宰

▶ 대구광역시 중구 덕산동 125-12
전 화 : 053)423-1001
휴대폰 : 016)803-1001

빅-뉴스

피로?
나에게는 없다!

■ LIHIS 건강양말

· 건피부(특히 발이 갈라 지는 분)
· 피부노화 방지
· 숙취 해소

건강양말
특허출원번호
0043150
LIHIS

■ LIHIS 건강 숯 양말

· 당뇨에는 더 이상 당이 안 오름
· 원적외선 차단

건강숯양말
실용신안번호
0165970
LIHIS

상담문의

(주) 화동섬유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321-116
053)582-1245

동충하초 冬蟲夏草



· 누에 동충 하초의 약리 효과(동물실험)
(자료제공: 서울대 천연과학연구소)
· 항암 효과
· 간보호 효과
· 항피로 효과
· 항 Stress 효과
· 면역력증강 효과

■ 면역기능 증강, 천식, 피로 회복에
■ 진시황, 양귀비, 등소평이 애용한 신비의 버섯
■ 주문(입금확인)후 48시간 이내에 전국 배달
■ 지사, 판매사원 모집

■ 계좌번호
조흥은행 : 806-04-409299 김창수

■ 행사기간
(5월 1일~5월30일)할인판매
1통 25,000원 → 15,000원

E-mail : chang413@hanmir.com

■ 판매처 0546) 458-0112/ 017) 524-0413
경북 구미시 송정동 80-1 하나 B/D 1층
■ 생산지 0546) 481-6399
일선 천연물 연구소

타조



최우수 종타조 분양

· 종타조및 어린 타조 분양중
· 부화 · 육추 지도및 위탁 사육 가능
부화에서 어린타조, 육성타조, 산란타조의 사육 기술지도및 소규모 사육농가를 위한 위탁부화, 육추 중 판매업
· 고품질의 사료개발 생산 개시
사료품질검사소 인증 고품질 사료를 대구축협에서 생산, 기존 사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농가에 공급
· 3~5, 6~8년생 종타조 파격적인 가격에 공급
기존의 가격 개념을 허물어 일반 농가 위주의 실가격에 공급
타조사육 희망시 입지선정, 사육사 구조·건축방법 기타 사육 기술등을 무료 출장 상담하고 있음

경북 구미시 장천면 오로리 824
http//www.kor-ostrich.co.kr
☎ (0546)4747-109

한국타조연구소
한국타조농산(주)